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현대불교

山村한과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쇼핑몰 : www.sanchon.com
미리주문하세요!!

news.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1월 15일 수요일(주간) 제404호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통도사 인터넷 호법신장

경남 양산 통도사의 초산유원지 반대 운동이 인터넷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도사는 사찰 인근에서 전개되고 있는 초산유원지와 위락시설 건립사업을 효과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최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tongdosa.or.kr)에 유원지 건립 반대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신도들도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네티즌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통도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익성만 내세운 난개발이 통도사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전통사찰의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불교문화유적과 국보, 보물 등 수천 여 점의 문화재를 소정하고 있는 통도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락시설 조성 사업이 중단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통도사의 인터넷을 통한 초산유원지 건립 반대운동은 인터넷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대중의 검증을 거치고 다수의 공감을 얻게 되면 현실적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월드컵 열기에 가려있던 효순 · 미선이의 죽음에 침묵하지 않고 검은 리본 달기 운동을 벌인 인터넷 공간의 목소리들이 수만의 촛불로 타오르고 있는 것과,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당선에 젊은 세대들의 인터넷을 통한 힘 모으기가 주효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도사의 이런 노력이 단순히 '인터넷'의 위력에 기대는 결과에 매몰돼서는 안된다. 통도사는 통도사의 대중이나 불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주민 모두의 문화적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불교계 전체에 희망을 안기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
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접수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경남: (051)632-0064 대구 경북: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주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청주 충북: (043)258-3282 인천 강화: (032)937-5679 강릉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밀양: (055)353-1196

정대스님 총무원장직 24일 사퇴 표명

조계종, 본격 선거 국면

3월초 차기원장 선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오는 24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한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제31대 총무원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들어서게 됐다.

정대스님은 8일 총무원장실에서 중앙종회의장 지하스님, 종광 · 지현 · 도공 · 탄우 스님 등 중앙종회 분과위원장들과 만나 동국대 이사장 임기가 시작되는 이달 24일 이사장 취임과 함께 총무원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이 자리에서 "동국대 이사장과 총무원장을 겸직할 것이라는 억측이 난무하는 것은 좋지 않다. 24일 사퇴 성명을 발표하겠다. 이미 떠날 준비가 다 돼 있다"며 더 이상 총무원장직에 연연해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정대스님은 임기를 9개월여 남겨두고 있다.

정대스님이 24일 사퇴할 경우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되고 선거일정이 확정된다.

이어 종법에 따라 선거가 공고되고, 종법에 정해진 최소한 30일간의 선거 공고일(선거운동기간 10일 포함)을 거쳐 2월말 또는 3월초 선거가 치러지게 되며, 총무원장 선거법 제13조에 따라 24개 교구에서 10명씩 선출되는 240명의 선거인단과 종회의원 81명 등 모두 321명의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된다.

이에 따라 유력한 차기 총무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종하(서울 관음사 주지), 법장(수덕사 주지) 스님의 행보도 빨라지게 됐다.

한편, 종광스님 등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8명의 요구에 따라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임시중앙종회가 열린다.

임시종회 소집을 요구한 종회의원들은 현재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교구 선거인단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들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문제를 안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 종회의원은 정대스님의 동국대 이사장 겸직을 극구 반대해 온 쪽으로, 사실상 임시종회를 통해 원장직 사퇴발언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대스님이 24일 사퇴하지 않을 경우 종회는 물론 조계종 전체가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10일 진구 · 무자 · 토진 · 일문스님 등 4명의 종회의원은 "정대스님이 9일 동국대 이사장 자격으로 총장을 선출 했으므로 이날부터 임시종회 개원일까지 총무원장 직무수행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종단사태 관련 징계자 사면"

조계종정 법전스님, 신년하례법어서 피력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이 종단사태 때의 징계자들에 대한 사면 의지를 밝혔다.

법전스님은 5일 해인사에서 열린 조계종 신년하례식에서 법어를 통해 "진정한 화합 차원에서 사면할 것은 사면토록 해 종단의 구성원 모두가 화합하여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법전스님은 또 "사부대중과 전 국민은 화합하여 국태민안한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수행하며,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신년하례에는 총무원장 정대, 종회의장 지하, 호계원장 월서, 교육원장 무비, 포교원장 도영 스님 등 조계종단 집행부 및 백창기 중앙신도회장 등 신도단체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명우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민주당 연등회 주최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내외는 북핵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발원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동국대 총장 홍기삼 교수

권노갑 이사 후임 차기 이사회서 선임

동국대 제15대 총장에 홍기삼(국문과) 교수가 선임됐다.

동국학원 이사회(이사장 정대)는 9일 신라호텔에서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89회 이사회를 열고 홍기삼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사회에서는 학원 정관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교수회와 교직원노조가 추천한 홍기삼 조희영 정병조 교수, 개인총장후보자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한 현각 보광 스님 등을 대상으로 1차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결과 홍기삼 교수는 과반수가 넘는 7표를 얻어 선임이 확정됐다. 홍 교수는 지난해 10월 20일 동국대 교수회의의 총장 후보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이사회에 추천됐다.

홍기삼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화합으로 학교중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인터뷰 3면>

또 이사회에서는 권노갑씨의 이사직 사퇴서가 수리됐으며, 권씨가 사퇴한 이사직은 다음 이사회까지 공석으로 남는다. 이와 함께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과 동국학원 이사들은 동국학원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전 이사장 녹원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북한산 관통도로 합리적 해결"

노 대통령 당선자 내외 신년하례 법회 참석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와 민주당 불자모임인 연등회(회장 김기재)는 8일 서울 하림각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 운산 태고종 총무원장, 운덕 천태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종단협 회원 20여 종단 지도자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내외, 한화갑 민주당 대표, 김기재 연등회 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 당선자는 북한산관통도로와 금정산 · 천성산 고속철도 통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에 앞서 조계사에서 가진 종단협 신년하례법회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원만한 타결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화합을 발원했다. 종단협 회장 정대스님은 "불이와 원융사상으로 계층, 지역, 남북, 국가, 민족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한 상생과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불교계 NGO·신도단체 내년 3월 연합체 구성

자연·수행환경수호 연대

자연보호 및 사찰환경 수호를 위해 신도단체, 불교계 NGO 등이 연대 활동을 강화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내년 3월 경에는 연합체를 결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연합체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대한불교산악인불자회, 불교환경연대, 불교환경교육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조계종 공동대책위원회, 교구 환경위원회 등 출 · 재가를 막론하고 불교계 대부분의 단체들이 참여하며, 조계종 환경위원회 산하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연합체 소속 단체들은 평소 고유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환경 관련 중요 현안이 부각될 경우 연대활동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올 봄으로 예정하고 있는 '불교환경의제 워크숍'을 통해 확정되며, 하반기에는 사찰 및 자연환경 보존 실천과제인 '불교환경의제'를 설정한다. 이와 함께 연간 1차례씩 워크숍을 열어 각종 정보를 교류하고 불교환경연대나 불교환경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교육도 받게 된다.

중앙신도회 이상근 총무부장은 "북한산 관통도로 저지 때 하부조직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연합체가 구성되면 각종 환경문제에 동원 차원이 아닌 주체적 참여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이번 주 '홍보부록(4쪽)' 발행

천년고찰 파주 보광사
납골당 영각전
부처님 품안에서 왕생극락하소서
031)948-4440
한글도메인 · 납골당

사 설

총무원장 선거 여법하게

조직 · 돈 · 흑색 선전….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말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불교계의 선거 풍토도 이러한 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 되었다. 출세간이 오히려 세간에 오염된 경우라 하겠다.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이 사퇴를 표명함에 따라 차기 총무원장 선거 국면으로 들어섰다. 이럴 때마다 많은 불자들은 조마조마한 심정이 된다고 한다. 그동안 총무원장 자리를 두고 다툼을 벌이던 일이 떠올려지기 때문이다. 부디 이런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몇 마디 고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화합을 해치는 어떤 행태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살인자 알굴리 마라와 당신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데바닷타마저 포용하면서도 화합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단호한 꾸짖음을 내렸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물밑에서 세몰이를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말이다.

둘째, 합리적 종책과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전종도에 제시하라는 것이다. 비록 재가 신도에게는 선거권이 제한돼 있지만 적어도 그것에 대한 대중의 의견은 공론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구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은 여론을 살피고 투표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새 총무원장은 대중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지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반드시 그러한 자질을 검증하는 대중공사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종권 다툼이 불심을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

北사찰 단청불사 지원 환영

조계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이 북한 사찰 단청불사를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최근 북한의 사찰 9곳을 직접 살펴보고 온 한 단청장에 의하면 불상들은 한결같이 시꺼멓게 변색됐고, 보수한 사찰의 페인트도 대부분 칠이 벗겨져 있었으며, 새로 보수하거나 지은 사찰 대웅전 벽에는 아예 벽화가 없다고 전했다. 또 북한에는 단청기술자가 두 세명에 불과할 정도로 단청기술의 맥이 거의 끊겨있으며 그나마 새로 하는 단청조차 전문가가 아닌 대학생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쪽 불교계가, 전쟁에 다 부서지고 그나마 61곳이라도 남은 북한의 사찰보수에까지 관심을 넓히는 일은 부처님제자로서 당연하고도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이렇게 뜻있는 불사에 잡음이 들린다. 어느 단체가 주도하느냐 하는 논란이 있어 통일부에서조차 불교계 내부에서 정리를 하라고 했다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보기만 해도 환희심을 낼 수 있도록 여법하게, 수백년이 지나도 여여(如如)한 단청이 되도록 범불교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논의하는 일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북쪽 사찰의 단청불사 지원이 본격화되면 재료 및 기술 전수와 함께 남쪽불교계의 신심과 수행력도 전달될 것으로 믿는다. 남북의 하나된 정성으로 혼이 깃든 불사가 잘 회향되면 그 공덕으로, 과거의 유물이나 관광차원에 머물고 있는 북한의 사찰들이 참다운 수행도량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고 민족의 통일도 한층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징계자 사면 3월 종회 분수령"

기획실장, 멸빈자 구제 종헌개정 후 가능

조계종 총무원 대상자 파악…총 47명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이 5일 열린 신년하례식에서 사면을 언급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멸빈자(승려자격을 영구 박탈당한 자)를 제외한 사면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이에 대한 중앙종회의 해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도현스님은 "화합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면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면 대상자는 98년 종단사태 때의 징계자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도현스님은 또 "멸빈자까지 구제해야만 사면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종법상 불가능하다. 시기는 아무래도 3월 정기중앙종회가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사면은 종헌 23조 · 54조 및 중앙종회법 2조에 따라 총무원장이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 종정에게 품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종헌 제128조에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돼 있어 멸빈자는 종헌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구제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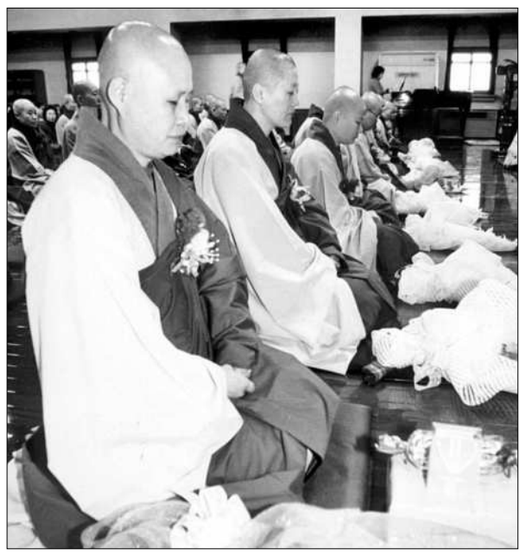
사면 얘기가 나오면서 총무원 호법부에서도 대상자 파악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98년 조계종사태 때의 징계자는 멸빈(복적 불가능) 10명, 제적(5년 후 복적 가능) 8명, 공권정지(집행기간 중 공직취임 불가) 29명 등 모두 47명이다. 그러나 멸빈자를 제외하면 사면 대상자는 37명이다. 이 가운데서도 공권정지 10년 이상자는 1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권정지가 이미 풀렸거나 곧 풀릴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입는 사람은 20여명에 불과하다.

상당수 교계 관계자들은 "진정한 화합차원의 사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멸빈자까지 구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멸빈을 제적으로, 제적을 공권정지로 낮춰도 승단 내에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종단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몇몇 종회의원들은, 종헌개정이 종회의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그럴만한 필요성을 느끼는 상황도 아니어서 멸빈자가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승단 내 문제를 끝까지 사회 재판으로 문제를 야기 시켰던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종단의 기강을 흔드는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멸빈자 사면을 반대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8일 열린 삼선승가대학 졸업식 모습.

사미 108 · 사미니 159명 배출

조계종 18개 승가대학 졸업식

지난 6일 열린 청암사 승가대학 졸업식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승가대학(강원)이 2월 중순까지 일제히 졸업식을 갖고 사미 108명, 사미니 159명 등 모두 267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다.

청암사에 이어 동학사, 운문사, 봉녕사, 삼선 승가대학 등 사미니 승가대학 5곳은 8일과 13일 졸업식을 각각 거행하고 모두 159명의 사미니를 배출했다.

해인사 13명, 송광사 19명, 통도사 13명 등 모두 108명이 졸업하는 13개 사미 승가대학은 2월 15일까지 졸업식을 각각 거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졸업한 사미(니)들은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을 갖추게 되며, 오는 4월 예정인 4급 승가고시를 통과해야만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다.

한명우 기자

서류제출 재요구 불응땐 압류조사

봉은사 조사특위

조계종 중앙종회 봉은사 조사특별위원회는 8일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회의를 열고 감사에 불응하고 있는 봉은사에 대해 14일까지 서류제출을 재요구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호법부를 동원, 서류를 압류해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봉은사 조사특위는 지난해 12월 24일 특위 전체 감사를 비롯해 특위 소위원회 감사 등 몇 차례의 감사를 시도했으나, 봉은사측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했다.

봉은사 특위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임시종회에서 그간의 특위활동을 보고하게 된다.

한명우 기자

수도권 50여사찰 포교현황 조사

조계종 포교원, 결과토대 실천과제 선정

조계종 포교원이 우리나라 인구 50%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 포교 활성화에 나선다. 조계종 포교원은 수도권지역 주요 사찰을 대상으로 포교현황 조사를 벌여 단위사찰의 포교역량을 계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수도권 포교 방향과 실천과제 등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15~18일 직할 사찰 가운데 서울 · 인천 · 경기도 등에 위치한 50여 사찰의 포교현황을 파악한다. 조사항목은 전체예산 중 포교예산 비율, 포교프로그램 운영 여부, 신도 · 포교단체 구성 및 활동, 신도기본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2월까지 포교 모범사찰의 정책개발자 10여명으로 수도권 포교연구팀을 구성,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포교방향 설정, 포교프로그램 개발, 실천과제 선정 등 수도권 포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근간으로 시범사찰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수도권 포교를 담당할 수도권포교위원회(가칭) 구성과 개발 프로그램 적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신년포교 전진대회 개최

조계종, 대전 스파텔서

조계종 포교원은 4~5일 대전 스파텔에서 신년포교전진대회를 갖고, 새해 포교의 원력을 다졌다.

대회는 조계종 산하의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국제포교사회 등 30여 개의 신도 · 포교 단체 임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교원의 올해 포교사업 기조와 종책에 대한 설명, 각 단체의 새해 사업계획, 단체장의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원은 올 한해를 '지역포교 활성화'의 해로 선포하고, 본말사 포교활성화를 위한 포교행정 구축, 신도교육 체계 확립, 신행종합정보망 구축, 국제포교기반 구축 등 7개 핵심 사업과제를 제시했다. 대전=김철우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환경수호에도 '화합대중'

59개 북한사찰 단청지원 합의

조계종·조불련 3월말까지 28곳, 나머진 내년에



◇조계종 사회부장(양산스님 오른쪽)과 조불련 황병준 부위원장이 북한 사찰 단청지원 합의서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이하 평불협)에 이어 조계종이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과 북한 단청불사 지원을 서면 합의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정련, 민추본)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21일 북경에서 조불련 황병준 부위원장과 남북불교회담을 갖고 "북측 지역에 소재한 59개의 사찰 144개동과 민족문화재의 단청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2003년 3월 말까지 1차로 28개 사찰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2004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단청 기술의 상호 교류와 전수를 위해서 시범사찰을 지정하여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이를 위해 조불련은 남측대표단(단청기술자)을 평양으로 초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서에는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과 조불련 황병준 부위원장이 두 단체의 위임자로 각각 서명했다.

조계종은 2월 10여명의 실사단이 방북하여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수립하고, 4월 시범 사찰 작업과 금강산에서 남북 학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및 단청관련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체 단위면적 123,715㎡에 투입될 안료 47,260㎏에 필요한 예산은 2003년 대북사업으로 책정된 2억원과 특별예산을 추가로 책정할 방침이다. 조계종은 이 외에도 을밀대나 대동문 등 사적지 단청 사업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평불협은 8일 지난 해 12월 2일 북한에서 조불련 박태화 위원장과 평불협 회장 법타스님이 서명한 합의서를 공개하고 "조계종이 합의한 것과는 별도로 단청불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할 수도 있다"고 말해 공동추진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에 대해 민추본 한 관계자는 "어떤 단체나 종단도 참여가 가능한 상태"라고 전제했으나 "창구 단일화를 위해선 조계종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사단 10여명 2월 방북, 일정 구체화

평불협 "필요땐 조계종과 협의" 공동추진

통일부 한 관계자는 "평불협이나 조계종 누구도 아직 승인요청을 해 오진 않아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자칫 진행 주체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에는 해방 후 400여개 사찰 있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현재 61개 사찰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불교생태학 총본산 만들겠다

인터뷰 홍기삼 신임 동국대학교 총장



9일 동국학원 제 189회 이사회에서 동국대 제15대 총장에 선임된 홍기삼 교수는 "조계종립대인 동국대가 치열한 대학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를 선도하고 불교학을 응용한 특성분야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유일의 불교생태학 총본산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3월초 동국대 15대총장 취임과 함께 학교의 모든 시계를 2006년 개교 100주년에 맞추겠다고 밝힌 홍 교수는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06년을 기대해도 좋다"는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총장 선임을 축하드린다.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학교규모가 방대해졌을 뿐 아니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종립대의 위상 그리고 교육과 연구가 본질인 대학의 고유기능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학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외형이나 규모보다는 학문적 특성을 살려 가겠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독창적인 학문특성화를 이룬 대학이 없다. 동국대가 불교종립대 특성을 살려 불교생태학(budecology)의 총본산을 표방하겠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태학은 철학적 기반을 공유를 하고 있다. 불교사상에 바탕을 둔 생태학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학자들을 육성하여 불교생태학이 세계로 진출 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불교생태학은 21세기 인류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미래학문이며, 젊은이들에게 큰 관심을 줄 것이다."

–동국의 미래 청사진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점에 서 있다. 개교 100주년이 되는 2006년에는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지녀온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연구, 조직, 편제, 비전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시점에 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화합의 마음을 모은다 해도 시간이 촉박하다. 낡은 틀을 벗어버리고 합리적 이성이 자연스럽게 소통되는 멋진 대학으로 태어날 것이다."

–학교의 산적한 미해결 과제 중 하나가 불교병원 개원문제인 것 같다.

"병원 개원 문제는 학교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비논리적, 비전문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적정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컨설팅을 받도록 하겠다. 또 그동안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됐고, 앞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철저하게 파악한 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원시기를 결정하겠다."

연구·조직·편제·비전 종합 재검토 시점

불교병원 개원 전문가 자문 후 최종 결정

–종립대에서 선학과 폐과 위기에 직면했다. 학부제에 대한 개선입장은?

"학부제는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비능률적 교육시스템이다. 대학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다.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라 하더라도 교육능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면 비교육적이다. 학부제 시행은 학과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일산의 제3캠퍼스 이전문제도 특정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 해당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결할 방침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약력 1940년 충북 청주에서 출생한 홍기삼(법명 다정(茶亭)) 교수는 젊은 시절 불교에 심취, 불교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국문과로 전과해 66년 졸업했다. 홍 교수는 한국문학이론의 토대를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91년 한국불교문학사연구회를 창립, 초대회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불교문학의 이해〉 〈불교문학과 선시〉 〈문학사의 기술과 이해〉 등 16권이 있다. 교수사회에 높은 신뢰를 쌓아온 홍 교수는 교내 인문계열 최우수 교수로 선정될 만큼 학문적 내공도 탄탄하다. 겸손한 성격에 논리적이며 합리적이라는 평이다.

"불교문화 더 빛나게 챙기겠다

모든 종교 똑같은 거리 유지 정책 펼 것"

노 당선자, 신년하례법회서 밝혀



◇노무현 당선자 내외는 불교계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선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노무현 당선자 발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8일 열린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민주당 불자의원 모임인 연등회의 신년하례법회에서 불교계 최대현안인 북한산관통도로, 불교문화, 종교정책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노 당선자는 북한산관통도로 문제에 대해 "지난번 조계종 스님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검토 약속을 했으나 당선된 뒤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 이 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합리적으로 일이 잘 되도록 꼭 챙기겠다"면서 "국토에 서린 민족정기, 환경, 불교 수행환경, 국민편의 등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고속철도 구간인 금정산·천성산 관통문제와 관련해서는 "선거 때 부산 금정산을 관통하는 고속철도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취임 전이어서 말하기 그렇고 차츰 챙기겠다.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앞으로 문화의 중심인 불교문화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훼손되지 않고 더욱 더 빛날 수 있도록 챙기겠다"며 "그렇게 하면 불교계도 좋아하고, 모든 국민이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종교관련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리를 두고 모든 종교를 존중할 것이며, 챙길 일이 있으면 다 함께 챙기겠다"며 종교계에 대해 각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불교계, 북한산 관통도로 대안노선 요구

서울외곽도로의 북한산 관통을 반대해 온 조계종 공동대책위와 환경·시민단체들은 일단 노 당선자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가 제시한 민족정기, 환경, 불교 수행환경, 국민편의 등 네 가지 원칙을 모두 충족시킬 대안은 없어 보인다. 따라서 대안 노선에 대한 합리적 제안과 대국민 설득 작업 등 불교계 전체의 노력이 계속돼야 할 시점이다.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 어떻게 되나

조계종 총무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대안노선 민·관합동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대안노선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현 노선의 백지화와 진행중인 공사의 전면중단도 거듭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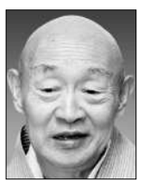
이와 관련,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대안노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 당선자의 현 노선 백지화 공약에 따른 조치다.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수경스님은 "노무현 당선자의 발언으로 대안노선 검토 가능성이 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노 당선자가 불교계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백지화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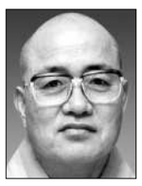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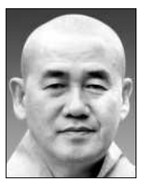
일주문



성도절 맞이 봉축대법회
이두 청주청원불교연합회 회장은 10일 오후 2시 청주시민회관에서 '성도절 맞이 봉축 대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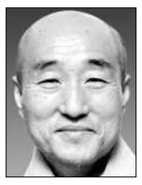
민추본 신년하례회
정련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은 15일 오후 5시 30분 서울 하림각 본관 2층 석실에서 신년하례회를 봉행한다.



중앙승가대 시무식 거행
종범 중앙승가대 총장은 2일 김포학사 세미나실에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시무식을 거행했다.



선학회 운영위원회 개최
법산 한국선학회 회장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동국대 교수회관에서 2003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광릉보육원에 성금 전달
일면 봉선사 주지는 16일 오전 9시 경기도 송추 광릉보육원을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다.



연합회 포교사 고시 실시
활안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회장은 12일 서울 풍문여고에서 제1회 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실시했다.



재소자 교화 법무장관 표창
대성 김해 은하사 주지는 지난해 12월 30일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교화의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어린이 불교수련회 개최
해련 장흥사 대원정사 주지는 9일부터 12일까지 대웅전 사경방에서 예불, 발우공양 등의 겨울 어린이 불교 수련회를 개최했다.



동학사 승가대학 동향제
일초 충남 동학사 승가대학 학장은 지난해 12월 28일 강당에서 서예, 다도 등의 제14회 동향제를 개최했다.



불자련 동지포덕금 전달
성덕 불교자원봉사연합회 회장은 17일 오후2시 서울 불자련 사무실에서 동지 포덕금 전달식을 갖는다.



불웃이웃 돕기 된장 판매
각우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이달 31까지 춘천 대각사에서 불우이웃 돕기 된장 판매 행사를 실시한다. (02)421-6077



제5회 디지털 동계 캠프
정은 디지털 청소년 열린 상담실 실장은 25일부터 27일까지 충북 혜능 보육원생들과 함께 제5회 디지털 동계캠프를 연다.



'선시와 화두' 출판기념회
우향 성남 천은정사 주지는 18일 오후 5시 30분 분당 뉴타운 관광호텔 4층 웨딩홀에서 〈선시와 화두〉 출판기념회를 봉행한다.



한국박물관협회, 신년교례회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회장은 13일 오후 3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박물관, 미술관 발전을 다짐하는 신년교례회를 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 임명
박부권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 · 문화 · 여성분과 위원으로 임명됐다.



'에세이 문학' 발행인 맡아
맹란자 수필가는 지난해 12월 14일 계간 <에세이 문학>의 발행인 겸 편집인에 임명됐다. (02) 747-3508



청년불자 집전대회 개최
정우식 조계사 청년회 회장은 14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집전능력 배양을 위한 제2회 청년불자 집전대회를 개최했다.

지역불교 일구는 사람들 ①

강건기 전북불교대학 학장

"올해를 전북불교 제2중흥기로 교내 수련관 건립 연내 마무리"



불교의 절대 약세 지역인 전라북도에서 최초의 불교교양대학을 설립, 부처님 말씀 알리기에 전념해온 전북불교대학교 강건기 학장. 계미년 새해를 맞아 강 학장은 "전북불교대학 창립 15년인 올해를 전북불교 제2의 중흥기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의 이런 자신감은 300여 전법사와 2천여 졸업생을 배출한, 호남 제일의 불교교양대학을 자부하는 전북불교대학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이다. 전북불교대 졸업생들은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전주경찰서, 전주전화국 직장불교 모임 등 전북지역 신행단체의 창립을 주도했고, 이를 지원해 왔다.

"그동안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는, 신심 있는 불자를 배출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지난 15년을 회고한 강 학장은 "수행 붐 조성을 위해 올해 내로 전북불교대학 수련관을 마련하는 일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수련관의 건립 목적은 불자들이 지식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데서 더 나아가, 수행을 통해 불교를 생활화하는 토대를 다지자는 것. 이를 위해 강 학장은 전북불교대학 졸업생 주축으로 꾸려진 전법사회, 경전독송회, 자원봉사회 등의 활성화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와이대학 교환교수로 활동한 강 학장은 "올해는 개인적으로 외부강의를 가급적 줄이고 내실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보조 지눌스님의 <수심결>에 이어, <진심직설>을 쉽게 풀이한 책을 발간하는 것도 계획 중이다. 이외에도 <근본불교>, <대승불교> 등 불교대학 강의 시리즈를 올초까지 발간하고 한국불교사상을 정리하는 저술작업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종단내 인권의식 확산 됐으면"

'박종철 열사 인권상' 제정 진관스님



"박종철 열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6년이 되는 해에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의미에서 인권상을 제정하는 원을 세우고 불교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추진하게 돼 한없이 기쁩니다."

'박종철 열사 인권상'을 제정한 진관스님은 늦은 감은 있지만 불교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고인의 아버지인 박정기 씨도 불자고 고인도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아버지의 외삼촌인 해월스님이 있던 부산 범어사를 자주 찾았지만, 불교계에서 인권상을 제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관련기사 5면>

"70년대는 전태일 열사의 시대였다면 80년대는 박종철 열사를 비롯한 학생 운동가들의 시대였습니다. 민주화의 상징인 박종철 열사 이름으로 상을 제정하자고 여러 차례 종단에 제의했으나 계속 거부당했습니다. 상 제정을 계기로 종단 내 인권의식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스님은 불교인권위가 상 제정의 주체로 나서지만 '박종철 열사 기념사업회'와도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철 열사가 학생 신분에서 희생당했으므로 상은 주로 학생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수여하고, 상금은 모금의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월 초파일 쯤 종단에도 지원을 요청할 뜻을 비쳤다.

"94년 종단 개혁이후 개혁을 표방하던 주체세력들이 사회운동에 등한시 하는 걸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이고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단 말입니까. 94년 종단 개혁 정신으로 사회운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남동우 기자

94년 종단개혁 정신으로 사회 참여를



법보신문 사장 각현스님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사진>이 7일자로 법보신문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각현 스님은 이날 "꿈과 희망을 전달하고 미래를 계도하는 신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신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임소감을 밝혔다.

신임 사장 각현 스님은 1968년 속리산 법주사에서 득도, 1974년 11월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1984년), 조계종 제9대, 11대 중앙종회의원, 청주불교방송 사장(1997년)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연꽃마을 이사장, 한국불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철우 기자



원주불교사암련 신년하례법회

원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원행)은 7일 원주시 원주웨딩타운 3층에서 '국민화합 · 조국통일 ·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기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김기열 원주시장, 사암연합회 신도 등이 참석한 법회에서 원행스님은 "2010년 동계올림픽을 평창에서 유치하는데 불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사 수말사 신년법회

금산사는 7일 전북불교회관 대웅전에서 2547년 금산사 수말사 신년 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금산사 주지 평상스님, 전북신도회 김백호 회장, 전주시 김완주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금산사 회주 월주스님은 "올 한해도 바른 원을 세우고 수행 정진, 전북 불교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자"는 법문을 했다.

박문석 차관 시집 '무우전' 펴내

'산문에 서면' '솔바람 속에서' 등 33편



박문석 문화관광부 차관<사진>이 시집을 발간해 화제다. 지난 2000년 계간 <오늘의 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박 차관은 그동안 틈틈이 써놓은 33편의 시를 <무우전>(도서출판 들꽃 펴냄)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냈다.

시집에는 '온갖 시름을 잊게 하는 집'(無憂殿)을 뜻하는 표제작을 비롯해, '산문에 서면' '솔바람 속에서' '해우소' 등 서정적이고 불교적 색채가 짙은 시편들이 실려 있다.

행정고시 16회 출신인 박 차관은 27년의 공직생활을 문화정책 분야에만 보낸 정통 문화행정맨으로, 문화정책국장 종무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차관에 올랐다. 이은자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복지분과 교정위원들의 교화활동 모습. 사진제공=불교여성개발원

사형수 살린 여성불자들

불교여성개발원 교정위원 5명 재소자와 결연

기도회향 며칠 뒤 김인제씨 무기감형

김씨 "영치금 150만원 교화에 써달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 5명과 결연을 맺고 교화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교여성개발원 복지분과의 황명숙(前 한양대 교수), 김필연(복지분과장),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윤숙옥 씨 등에게 최근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불자 사형수 5명이 '기도를 하다가 깨끗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며 1000일 기도 200일 회향을 마친 며칠 뒤인 12월 28일. 5명 중 한명인 김인재(법명 현월 · 39)씨의 감형 소식이 날아든 것이다.

서울구치소를 찾은 교정위원들과 김 씨는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배울 수 있음을 무엇보다 기뻐했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한 평생을 바치겠다고 서원했다. 더불어 김 씨는 9년 동안의 수형 기간동안 조금씩 모은 영치금 150만원을 교화활동에 써 달라며 내놓았다.

김천교도소에서 청소년 교화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이 서울구치소의 사형수 교화활동을 병행하게 된 것은 서울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과 25년 넘게 교화활동을 해 온 노병섭 거사의 권유 때문이다. 네 명의 교정위원들은 두 명씩 한 팀을 이뤄 매주 토요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함께 경전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수형자 가족들과도 만남을 이어나갔다. 한 수형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함께 49재를 지냈고, 가족이 입원하면 문병을 가고 어버이날이나 자녀의 생일에는 축하 카드를 보내기도 했다.

교화활동을 시작한지 2년째인 교정위원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수형자들의 출소 후의 생활이다. 연고가 없는 사람일 경우 쉽게 범죄에 빠져들거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정위원들은 "지역 사찰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새해 소망을 밝혔다.

(02)722-2101, 후원계좌:국민 059-01-0535-291(예금주 이인자)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박종철열사 인권상 제정

1월 셋째주 기념주간으로

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가 '박종철 열사 인권상'을 제정하고 조계사에서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불교인권위는 8일 '2003년 불교인권위원회 사업계획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발표하고, 1월 셋째 주를 '박종철 열사 주간'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매년 6월 10일에 개최된다. 또한 인권위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산하 국제 불교엠네스티 불교본부로 추진하고, 108명 청년재가자들의 모임인 불교인권청년회를 올해 안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4일 오전 11시 30분 조계사에서 열리는 '故 박종철 열사 16주기 추모제'는 박형규 목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한상범 교수(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애도사, 진관스님 추모시 낭독 순으로 봉행된다.

남동우 기자

보건복지부 배아복제연구 제한적 허용추진

인간복제 불교적 해명 시급

보건복지부가 복제연구문제에 대해 선별적 허용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불교계에서도 이와 관련한 교리적 연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김성호 복지부 장관은 9일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난치병 등 치료용 체세포 배아복제연구에 대해서는 연구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내달 중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체세포 복제에 대한 연구에 반대해왔던 기존 입장을 바꿔 배아복제 연구에 대한 명시적 금지에 반대해왔던 과학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수렴한 것으로,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생명윤리법안 제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당수 스님들과 불교학자들은 인간복제 및 배아복제 문제에 대한 교리적 연구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근거를 불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명우 기자

경주 남산 대대적 정비·보존

올부터 50년간 사유지 매입 · 발굴 사업

경북 경주시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등록된 경주 남산에 대해 대대적인 보존과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경주시는 올해부터 2052년까지 50년에 걸쳐 1천1백40억원을 투입해 경주 남산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발굴조사와 유적지 정비, 남산전시관 건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지난 85년 경주남산이 사적 제 311호로 지정됐으나 사유지가 많아 보존대책 수립이 어려워 17개 지구 1백17만9천 평방미터의 토지를 사들이고 28개 지구 39만여 평방미터를 발굴 조사할 계획이다. 또 폐탑과 폐사지, 유적지 등 2백 84곳을 정비하며 17 개 노선의 탐방로를 55.6㎞길이로 개설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장기계획으로 남산전시관 건립과 이정표 완비 등을 병행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생명·평화·환경 위한

범종교인 기도회

불교, 기독교 등 5개 종단 성직자들이 노무현 당선자를 축하하고 새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염원하는 '생명 · 평화 · 환경을 위한 범종교인 기도회'를 개최한다.

22일 오후 1시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대성당에서 열리는 기도회는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스님, 문규현 신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용화사측과 합의 없인 미륵산 케이블 강행 안해"

김동진 통영시장, 기자와 일문일답

김동진 통영시장이 적어도 용화사측과 합의 없이는 더 이상 공사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7일 조계종 총무원 방문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적어도 용화사측과 합의 없이는 더 이상 공사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사회부장 양산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양산스님은 "용화사와 통영환경운동연합측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총무원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화사 주지 선곡스님은 "시에서 공사를 강행한다면 실력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오후법회 시청 3배 증가

불교TV 시청률 조사

불교텔레비전(사장 이수덕)의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오후 2시의 시청률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률 조사 전문회사인 TNS 미디어 코리아가 지난해 12월 9일부터 2003년 1월 5까지 실시한 시청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편 후 전체 시청률은 최고 30%, 평균 15% 이상 증가했으며, 50대 이상의 남녀 시청자는 각각 50%와 15%이상 늘어났다.

또 월간 시청률은 부처님오신날이 있는 5월이, 시간대로는 낮 12시와 밤 10시가 가장 시청률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수령 기자



◇"반지의 제왕은 없나요?" 수색동 대림아파트에 사는 박진만(14) 군이 10일 은평구립도서관 이동도서관에서 빌려간 책을 반납하고 있다.

인덕원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위탁 은평구립 도서관 관내 순회 운행

"안방 도서관 시대를 연다."

은평구립도서관(복지법인 인덕원 위탁, 관장 성운)이 2일부터 새로운 '이동도서관'을 선보인다.

지난해부터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온 구립도서관은 2일부터 33인승 버스를 개조한 도서관 차량을 운영, 한결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가을 서울시청 조사에서 시민만족도 1위 도서관에 선정된 은평구립도서관은 그 포상금으로 받은 1억 2천만원을 이동도서관 차량 마련에 투자한 것이다. 구립도서관은 격주로 차량을 운행한다. 이용문의는 02-385-1671

강유신 기자

목탁소리

불교계 용비어천가

한 명 우 (취재1부 차장)

8일 서울 하림각에서는 노무현 당선자 내외와 20여 종단의 지도자급 스님, 재가 신도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기원 신년하례법회'가 열렸다. 이날 법회는 노무현 당선자가 대통령이 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민주당의 불자 의원 모임인 연등회가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법회는 이상한 분위기로 흘렀다. 정대스님은 인사말에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빌며, 모든 정성과 힘을 모아 실어드리는 불자들이 되자"고 말했다. 또 행사 사회를 보던 조계종 총무원의 한 국장스님은 노 당선자의 이름으로 '노력하는 대통령, 무소유의 철학을 실천하는 대통령, 현명한 대통령'이라는 즉석 삼행시를 지어 낭독했고 참석자들은 연이어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다.

행사장 분위기는 마치 민주당 전당대회장에 온 듯한 착각이 들게 할 정도였다. 조선 세종 때 정인지 등이 조선왕조의 창업을 찬양하기 위해 지었다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가 따로 없었다.

<정법염처경>에 "수행에 방해가 되므로 권력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경책이 있다. 굳이 오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면 "왕에게 수행자의 처소를 찾아 예경하고 법을 구하게 하라"는 <불소행찬>의 가르침대로 하면 된다.

종교와 정치는 마땅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시대 흐름상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하더라도 그 방법은 정치를 가까이 할 것이 아니라, 종교의 이념을 통해 정치를 순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불교계 지도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권력자 앞일수록 당당해야 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다. 그렇게 할 때 '인천사(人天師)'가 될 수 있다.

각 종단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특성화 교육 체계적·특전 부여

학교	학과	모집정원	원서교부 및 접수	연락처
동방불교대	불교학과	정규 · 통신반 각 50명	교학처, 총무원,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 경서원	(02)763-0229 (02)745-2030~2
	범패과	30명		
	불교미술과	30명		
금강불교대	불교학과	서울 · 부산 각 120명	교무과, 종단 사찰	(02)570-6401~2 (051)808-0730
	교법사과정	서울 · 부산 각 50명		
일붕승가대	불교학과	제한 없음	총무원	(02)394-9468

동방불교대학 2년제 3개과 110·통신반 50명
금강불교대학 불교학과 초중급·교법사 과정
일붕승가대학 2년과정 불교의식 등 4개 교과

태고종, 천태종 등 주요 종단들이 종립 불교대학 200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학장 정태혁)은 불교학과 50명, 범패과 30명, 불교미술과 30명 등 2년제 대학과정 3개과와 불교학과 통신생 50명 등 2003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다. 정규대학 졸업자와 불교교양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불교학과 2학년 편입생도 모집한다. 동방불교대 교학처, 총무원, 전국 시도교구종무원에서 원서 교부와 접수를 받으며, 마감은 2월 17일까지다. 전형은 필기시험과 면접, 실기시험(불교미술과) 등으로 2월 22~23일 동방불교대학 강의실과 실기실에서 치뤄진다.

천태종립 금강불교대학(학장 이재창)도 200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1년 과정의 불교학과 초 · 중급과정 240명과 교법사 과정 100명 등이며, 불교학과 초 · 중급과정을 거쳐 교법사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원서는 2월 7일까지 서울과 부산 금강불교대 교무과에서 접수한다. 수업료는 종단에서 지원하며, 수료후 교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이 운영하는 일붕승가대학(학장 동명)도 제1기 불교학과 통신반 과정의 신입생 모집을 공고했다. 스님뿐만 아니라 신도회 간부, 법사 지망자, 출가 희망자 등 사부대중에게 열린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붕승가대학은 2년과정으로 불교교리, 발심자경문, 치문, 불교의식 등의 교과로 이뤄져 있다. 졸업자는 일붕선교종 사찰 법사로 활동할 수 있다. 접수는 2월말까지.

종립 불교교양대학들은 일반 교양대학과 달리 각 종단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뿐 아니라 저명한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어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종단에서 부여하는 각종 특전도 장점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서봉스님


◇만춘스님


◇송정스님


◇영인스님


◇혜심스님

원로원장 서봉, 종회의장 만춘스님

대승종, 감찰 송정 · 교무 영인 · 사회부장 혜심스님

대승종 중앙종회는 7일 서울 흥도사에서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원로원장에 서봉스님(광주 아도정사 주지)을, 중앙종회 의장에 만춘스님(광주 백련암 주지)을 선출했다. 또 4월중 비구 비구니 수계산림, 8월 종도 승려연수 및 수련회 등 신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대승종 총무원(총무원장 일오)도 같은날 종정 도암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일오스님 등 간부 및 중진스님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임직자 임명 및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감찰부장과 교무부장에 송정스님(안양 만장사)과 영인스님(성남 성보사)을, 사회부장에 혜심스님(서울 안정사)을 임명했다.

박봉영 기자

새해 대서원 불공올려
진각·총지·진언종

밀교종단인 진각종과 총지종, 진언종은 6일부터 12일까지 1주일간의 새해 대서원 불공을 올렸다. 이에 따라 이들 종단의 종무기관 및 각 교구청 등의 종무행정 업무는 사실상 새해 대서원불공이 끝나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진각종과 총지종, 진언종의 새해 불공은 전체 진언행자가 1자성(주간) 동안 일념으로 정진하는 전통적인 불공이다.

수륙대재 · 연수교육 등 추진

원융종 올 사업계획 확정

원융종 중앙종의회(종회의장 성관)는 6일 서울 총무원 사무실에서 정기중앙종의회를 열고 종단수륙대재, 종도 연수교육, 보살계 법회 등 2003년 사업계획과 12억 4천여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원융종은 종정 일공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법륜스님 등 종단간부와 중진스님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새로 선출된 전남종무원장 진운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종정 일공스님은 "종단과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종도들의 원력을 모아 나갈 것"을 당부했다.


◇원융종은 6일 총무원에서 정기중앙종의회를 열고 새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게 시 판

구인

▲제천장애인복지관은 물리치료사를 구하고 있다. 접수마감은 충원시까지. (043)652-0904

▲상주 남장사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사찰 기사 등 2명을 모집하고 있다. 접수마감은 충원시까지. (054)534-6331

▲강릉시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복지관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마감은 18일. 문의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02)723-5101

▲연꽃마을 용인요양원은 1종 운전면허 소지자중 생활지도원(남) 2명을 구하고 있다. (031)334-3677

▲원주 소쩍새마을에서는 생활재활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충원시까지. (033)761-9870

▲의정부 은행나무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 2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선생님 2명을 모집한다. 마감은 충원시까지. (031)843-5454

모집

▲서울 성북노인복지관은 입욕 · 안내 · 물리치료 · 식사 및 밑반찬 배달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929-7950

▲천태종은 전국 각 말사 유치원 원아를 모집한다. △부산 광명사유치원 400명 △마산 유성유치원 180명 △대구 동해유치원 390명 △춘천 삼운사유치원 170명 △횡성 광제사유치원 80명 △단양 광법사유치원 80명 △안동 해동사유치원 210명 △창원 유성유치원 190명 △원주 성무유치원 180명 △영월 삼태사유치원 95명 △울산 정광사유치원 230명 △진주 월경사유치원 180명 △김천 금강사유치원175명 △홍천 강릉사유치원 90명 △통영 서광사유치원 210명 △밀양 삼양사유치원 130명 △대전 삼문사유치원 150명 등이다. www.chentae.org

▲동산불교대학은 31일까지 2년 과정의 제 22기 동산불교대학생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불교학과, 불교미술학과, 우리춤학과, 한문학과. (02)732-1206

알림

▲서울 성북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노인보조용품을 무료대여한다. (02)929-7650

강좌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16일 오전 11시 중 · 고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원조교제가 왜 나쁜 줄 아니' 강좌를 연다. (02)2282-1100

주소변경

▲진각종 방등심인당 춘천시 효자1동 680-3번지로 주소를 변경했다. 문의:(02)913-1751

종단소식

조계종

신도교육 포스터 배포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신도등록 · 교육 · 신행활동에 대한 포스터 3종을 제작, 전국 사찰 및 포교 · 신도단체, 군법당, 전문교육기관 등에 배포한다. 신도교육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제작된 이 포스터는 올해 목표로 선정한 '지역포교 활성화 및 본 · 말사 포교행정 정착의 해'의 핵심사업 홍보를 위해 제작했다. 또 신도등록과 관련, 등록현황 및 교무금 납부 현황을 매월 공개할 예정이다.

천태종

대충대종사 다례재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7일 단양 구인사에서 대충대종사 78주년 탄신다례재를 봉행했다. 대충대종사는 74년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추대된 이후 열반한 93년까지 20년동안 종단의 정신적 지주로 추앙받아왔다.

진각종

탐라국 문화탐방 행사

비로자나청소년협회(회장 혜명)는 13일부터 15일까지 탐라국 문화탐방 행사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백두대간과 동해안지역을 순례한 데 이어 세 번째다. 탐라국 문화탐방은 산굼부리, 천지연 폭포, 성산일출봉 등 명소를 돌아보는 문화 탐방과 서바이벌게임, 국궁, 산악 자전거훈련 등 체험활동으로 진행된다.

(재)일붕선교종

시무식·신년하례법회 봉행



재단법인 일붕선교종은 7일 인천 동함사에서 2003년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무찰스님을 비롯 총무원 간부, 지방 교구종무원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종정 무찰스님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종도 화합과 종단발전을 위해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승종

사미7 사미니12명 배출

대한불교대승종(총무원장 일오)은 4~7일 안양 총무원에서 사미 · 사미니 수계산림을 열고 사미 7 · 사미니 12명 등 총 19명을 배출했다. 종단 입종후 1년 이내의 승려를 대상으로 한 이번 수계산림은 사미율의와 대승교범, 기본의식 등으로 진행됐다. 전계아사리 일오스님(총무원장)은 "세속의 탐진치 삼독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청정히 하여 중생제도와 전법도생의 책임을 다하는 수행자로 거듭나라"고 말했다.

조동종

종도화합·종단개혁 발원



대한불교조동종(총무원장 심월)은 6일 서울 총무원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지명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심월 · 문도회장 범해 · 포교원장 법공 · 감찰원장 정림 스님 등 종단 간부와 중진스님 40여명이 참석했다. 종정 지명스님은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종단 개혁을 이루고 청명한 종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종도들이 마음을 모아 나갈 것"을 당부했다.

미륵종

중앙종회의장 연봉스님



한국불교미륵종 중앙종회는 7일 정기중앙종회를 열고 연봉스님(청송 천장사)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또 창종 기념행사, 일본 현해탄 수륙대재 등 사업계획과 1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신임 종회의장 연봉스님은 "아직 종단의 힘은 미약하지만, 종도들의 화합과 협력을 통해 종단의 면모를 일신하고 한국불교 발전을 이끌어 내자"고 강조했다.

2003년 달력 주문 받습니다
미리 주문하세요! 불교사진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달력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32종)
마하몰 02)732-1520
http://www.mahamall.co.kr

불교계에 일간이 없다고?
buddhanews.com을 클릭하세요.



◇참가자들은 명상을 통해 의식하지 못했던 많은 생각들이 생겼다 사라짐을 느꼈다.



◇우곡심성개발원 주최로 7~9일 부산 우곡선원에서 열린 교사 심성개발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선기공 수련을 하며 몸과 마음을 풀고있다.



◇숲길을 걸으면서 연수에서 느낀 체험들을 나누고 있는 참가자들.

우곡선원, 초·중·고 교사 '심성개발' 연수

"3일 닦은 마음 백년대계 밑거름"

강의·명상·선기공·발우공양 등 다양

참석자들 "체험, 교육현장 적용할 것"

"34년 동안 교직 생활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연수는 처음입니다."

"심성개발이라는 특별한 내용의 강의와 명상 실습으로 마음까지 확 열리는 기분이네요."

7일부터 9일까지 부산 해운대 우곡선원(원장 장명화)에서 열린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인 특수분야 심성개발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선기공 수련으로 후끈 달아오른 열기를 식히며 한껏 고양된 반응을 보였다. "방학 때면 의례적으로 참여해온 연수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게 참석 교사들의 한결같은 얘기였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연수일까?

연수 이틀째인 8일, 첫날의 연수에 참석했던 45명의 교사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해운대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오션타워 19층의 우곡선원 법당에 모였다. 첫째 날 참석자는 초등교사 20명, 중등교사 19명, 고등교사 6명에다 청강생 5명까지 50명. 둘째 날까지 한명의 이탈자도 없다. '피안의 세계로 초대'라는 주제로 열린 우곡선원의 심성개발 프로그램의 성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부산교육청으로부터 2002년 특수 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 받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불교를 근간으로 하는 실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힘써온 우곡선원의 성과물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 선기공 수련, 발우공양, 명상, 수련 체험사례 발표, 토론 등으로 빼곡하게 채워진 강의 일정에 교사들은 변함없는 열의를 보이며 참여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모습은 온데 간데 없고 배우는 학생의 입장으로 돌아가 진지하게 강의를 들었고, 선기공 동작을 배울 때는 마음을 따라주지 않는 몸과 씨름하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그렇게 연수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교사들은 심성 개발의 가능성과 의미를 조금씩 알아나가기 시작했다.

"첫날 선기공 수련, 호흡 등을 해보고 참신기했어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호흡이 느껴지고 명상을 할 때는 내 안에서 생겼다 사라지는 숱한 생각들에 스스로 놀랐어요." 강연희(41 · 부산 연일중 과학 담당)교사는 마음과 정신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듣고 수련을 하면서 자신이 모르는 세계가 많으며 스스로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다고 털어놨다.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한 여교사는 "불교에 관심이 있어 동료교사들과 불교공부를 같이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음을 살피고 몸의 상태를 관찰하는 경험은 처음"이라며 "단기간에 많은 것을 배운 값진 연수"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교사들의 반응을 지켜보던 우곡선원 관계자는 "처음 부산교육청에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으로 심성개발을 신청할 때만 해도 불교적 내용을 어떻게 일반화시켜서 교사들에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는데 선생님들의 반응이 좋아 선원에서도 놀랄 정도"라고 말했다. 첫날 연수를 마친 교사들의 호응과 둘째 날, 셋째 날 보여준 100% 출석률은 우곡선원의 우려를 일순간에 씻어버렸다. 종교적인 색채를 피하기 위해 불상을 가린 채 진행된 연수 프로그램은 기독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를 가진 교사들을 모두 만족시키며 종교를 넘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성찰하게 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우곡심성개발원은 불교적 내용을 포함하면서도 종교적 교의를 강요하지 않아야 하는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특성상 명상, 호흡, 선기공 등의 실습과 함께 명상이나 선기공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학문적 토대를 제시하는 강의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성낙헌, 이각범, 홍석교, 송운석, 이홍규, 이재규 등 국내 유수 대학의 교수이자 기업체의 대표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강사진들에 의해 전달된 정신세계의 무한한 가능성과 학생들의 심성을 일깨워주는 교수법 등을 들려준 강의는 교사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다.

연수 셋째 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내고 현 재단법인 IT 전략연구원 원장인 이각범 교수는 <명상수련> <제3의 길> <인류를 구원하는 지혜, 선> 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선이 내포하는 순기능을 체득하고 구현하는 것을 새로운 전인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단순하고 명쾌한 선적 사유체제는 물질만능 풍조에 시달려온 현대인과 학생들에게 이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며 선(禪)문화는 인간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되찾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교사들의 선적 체험은 곧바로 학생들의 전인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포항에서 참가한 이상후(57 · 포항 영일고 국어담당) 교사는 "내가 고요해야 아이들을 고요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교사 스스로가 선을 통한 내면의 고요를 터득한다면 붕괴되고 있는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변화가 곧 학교 수업과 아이들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통된 전망을 참석 교사들은 내놓았다. 우곡선원에서 공부하던 중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제안했던 조미자(51 · 다송초등) 교사는 "수행을 통해 고요한 마음의 통찰력을 얻은 후 교실에서 아이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한 교사 스스로의 변화가 아이들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진정한 교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수련 체험 사례를 통해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번 연수 참가의 실효성에 대해 구자현(52 · 부산 신곡중 교감) 교사는 "방학이 끝나면 아이들에게 심성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선기공이나 명상 수련에 관심 있는 아이들을 모아 전일제 특별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천주교 신자인 구교감은 선기공이나 명상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고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 중압감을 없앨 수 있어 심신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이번 경험을 교육현장에 적용시킬 방안을 찾고 있었다.

앞으로 우곡선원과 우곡심성개발원은 교원 직무연수 프로그램 성공을 출발로 심성개발 프로그램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공무원 연수원과 연계한 공무원 연수교육과 일반 직장인, 학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설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간이 너무 짧아 아쉬움이 많았다고 입을 모은 교사들은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심성개발의 가능성을 스스로 체험해보고 아이들과 마음으로 교류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금 더 편안해지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45명의 교사들. 3일 닦은 마음 천년의 보배(三日修心千載寶)라는 말처럼 이들은 3일간의 연수를 마치며 일체의 고정관념을 텅 비워낸 자리에 아이들을 환하게 비출 맑은 거울 하나씩을 마음에 간직하고 개학을 기다리고 있다. 올겨울 방학 백년대계의 밑거름을 든든히 쌓았기 때문이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교직 34년중 이런 연수는 처음"

김희 다송초등학교 교감

"34년의 교직생활 중 이렇게 특별한 연수는 처음입니다."

김희(55 · 사진) 다송초등학교 교감은 같은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딱 하루만 참석해보자는 마음으로 참석한 우곡심성개발원의 심성개발 프로그램에 홀딱 반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버스 두 번을 갈아타고 1시간 30분을 와야 하는 거리도 마다 않고 3일 동안 연수에 참석하는 열성을 보였다.

"영어, 컴퓨터 등 지식적인 내용 전달의 연수만 받다가, 내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나를 개발하는 심성개발 프로그램에 참가했다는 것 자체가 참신하고 좋아요."

천주교 신자인 김 교감은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불교가 갖고 있는 우수한 심성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을 비워내는 참선과 선기공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고마워했다. "보다 많은 교사들이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김 교감은 "학교에 돌아가면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외국스님 잦은 방한…좋다고만 할 것인가

가까이 하기엔 한국 큰스님 너무 먼곳에

한문투 법문 대중이해 힘들어

이대로 가면 서구 불교 역수입 더욱 늘듯

“출판 상업주의에 장단” 지적도

외국 스님들의 한국행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미얀마 고승 우 빤디다 스님이 보리수선원의 초청으로 방한했고, 10월에는 달라이라마의 왕사(王師) 링 린포체 스님이 방한해 해인사에서 법문했다. 또 올 3월에는 ‘화’로 유명한 틱낫한 스님이 명진출판사 초청으로 방한할 예정이고, 오래 전부터 방한을 두고 세인이 관심을 모았던 달라이 라마 스님도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외국 스님들의 방한이 잦아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대해 불교계 한 관계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외국 스님들의 방한은 하나의 이벤트적인 성격이 짙다”고 말한다. 현재 불교관련 서적이 대형 서점에서 판매부수 1, 2위를 점하고 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다. 틱낫한 스님의 경우에 한정한다면 출판 홍보 차원에서 방한이 이루어진 측면이 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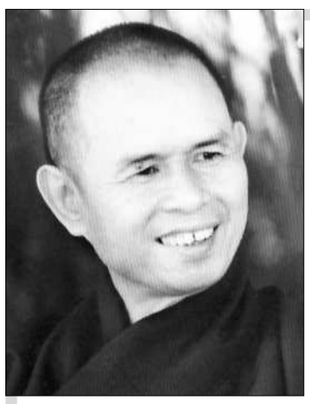
이와는 달리 현재 한국불교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을 외국 스님들이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신적 공황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한국불교의 문제를 ‘환기’시키는 것이 외국 스님들의 방한이다.

우선 한국불교의 ‘퇴행적 세계화’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속에 한국불교를 선양하는 노력들은 갈수록 개별화되고, 일방적 또는 수동적 받아들이기만 활발해진다. 한국불교의 외연 확장은커녕 내연의 왜소화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한국불교에 대해 직설적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그 많은 ‘큰스님’들은 다 어디에 계실까?

해외 고승 초청 어떻게 볼 것인가

3월로 예정된 틱낫한 스님의 방한이 알려지자 다양한 매체들이 경쟁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주요 일간지들은 1개 면 이상을 할애해 스님의 이야기나 스님이 있는 ‘플럼 빌리지(Plumvillage)’를 조명하고 있다. 공중파 방송에서도 스님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고, 기업체나 광고계에서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한다.

스님의 방한에 대해 불교계 관계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유는 한국불교에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열 법사는 “위빠사나 중심의 남방불교가 무조건 옳아서 불자들이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중을 움직이는 감성적 문체로 초보적 명상을 제시하더라도 그것의 현실적 효용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는 3월에 방한 예정, 틱낫한 스님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출신으로 베트남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불교평화대표단 의장으로 파리 평화회의를 이끌면서 보여줬던 반전 의지 때문에귀국이 금지됐다. 시인이자 평화운동가인 스님은 현재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에서 ‘플럼 빌리지’라는 명상 공동체를 이끌고 있다. 플럼 빌리지는 ‘자두마을’이란 뜻으로 ‘흙과 사람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곳’을 표방하며,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이들이 종교 간의 벽을 허물고 각자의 신념에 따라 수행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졌다.

한국엔 틱낫한 스님 같은 분 없는가

외국 스님들의 방한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내손의 떡보다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심리가 이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불교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법랍도 별로 안 된 ‘눈 푸르고 잘생긴 스님’이 일반 언론에서 집중 조명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봐야 한다”며 “최근 외국 스님들의 방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불교의 주체성을 망각한 채 서양에서 역수입한 불교를 우위에 서게 하는 풍토도 이 기회에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틱낫한 스님의 두 번째 방한 소식이 알려지자 스님과 한국불교에 대한 자기성찰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즉 한국에는 소위 말하는 ‘법력 높은 고승’이 없는가란 질문이 튀어나오고 있는 것이다.

틱낫한 스님을 만난 적이 있다는 이제열 법사는 “스님이 수행의 깊이가 심오하거나 깨달음의 경지가 뛰어나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의 법정스님처럼 저술활동이 뛰어난 스님일 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승보다 틱낫한 스님 같은 분들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한국 스님들이 불자나 일반 국민과 거리가 멀고, 한문투성이의 법문 등이 현대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네 큰스님들은 산속 깊은 곳에서 일반 대중들과의 만남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 번 찾아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찾아가더라도 얼굴 한번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렇게 ‘거리가 먼 큰스님’들은 사월 초파일 등 행사 때만 알아듣기 어려운 법문을 내린다. 한글로 적어도 이해하기 힘든 말을 중국 언어로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 뜰 앞의 잣나무)’를 얘기한다.

한국불교 수행풍토 무엇이 문제인가?

외국 스님들의 방한 문제는 간화선 우위의 수행 풍토와도 직결된다. 즉 간화선만을 최상의 수행으로 여기는 풍토가 ‘간화선’의 고유한 가치마저 퇴색시키면서 온갖 수행 방편의 난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간화선 중심의 한국불교는 너무 고급스러워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초훈련조차 안 된 사람에게 무거운 화두를 던져놓는 건 아기에게 거친 음식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순서와 체계에 맞는 수행방편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깨달음의 경지만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불친절하기 짝이 없는 것이 오늘의 ‘간화선’이라는 말이다.

봉화 각화사 선원장 고우스님은 “부처님 당시 위빠사나와 사마타(samata, 止) 두 가지 수행방법이 있었는데, 육조스님의 제자 영가스님이 이 두 가지를 한역하면서 ‘성성적적(惺惺寂寂, 말끔하고 산란한 생각이 나지 않음)’과 ‘적적정성(寂寂惺惺)’으로 표기했다”며 “위빠사나나 사마타를 수행해도 결국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두를 드는 것이나 염불하는 것, 무주상보시를 하는 것도 부처가 될 수 있는 방편들”라며 간화선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근기에 맞는 수행방편을 대중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불교가 일반 대중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판상업주의에 대한 우려

틱낫한 스님의 방한은 명진출판사의 출판물 홍보 차원에서의 기획이다. 이런 기획 때문에 행사가 출판상업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명진출판사 한 상만 상무는 “3억 이상 예상되는 경비 지출을 감수하고서라도 방한을 추진하는 것은 스님의 평화사상을 핵문제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 널리 펼치기 위한 것”이라는 말로 답했다.

그러나 틱낫한 스님 방한과 관련해 여러 기업체들에게 협찬을 받고 방한 중 팬 싸인회도 계획 중인 것으로 볼 때 상업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객관적 입장의 불교관계자들은 “출판사도 기업이니 만큼 이윤 추구는 당연한 것” 이라며 “이런 행사가 자본의 속성에 휘둘리지 않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이라고 말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NGO 활동가가 쓰는 **현장칼럼**



황영숙 재가복지팀장
서울시립은평노인복지관

복지사의 겨울 하루

어르신 기척없으면 ‘철렁’…혹시?

“기름값 무서워서” 언손에 도시락

“박인수(가명 · 88) 어르신, 복지관에서 도시락 가져 왔어요!” 얼기설기 엮은 판자문을 두들긴다. 어르신의 기척이 없으면 이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밤새 안녕이라는데, 혹시….

“으~ 응, 가만 있어봐, 이 놈의 몸뚱이가 말을 잘 듣질 않아서” 뒤척이는 소리에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문을 들어선다.

“어르신, 도시락 가져 왔어요, 괜찮으시죠?” 이부자리가 한 평 남짓 방 전체를 덮고 있지만 방안은 냉기가 감돈다.

“올 겨울 들어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이래요.”

“그러게 말이야, 기름값 무서워 맘껏 틀어보지도 못했는데, 보일러가 터졌대, 추워서 밤새 한숨도 못 잤어. 여러 사람 귀찮게 하지 말고 어서 눈감아야 할 텐데…, 매일 받기만 해서 어떡하지? 고맙구먼”

또 눈물을 글썽이며 꽁꽁 언 손으로 도시락을 받아 드시는 어르신의 모습은 재가복지팀 업무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모습이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 가진 것 없는 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기름 난방비, 추운 날씨 속에 조금씩 지쳐가는 어르신의 건강상태, 겨울나기가 왜 이리도 힘든지.

박인수 어르신은 매월 27만 원가량의 정부생활보조금으로 생활을 한다.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10만원의 단칸방. 그곳에서 젊은 나이에 아내와 사별을 하고 자녀들도 병사하여 반평생을 혼자 살고 있다. 그나마 몇 년 전까지는 폐지도 줍고, 행상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지만 이젠 거동마저 불편하여 하루 종일 홀로 집안에 있는다.

노인종합복지관 재가복지팀이 만나는 사람들은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호수급자와 저소득 어르신들이다. 이분들을 찾아 가정방문을 하고, 이 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여 문제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흔히 사각에 놓여있는 사회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보듬어 주려는 작은 바람을 가슴에 담고서 이 분들을 찾아본다.

아침9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시락 80개를 포장하여 10시부터 관내 20개동에 거주하는 박00어르신을 비롯한 80가구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사무실에 들어오면, 다양한 메모들이 책상위에 놓여있다.

진관외동 안00 어르신 천식은 가라앉았으나 수도계량기가 터졌다고 함, 역촌동 이00 어르신 댁 보일러 고장, 지00 어르신 씹기가 어려워 무료틀니 진료 예약 원함, 정00 어르신 빨래수거 요청, 도시락과 함께 전달한 연하장을 받으시고 감사함을 전하신 서00 어르신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오후업무가 시작된다. 먼저 동사무소 사회담당 선생님께 도움을 부탁하는 통화, 어르신의 내방을 통한 만남 그리고 가정방문 상담 등….

늦은 오후에 최분례(79) 어르신이 밝은 얼굴로 찾아 오셨다. 얼마 전 수술을 요하는 진단을 받아 병원연계를 통해 무료수술날짜를 잡았지만, 자부담 비용이 10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무척 상심했던 최 어르신. 후원결연을 통한 긴급의료비 지원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거동이 가능해졌다며, 고마움을 표현하려고 온 것이었다.

이 추운 겨울. 우리들의 어르신들은 지금 어디서 시간을 보내시는지…. 최분례 할머니 같은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갖는 것이 너무 큰 욕심일까? 당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분들의 모습은 내가 사회복지사로서 걸어가야 할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



새마을호 타고 법문 들으며 성지순례

철불협 초파일 전후 봉축열차 추진

객차내부 장엄·각종 법회봉행시설 제공

11~18일 4지역서 '…노숙자를 싣고' 행사

◇철도청불교단체협이 올 봉축기간 동안 패키지 형태의 봉축열차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2001년 서울 지하철 5호선 봉축열차에서 시연된 선무도 동작.

'기차에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성지순례를 떠난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의장 이용일 · 철도청 차량본부장, 이하 철불협)는 신년 사업계획으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간 전후로 '패키지' 상품 형태의 봉축열차운행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봉축열차의 운행은 일반 사찰이나 여행사가 철도청에 열차 사용신청을 하고, 철도청은 이용고객 수 등을 고려해 전세 형식으로 열차를 대여하는 일종의 '패키지 여행상품'이다. 또 필요에 따라 객차 내부는 연꽃 등의 장엄물이 설치되며, 이동 중 객차에서 법회봉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철불협은 우선 영상 장비가 완비되어 있는 새마을호를 활용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철도청차량사무소에 협조 요청을 했다.

철불협은 이 같은 계획을 지난 4~5일 대전 스파텔에서 열린 조계종 포교원 주최 '신년포교전진대회'에서 포교원장 도영 스님에게 제의했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계종 포교원도 지원 방식 등 세부 사안에 대해, 철불협과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칠 방침이다.

철불협은 이와는 별도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철마는 자비를 싣고, 노숙인과 함께' 행사를 11일부터 18일까지 잇따라 펼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1,400여 철불협 회원들이 자비의 실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5백여만원 상당의 내의와 양말을 노숙자들에게 전달한다.

철불협 박창식 실무운영위원장은 "봉축열차 운행은 일반사찰, 불교단체 등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는 만큼, 다양한 홍보 방식을 동원 불교계의 호응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며 "직장 · 직능 불자회에서 주요 신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성지순례가 이번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전국조직체로 확대 개편

세무사불자회 조직, 수도·대구경북권 등 5개권역 으로

세무상담창구 불자회 홈페이지로 일원화

세무사불자회가 미창립 지역의 세무사 불자회 창립을 지원하고, 전국을 순회하는 세무 상담 활동을 펼치는 등 전국 단위의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조세 관련 직종 직장불교회와 연계해 합동법회, 성지순례 등도 분기별로 실시할 계획이다.

세무사불자회(회장 이선희)는 10일 서울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갖고 이 같은 새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개편과 회원확보에 나섰다.

세무사불자회는 우선, 서울을 거점으로 한 수도권 중심의 기존 조직을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 광주 호남권, 대전 충청권 등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교사 자격을 갖춘 세무사를 중심으로 전국 순회 세무 상담 활동 전개하고,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돼 온 세무 상담 창구를 불자회 홈페이지(www.buddhatax.com)로 일원화해 상담 효과를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또 신규회원 확보를 위해 <세무사회보>, 불교계신문 등에 회원모집 광고를 게재하는 등 지역 단위 세무사 불자회 창립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수도권 지역 130여 회원을 갖고 있는 세무사불자회는 지역의 불자 세무사 수를 대략 400여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대구 경북권의 경우는 이르면 다음달 말경에 불자회가 창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세관련 동일 직종 불자회와의 연대도 강화한다. 지난해 8월 국세청 불자회 보리회와 첫 합동법회를 봉행해 조세업계 불자회간 교류의 물꼬를 튼 세무사불자회는 올해부터 성지순례, 수련회 등도 공동개최하고, 이를 정례화 해나갈 계획이다.

세무사불자회 이선희 회장은 "명실공히 전국 단위의 전문직 불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봉사 활동은 물론, 신규회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기자

영호남 산악인 불자들 탑사서 합동법회·시산제

영 · 호남 산악인 불자들이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화합을 다지는 합동산행을 가졌다.

광주불교산악회(회장 오길수)와 부산불교산악회(회장 강갑균), 대구영남불교대학산악회(회장 김치구)는 12일 전북 진안 마이산 탑사를 찾아 합동법회와 시산재(始山祭)를 봉행했다. 300여 영·호남 불자 산악인들은 이날 합동법회에서 화해의 악수, 화합의 포옹을 나누며,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광주불교산악회 정대석 홍보부장은 "앞으로 정기 합동산행을 통해 영 · 호남 불자들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단체장



모범공직자 대통령상 수상

김은혜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정부로부터 모범공직자로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2일 신년하례법회 봉행

김활선 대한불자가수회 회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 불교방송국 3층 법당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종실스님 초청 정기법회

김종완 대전불교언론인회 회장은 28일 오후 7시 대전 백제불교회관에서 연화사 주지 종실 스님 초청,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성북사암련 · 성북서와 법회

정후시 서울 성북구청 법륜회 회장은 24일 오후 4시 구청 5층 강당에서 성북사암연합회, 성북경찰서 불교회와 합동신년법회를 봉행한다.

우리 모임에선

전국교사불자련, 동계수련대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임완숙)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 합천 해인사에서 동계수련대회를 갖는다. 회원 2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예불 · 참선 및 문화유적순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31)764-2115

과천청사 5개 불자회 성도절 철야정진

과천 정부종합청사 5개 불자회는 9일 과천 보광사에서 성도재일 철야정진 법회를 열었다. 건설교통부 불자회(회장 송도근)가 주관하여 열린 이날 법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농림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5개 정부부처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불자회는요

전국경찰불교회

'나누어 보태는 생활 하세! I LOVE POLICE.' 2천여 전국경찰불교회 경찰보살들이 내건 올해의 봉사활동 표어입니다. 참다운 보살행을 실천하는 경찰상 확립을 위한 우리 불자회의 의지를 담은 겁니다.

창립은 80년대 자생적으로 결성된 치안본부의 '연꽃모임'에서 비롯됩니다. 이후 87년 발족한 대한불교경승단은 산발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던 경찰불교회를 전국 단위로 묶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작고 소담하기만 했던 경찰불자들의 불심은 드디어 2001년 4월 창립된 '전국경찰불교회'로 활짝 꽃피우게 됐습니다.

전국경찰불교회의 창립은 기존 경찰관서의 불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장 없이 공회전을 거듭하던 경찰청 불교회에 회장이 선출되고, 자체적인 불교입문 강좌도 개설되는 등 전국 경찰 식구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남을 시발점으로 충남, 강원 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산하 12개 경찰서 및 서울 종로, 용산, 충남 천안, 인천 강화 등 19개 경찰서,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등 현재는 13개 지부와 57개 지회를 갖춘 전국단위 불교 직장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적잖은 곤란도 있었습니다.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는 업무의 특수성, 잦은 인사이동으로 불자회 활동 중단, 주먹구구식의 불교입문, 지도법사의 부족 등은 경찰 불자들이 법음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회 회원들은 막중한 업무를 거뜬히 해내는 것은 물론, 신행과 포교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국의 불교회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지도법사 부족현상은 포교사 자격을 갖춘 회원들이 상임포교사로 활동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청년포교를 위해서전 · 의경 법회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회는 올해 목표로 '참불자되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전국의 경찰불교회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경찰 행정발전에도 기여하려고 합니다. 조직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경찰청 내 사무국을 개설했습니다. 앞으로 전국경찰불교회는 15만 경찰가족을 대상으로 불법을 전하는 진정한 경찰포교의 디딤돌이 되고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김진홍 전국경찰불교회 사무국장

"나누어 보태는 생활하세" 올 활동표어

15만 경찰가족 대상 불법전파에 최선



◇전국경찰불교회 회원 불자들은 계급, 나이를 초월해 '합장인사하기'를 생활화하고 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사찰소장 문화재 전산관리

조계종 성보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완료, 2월 가동

사진·유형·소유·보존처리 등 한눈에
자료 광범활용, 도난시 신속대응 가능

전국 사찰소장 불교문화재에 관한 모든 것이 전산으로 관리된다. 전산화를 통해 불교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불교문화재 도난시 훨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에 따르면, 그 동안 추진해 온 성보전산화 프로그램 개발이 이달 중순께면 마무리된다. 시험가동을 거쳐 2월부터는 전국 사찰의 불교문화재 현황을 입력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조계종은 지난 96년부터 전국 24개 교구본사 중 19개 교구 본·말사에 소장된 불교문화재 3만8670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해왔고, 2005년까지는 나머지 5개 교구본사에 대한 조사를 끝마칠 계획이다.

'성보관리' 프로그램에는 말 그대로 해당 문화재의 모든 것이 입력된다. 실물 사진과 시대나 유형, 재질, 지정여부 등은 기본이고, 소유관계의 변화나 다른 기관에 대여한 상황, 훼손 상태, 보존처리한 기록까지 세세하게 들어간다. 심지어 불상의 경우 어떤 수인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조계종이 지난 해 11월 발간한 <불교문화재 지정 현황 목록> 같은 자료집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검색 기능 하나로 파악이 가능하고, 수시로 업데이트가 가능해 최신 정보까지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계종 문화부는 "각 교구에 있는 불상이나 극락전에 관한 자료만 따로 뽑아볼 수 있는 등 성보자료의 각 항목별 데이터 산출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성보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성보가 도난당했을 때도 신속하게 해당 성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입력 작업은 한 해에 4개 교구씩, 약 5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계종은 전국 사찰의 불교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고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한 지정 추진 등의 보호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오히려 도난의 자료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중요 불교문화재에 대해서는 비지정문화재라도 이미 '달마넷'을 통해 어느 정도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원하는 교구본사급 사찰에는 프로그램을 배포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대장경판 무게·크기 다 달라

영상화·DB화 과정서 드러나

무게 2.5kg~4.5kg 까지 2kg 차이
752년 지났어도 보존상태 양호



◇해인사 고려대장경 디지털 영상화 및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인사는 최근 고려대장경 2만936장에 대한 조사 자료집을 발간했다. 사진은 대장경판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고려대장경연구소

"보기엔 똑같은 것 같아도 무게며 크기가 다 달라요. 살아있는 생명체 같다고나 할까요."

해인사 고려대장경(국보 32호)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2001년부터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연구원(원장 종성)이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의 기술 지원 아래 벌이고 있는 고려대장경 디지털 영상화 및 데이터베이스 작업 덕분이다. 해인사는 2002년까지의 조사 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2년 동안 조사한 경판 수는 8만1천340장으로 추정되는 전체 국간판(국가가 도감을 설치하여 왕의 이름으로 제작한 경판) 가운데 2만936장. 법보전(84개)과 수다라전(87개)에 설치된 171개 판가(경판꽂이) 가운데 법보전 44개 판가에 대한 조사를 마침으로써 25%의 작업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팔만대장경 보존연구원 연구실장 관암 스님은 "사람으로 치면 팔만대장경에 대한 '호적'과 '건강진단서'를 작성하는 일"이라며 "정확한 경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온 팔만대장경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경판 하나하나에 대해 어느 판가의 몇 번째 줄에 꽂혀있으며 크기와 무게, 가로·세로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 등 제원 조사가 20항목이고, 글자 마모상태와 경판의 휨 정도 등을 측정하는 건강진단 32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흥미로운 것은 경판마다 크기와 무게가 다 다르다는 점이다. 일제시대 조사를 바탕으로 한 문화재청 자료에는 경판 1장의 평균무게가 3.5kg으로 나와 있지만 가벼운 것은 2.5kg에서 무거운 것은 4.5kg까지 2kg 정도 차이가 난다. 가로 길이도 평균 70cm지만 ±10cm의 차이를 보인다. 여러 군데에서 판각했고, 나무 종류가 다르다 보니 특히 무게 차이가 두드러지지만 글자를 새긴 부분의 면적은 거의 비슷하다.

관암 스님은 "법보전에 있는 세 줄의 판가 가운데 제일 앞쪽의 남면판가에 보관된 경판이 얼마 전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판은 752살의 나이에 비해서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며 "올해는 경판 조사보다 판가 보수에 주력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사는 2005년까지 진행되며 그 결과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테러방지 종교간 대화 뿐"

레너드 스위들러 교수 동국대서 강연



"테러에 대항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쟁은 종교간 대화법을 기르는 것이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의 대표적 종교학자인 레너드 스위들러 교수(템플대·사진)가 동국대 BK21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단(단장 조용길) 초청으로 13일 동국대에서 강연회를 가졌다. '테러에 대항하는 최선의 전쟁: 종교간 대화'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스위들러 교수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 특히 종교인들은 이슬람 문화와 이슬람교도들과의 대화 방법을 배워야 하는 절대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며 종교간 대화에서 지켜야 할 열 가지 기본 규칙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상대방의 실재(reality)를 인식하고 이해했다면 상대방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이상과 상대방의 현실을 비교하지 말고 이상과 이상을, 현실과 현실만을 비교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의견의 불일치점에 대해서 요지부동의 가정을 갖고 대화에 임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에 대해 스스로 비판할 수 있어야 종교간 대화가 가능하다.

스위들러 교수는 "종교간 대화가 이미 일어난, 근본적으로 병든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법이라기보다는 예방책인 만큼 오랜 기간을 두고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사마 빈 라덴이 자유와 권리, 여성과 소외계층들에 대한 인권, 민주주의 등 현대성(Modernity)과 그 가치를 싫어하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했다는, 지극히 미국적인 시각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 의문을 남기는 자리였다. 권형진 기자



불교공예(4)

불교가 꽃피운 황금문화

우리는 5, 6세기의 신라를 황금시대라 부른다. 동산만한 무덤 속에서 금관을 비롯한 황금유물이 무더기로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황금문화는 삼국통일과 더불어 무덤 속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금제품을 비롯하여 만 여종에 이르는 부장품이 쏟아져 나온 5, 6세기의 돌무지덧널무덤이 통일신라때 돌방무덤으로 바뀌면서 부장품도 고작 십여 종에 불과하고 그 찬란한 금붙이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불교이다. 이전처럼 왕이 죽어서 반드시 왕의 권세를 누린다는 보장이 없고 미천한 백성도 깨달음에 따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것이 바로 불교의 내세관이다. 더 이상 무덤을 치장하는 일이 의미가 없어졌다. 그런데 통일신라시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사리기는 오히려 화려한 금으로 번쩍였다. 화장을 비롯하여 간소한 장례의식을 선도한 것 금동판을 오려 붙여 건물을 만들고 귀걸이 식의 장식으로 커튼을 단 점은 영락없이 금관의 기법이고, 표면에 고리모양의 장식을 붙인 유리잔은 페르시아의 커트글라스(cut glass)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리장치는 이 전탑의 연대처럼 분명 8세기에 제작된 것이다. 고신라 때 왕이나 귀족의 무덤의 금관이나 금동관을 장식했던 방식으로 통일신라시대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사리장치를 장엄했던 것이다. 고신라를 풍미했던 황금문화가 통일이 되면서 사라졌는가 싶더니만 놀랍게도 불교계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송림사5층전탑 출토 금동제사리장치(보물 325호). 왕이나 귀족의 무덤을 장식했던 고신라의 황금문화가 통일신라시대에 불교계에서 다시 꽃피었다.

그렇다면 송림사탑 사리장치의 전각은 무엇을 나타낸 것일까? 그것은 최근 주경미 박사의 연구에 의하여 장례에 쓰였던 상여 모양임이 밝혀졌다. 돈황 막고굴 당나라 벽화에 이 사리기와 유사한 모양의 상여가 표현된 것이다. 아마 통일신라시대에도 당나라 식의 상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사리를 당시 귀인의 주검을 모신 상여에 안치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사리기는 매우 국제적인 이미지로 결합되어 있다. 황금시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고신라의 금동기법에 당나라 혹은 통일신라시대의 상여,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수입한 사리그릇으로 표현되었다. 통일신라시대의 사리기는 감은사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치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사리장치에는 당나라 풍이 역력하다. 하지만 송림사탑 사리장치는 당나라 풍의 사리장치가 황금시대의 전통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사리장치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금 새겨볼 수 있는 것이다.

불교 내세관 영향 무덤 치장 퇴조
부처님 사리함 등 장엄장식으로 변화

은 불교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불교계에서는 부처님의 열반을 화려하게 치장하였다. 왕과 귀족의 권위를 상징하던 황금문화가 통일이 되면서 부처님을 장엄하는 장식으로 바뀐 것이다.

1959년 4월 송림사5층전탑(보물 189호)을 해체하였다. 경북 칠곡에 위치한 이 탑은 경주에서 시작된 전탑의 유행이 칠곡을 거쳐 안동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이 탑의 2층 지붕에서 금동으로 만든 사리장치가 발견되었다. 이 사리기는 녹색유리잔 안에 녹색 유리병을 넣고 그 바깥은 금동으로 전각을 꾸몄다. 금동으로 만든 제품에 유리잔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면 5, 6세기 황금시대의 유물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한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목어

성숙한 사람은…



김징자
언론인·본지 논설위원

미국 작가 샐린저가 반세기 전에 내놓은 <호밀밭의 파수꾼>만큼 독자들, 특히 청소년 독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소설도 드물 것이다.

1950년대 미국 사회의 획일화된 가치관과 이의 강요, 대중사회에서 넘쳐나고 있던 퇴폐와 속물근성에 구역질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성적불량으로 방금 퇴학당하고 만 고교생 주인공 홀든 콜필드의 청순하면서도 예리한 감수성에 의해 드러나는 목소리는 지금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음에 틀림없어 보인다.

퇴학으로 여러 학교를 전전했던 홀든은 우선 '훌륭한 인간'을 키운다는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다. 퇴학 후 며칠간 혼자서 뉴욕을 떠돌며 보고 느낀 것은 꿈의 상실과 천박하고 혐오스러운 욕망들뿐이다.

그나마도 그가 마음 기대고 싶어 했던 유일한 선생님이 있었고, 그 선생님은 어느 정신분석학자의 글 하나를 그에게 써 주었는데, "미성숙한 인간은 어떤 이유를 위해 고귀하게 죽기를 바라지만 성숙한 인간은 동일한 상황에서 묵묵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이었다.

이 구절이 기원전 중국의 시인 굴원의 어부사를 연상시키는 것은 왜일까. 세상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려는 굴원에게 '세상 청탁(淸濁)에 구애받지 말라'던 그 어부의 선미(禪味)마저 느껴지는 마지막 구절 말이다.

지금은 미국 청소년 최우수 권장도서임에도 출간 초기 청소년 금지도서가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혹시 청소년들의 성숙치 못한 독법으로 '기성의 가치관은 무조건 타도의 대상' 정도에 머물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 때문은 아니었을까.

'희망의 등 달기'로 세상 더 밝게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주지 일면)는 16일 경기도 송추에 있는 광릉보육원에 성금을 전달한다. 모금 과정이 흥미롭다. 세상이 온통 새해맞이에 들떠 있던 지난 해 12월 31일 재야의 종 타종 행사에 앞서 '1인 1등, 희망의 등 달기'를 해서 모은 돈이다. 모두들 새해 설계에 바쁜 이 즈음, 잠시 '자기'라는 존재를 놓아보는 것은 어떨까. 자신에게서 해방됨으로써 세상도 더 잘 보이지 않을까.

장군죽비

'도선사' 불사금 미납자 공개, 신도 반발

도선사가 12월 26일자로 발행한 <도선법보>에 만불불사 동참 미납자 명단을 공개해 일부 신도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신도는 1일 인터넷 게시판에 "불사금을 다 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영가의 이름까지 밝혀 법보에 올린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도선사는 7일 해명 글을 통해 10년 불사가 원만히 이뤄지고, 빠짐없이 회향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하루는 참여연대를 이끌면서 NGO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박원순 변호사님의 이름으로 편지가 왔다. "'아름다운 재단'을 설립하니, 자기 소득의 1%를 재단에 기증해 주시거나 아름다운 가게에 물건을 기증해 주시면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소중하게 나누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를 받고 참 많은 생각을 하였다. '참! 그래. 어쩌면 이런 재단 운영은 일반 사회단체도 좋지만 종교단체, 그 가운데서도 우리 불교가 나서서 한다면 우리 불자들의 호응이 얼마나 클까?' 하는 상념에 사로잡혔다. 그 후 한 종합일간지와 연대해 '1% 기부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와 염려가 사회 저변에서 확대되어 가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였다.

지난 10월 중순쯤 KBS '사랑의 리퀘스트' 담당 작가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처님오신날 즈음에 출연하셨으니 가을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나는 지난 해 연등축제 준비 기간에도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 방송되는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면서 출연했었다. '사랑의 리퀘스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출연자들이 찾아가 위로하고 어려운 사연들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내용이었다. 사연을 소개하는 사이사이에 나처럼 초대된 사람들이 소감을 이야기하면서 3개 정도의 사연을 보여주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ARS 전화로 모금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사랑의 리퀘스트 따르릉 1000원입니다'였다. 보통 모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성공이라는데, 난생 처음 TV 생방송에 출연한 그날 바로 1억원을 넘겨 스텝들을 놀라게 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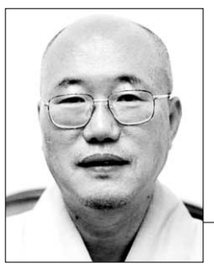
두 번째 출연 날짜는 12월 14일로 결정되었다.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덕분으로 난생 처음 충주호도 보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진여원에도 다녀오게 되었다. 진여원은 현각 스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미인가 복지시설이다.

프로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모금액이 주유소 미터기처럼 화면에 표시되어 나온다. 방송시작 전에 구성작가로부터 "스님!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요즘은 모금액이 8천만원을 넘기가 힘듭니다. 전에는 9천에서 일억이 넘게 모금이 되었는데…" 하는 당부도 받은 터라 꽤 긴장이 되었다. '그래, 오늘도 좋은 성과를 거둬야 할 텐데' 하는 우려와 기대를 가지고 무대에 섰지만 조마조마한 심정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프로가 진행되는 동안 미터기가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2억원이 넘어가는 순간에는 '정말 그럴까? 기계고장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방송을 끝내고 분장실로 돌아오니 모든 진행자며 스텝들이 싱글벙글하며 환호성을 지를 듯한 분위기였다. 구성작가의 말이 "사랑의 리퀘스트를 진행한 지가 다음 주면 꼭 5년이 되는데 그동안 한 번도 2억원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스님이 출연하셔서 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저희들도 기계가 고장 난 줄 알고 법석을 떨었는데 알아보니 기계고장이 아니라 진짜로 성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하며 좋아 어쩔 줄 몰라하는 것이다. 나는 속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요즈음 나는 백련암에 들르는 신도나 학생들에게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방영하는 '사랑의 리퀘스트 따르릉 1000원입니다'라는 프로에 참가해서 ARS 060-700-0600을 누르라"는 당부를 잊지 않는다. 앞으로 더 많은 우리 불자들이 힘겨운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부탁드린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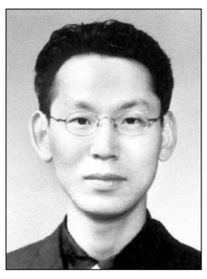
원택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해인사 백련암 감원

'나눔'의 삶, 불자들이 앞장서야

열 린 마 당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개막식을 치르는 동대문운동장이 청계천 복원 공사 중에는 주차장으로, 복원 후에는 공원으로 조성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안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른 장소를 마련해서라도 제등행렬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연등축제를 더 새롭게 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최측과 참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봤다.

연등축제 어떻게…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조용준 기획과장

청계천이 복원된다는, 친환경적인 변화가 반가운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우리 나라 유일의 거리행진축제인 연등행사가 그 출발점을 잃게 되었으니 참으로 큰일이다. 대안으로 장충체육관,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운동장, 안 되면 여의도 고수부지라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어디 동대문운동장 축구장만 하겠는가?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해보자. 동대문 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거리는 약 3㎞ 정도다. 보통 성인은 평균 보폭과 속도로 한 시간에 약 4㎞이상을 이동한다. 따라서 행진자체를 즐기며 흥을 돋우는 연등축제의 경우 3㎞ 정도의 거리면 아주 적당한 반나절 정도의 전체진행시간이 편성될 수 있는 것이다.

조계사 반경 4~5km내 적당

거리행진을 마치는 곳은 조계사이다. 조계사는 한국불교의 상징이자, 중심지이다. 아직은 이 일대가 큰 공사와 정비로 보수중이라 어수선하고 불편한 점도 있지만, 동대문운동장이라는 출발점이 없어진다고 조계사라는 축제의 중심지를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

서울시 지도를 놓고 조계사를 중심으로 컴퍼스를 찍어 돌려 반경 4~5㎞ 이내에 다른 대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하다.

서울시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잡은 거리행진을 여법하게 살려나가야 한다.



불교문화정보네트워크
김경호 상임이사

해뜨면 일하고 어둠이 내리면 잠자던 그런 시절에 일년에 한번 펼쳐지는 제등행렬은 강렬한 문화적 충격이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잔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중생의 무명번뇌를 밝히는 빛과 같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가, 아직도 어둠을 밝히는 빛의 상징일 수 있을까?

또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 그 이전에는 여의도 광장에서 조계사로 회향되는 초파일 봉축 제등행렬의 코스는 변할 수 없는 것일까? 그 코스를 고집하며 제등행렬이 지날 자리는 모두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 비어버린 도심의 빈 공간밖에 없다. 축제를 함께 즐기고 감상해 줄 사람들이 없는 것이다.

행사위주 아닌 참여축제로

그에 반해서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거리축제는 얼마나 활기찬가. 발전시켜야 할 것은 규모의 행사가 아니라 참여의 행사다. 이제 초파일이 진정으로 불자들과 국민들의 기쁨과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해 제등행렬 자체를 대중에게 돌려주자. 사찰별로 할당하고 경쟁시켜 인원 동원하는 일은 지양하고 사는 곳 가까이에, 진정으로 빛이 가치를 발하는 곳에 등을 밝히자. 그래서 문화의 사각지대에 불을 밝히는 지혜를 발휘하자.



대한불교청년회
정상옥 회장

동대문운동장이 주차장으로 변한다고 한다. 청계천 복원사업과 연관이 된 것으로, 서울시내 주차문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런데 불교인인 내게는 동대문운동장의 주차장화 문제가 다른 시각으로 다가온다. 불교계가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동대문운동장에서 열어왔고, 동대문운동장에서 출발해 조계사까지 제등행렬을 해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대문운동장이 주차장이 되는 것에 대해 찬, 반을 표하자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봉축행사를

문화적 손실 우려, 대안 시급

어떻게 치러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이제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와 제등행렬은 불교계뿐 아니라 서울시민에게도 중요한 거리문화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동대문운동장 주차장화로 인해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빛을 잃을까 우려되는 것이다.

반드시 대안 장소가 물색 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대안 장소를 찾지 못하면 불교계로선 커다란 문화적 손실이 될 것이다.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던 봉축행사가 동대문 운동장으로 옮겨질 때도 찬반의 논란이 많이 있었음을 불교인들은 알고 있다. 동대문 운동장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가야만 하는 이때,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불교인들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부산에도 불교대학원대학 선다

원효학림 동양학과·기업학과 등 4개과 설치



◇원효학림 기공식이 8일 김용태 설립추진위원장, 정관(영주암 조실) 정각(미륭사 주지)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원효스님의 화쟁 사상을 교육이념으로 하는 불교대학원대학(설립추진위원장 김용태 前신라대 총장)이 부산 금곡동에 들어선다.

8일 기공식을 갖고 첫 삽을 뜬 원효학림은 불교적 사상을 근간으로 한 교육 연구 시설로 대지 2000평에 건평 1570평 규모로 문을 열 예정이다. 부산의 인재 양성, 불교 사상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원효학림은 연내 건물을 완공하면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동양학과, 심리치료학과, 사회체육지도자학과, 기업학과 등을 개설하게 된다.

교육동·법당·수련실·요사채겸 관리동
연내 완공,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 계획

정관 영주암 조실, 정각 미륭사 주지, 엄영석 동아대 총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공식에서 정관스님은 축사를 통해 "원효학림을 시발로 불교사상이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 폭넓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 불사에 돌입한 원효학림은 3층 300평 규모의 교육동, 2층 200평 규모의 법당, 2층 100평 규모의 수련실과 요사채를 겸한 관리동으로 모양을 갖추게 된다. 원효학림에 개설되는 학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학문에 접목시킨 것으로 심리치료학과의 경우, 불교 문화와 예술 등을 심리치료에 접목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또한 기업학과는 기업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특수학과로 회사에서 교육을 의뢰하는 기업의 우수 인재들의 심성을 개발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겸비한 인재로 재교육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2003년내 건물을 완공하고 2004년 신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에 들어간다.

김용태 박사는 "불교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펴는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대는 지식이 부족하지는 않다. 다만 지혜가 부족해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 것에 착안,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사회에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둔 교육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미얀마 정부 부산불자 초청

"아시안게임 때 따뜻한 응원 감사 삼광사 서포터즈에 보답하고파"

"삼광사 도원 주지스님을 비롯 여러 불자님들이 베풀어준 따뜻한 정에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부산을 잊지 못하게 만들어준 여러분들을 미얀마 양곤에서 다시 만나 뵙길 바랍니다."

3일 삼광사 주지 도원스님 앞으로 미얀마 정부가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미얀마 정부가 지난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때 미얀마대표팀을 응원한 삼광사 서포터즈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함께 초청의 뜻을 전달해 온 것이다.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미얀마 대표팀 단장으로 부산을 찾았던 뚜라 에이 민트(Thura Aye Myint) 미얀마 체육부 장관은 3일 보내온 감사장에서 '아시안게임 기간 중 서포터즈의 환대에 깊이 감사하며 그 따뜻한 정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며 '초청에 꼭 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광사 중심의 미얀마 시민서포터스는 3월중 성지순례단 성격의 방문단을 구성해 미얀마의 초청을 수락하고 양국의 민간 교류를 지속할 방침이다.

천미희기자

108문화센터 · 해외성지 순례 사업

수익금 복지사업에 활용

대구불교사회복지회

대구불교사회복지회는 최근 정부지원과 후원자들의 후원금에만 기대왔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깨고, 수익사업을 통한 복지사업기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불교사회복지회는 지난 9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108사찰순례단을 모태로 하는 108문화센터를 올 초 개원하고 108사찰 순례단, 108기도 순례단, 해외성지 순례단의 여행사업을 통한 각종 수익사업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수익모델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불교사회복지회는 또, 108문화센터 내에 천연 황토로 염색한 의류 및 소품류를 판매하는 황기모아 남대구대리점을 복지회에서 직영하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복지사업 후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불교사회복지회는 이외에도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시니어클럽에 지정받은 대구햇빛 시니어클럽에서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햇빛촌 떡방을 비롯 죽 · 국 · 밑반찬 등을 생산해 판매하는 햇빛장터사업단도 운영하고 있다.

박원구기자

통도사 박물관대학 오세요
불교문화학과 3월 7일 개강

통도사박물관대학은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2003년 박물관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민속학 불교미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이론 강의와 현장답사로 진행되는 통도사박물관대학 불교문화학과는 매주 금요일 강의가 진행된다. 개강은 3월 7일. 055)382-1001.

팔공산 자락 환성사에
최대 돌기둥 일주문 복원

국내 최대규모의 돌기둥 일주문이 복원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예산 2억 5천만원을 투입해 경산시 하양읍 환성사(주지 돈관)의 돌기둥 일주문을 연내 복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환성사의 일주문은 자연석 초석 위에 4개의 기둥만 남아 있으며, 기둥의 둘레가 240cm, 높이 280cm로 건립당시에는 높이 5m에 폭 10m의 국내 최대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박원구기자

불교문화재 관련 예산
경북 늘고 대구는 줄어

경북도와 대구시가 최근 밝힌 불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에 대한 예산 증감이 명확한 대비를 보였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의근)는 2003년 도내 전통사찰 정비계획에서 영천포교당, 경산 제석사 등을 비롯한 21개 사찰에 23억여원을 투자하는 전통사찰 정비계획을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통사찰 보수에 쓰인 예산이 10개 사찰 9억여원이었음에 비해 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올 한해 경북도가 불교문화재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했다.

그러나 대구시(시장 조해녕)의 경우 지난해 6개소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데 반해 올해는 4개소에 6억여 원의 예산만이 책정돼 있어, 경북도와는 반대로 예산 규모 면에서 전년대비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전년비 배 이상 증가 대구 절반가량 감소

그나마 전통사찰보전법에 적용을 받는 현풍포교당 보수사업만이 문화관광부의 예산 배정이 확정되었으나 문화재청 소관인 부인사지 축대보수와 파계사 진동루 해체보수, 용연사 석조계단 정비사업은 아직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로 드러나 대구불교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원구기자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청소년 발대식이 8일 동의대 강당에서 열렸다.

"남 아끼는 마음 배우겠습니다"

'맑고향기롭게' 청소년봉사단 발대식

"내 고장의 어려운 곳을 찾아 나보다는 남을 아끼는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8일 동의대 자연대 강당에서 열린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의 청소년 봉사단 발대식은 자원봉사를 다짐하는 청소년들의 열기로 가득했다. 이날 발대식을 가진 부산지역 중 · 고등학생 200명은 11일까지 부산 전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방학을 보냈다. 이 밖에도 청소년들은 경로의식 고취를 위한 애광양로원, 부산시립노인건강센터 봉사와 민주시민의식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민주공원,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에서의 문화체험 등 주제별 봉사활동과 체험에 참여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천미희기자

부산불교신도회 · 동화사

신년하례법회 봉행

부산불교신도회(회장 류진수)는 6일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불기 2547년 부산불교계인사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사진 위>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4백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신년하례에는 식전행사인 부산영산재 시연에 이어 김창석 부산불교신도회 상임부회장의 발원문,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의 신년인사, 도원 삼광사 주지 스님의 신년축사, 성오스님의 신년법어 순으로 이어졌다.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스님)는 6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불기 2547년 불교지도자 신년 하례법회를 갖고 새해 지역불교계의 발전을 기원했다. <사진 아래> 이날 법회는 대구불교방송 사장 성타스님, 조해녕 대구시장, 장영관 대구시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





“북녘동포 생각하며 걷겠습니다”

세계평화 도보행진 나서는 원공스님

3월 1일 인천 출발 서해·남해·동해안 순례

‘걷는 것이 곧 수행’…한해의 절반씩 걸어

“우주의 이치에서 보면 ‘오라’ ‘가라’ ‘하라’ ‘하지 마라’ ‘여기’ ‘저기’가 다 무의미합니다. 걷는 데는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걸음 북녘동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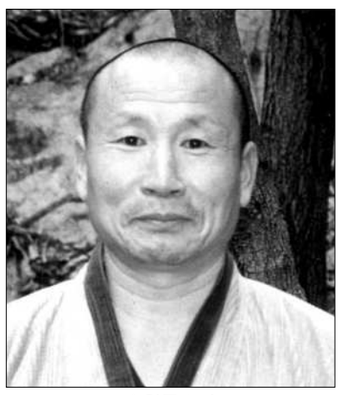
서울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無門關)의 마지막 6년 면벽수행자인 원공(圓空) 스님이 이번에는 ‘세계평화 도보대행진’에 나선다.

3월 1일 인천에서 출발해 남해안을 거쳐 6월 30일 동해안 통일전망대까지 약 90일간 해안도로를 걸어서 순례하는 세계평화도보대행진은 세계평화와 북녘동포 돕기를 위해서다.

대한적십자사와 국내 모 일간지 주최로 진행될 이번 90일 도보대행진은 원공스님의 제안에 의해 이뤄졌다. 전국 해안도시들을 돌며 국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쓰레기 줍기도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타종교 성직자도 참여할 예정이다.

“걷는 것이 곧 수행”이라는 화두를 삼고, 25년간 1년의 절반 이상 만행(萬行)을 하면서도 한번도 차를 타지 않은 스님은 “우리 산하를 걷는 것은 수행자로서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행하는 기도”라고 말한다.

한편 원공스님이 북한돕기 및 환경살리기 도보 수행을 시작한 것은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에서 면벽수행을 끝낸 지난 79년부터다. 도봉산 곳곳에 묻힌 쓰레기를 캐내던 스님은 뜻을 함께한 불자 및 산악인들과 ‘산에 도라지 심는 사람들’을 구성, 통일발원 북한동포돕기 국토순례 등에 나섰다. 그동안 1백55마일 휴전선



◇원공스님

순례, 통일기원 1백80일 국토 순례, 이산가족 고향 자유왕래 염원 2백20일 순례, 통일염원 북한 농민을 위한 비료지원 모금 123일 백두대간 종주 등을 해왔다. 이를 통해 북한에 지원한 금액만도 수천만원이나 된다. 지난해에도 스님은 한·일 월드컵 성공개최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며 2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원 12명과 상암경기장을 출발 축구경기가 열리는 도시와 20개 경기장을 하루10시간 총 4000km를 도보 순례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수원포교당 불자들이 성도절 전날인 9일저녁 금강보탑 주변을 돌며 뭇중생들의 깨달음을 서원하고 있다.

“부처님 깨달음으로 세상 무명 밝혀”

수원포교당, 탑돌이 등 성도절 전야행사

고타마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신 날(성도절, 음력 12월 8일) 전날인 9일 저녁 6시. 수원포교당(주지 성관) 금강보탑 주변에는 ‘깨달음의 등’이 밝혀졌다. 영하의 쌀쌀한 나이에도 촛불을 든 200여 명의 불자들은 금강보탑 주변을 돌며 “이 한 개의 등불이 아직 깨치지 못한 중생들의 무명번뇌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발원했다.

전야행사는 탑돌이에 이어 저녁 7시 30분부터 불교문화원 3·4층 만불보전으로 장소를 옮겼다. ‘불자음악인 작은 음악회’가 열린 두 시간 동안 만불보전은 박수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수원포교당 가릉빈가 어머니합창단과 남성 사자후합창단, 소리꾼 한승석(국립창극단원), 불자가수 나진아 등이 출연한 음악회는 벌써 17년째 이어져온 행사. 찬불가와 클래식, 재즈와 판소리가 어울려 성도절을 기쁨으로 맞았다.

주지 성관 스님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에 불교가 시작됐고, 부처님 오신 날, 출가절, 열반절 등도 생겨났다”며 “기쁨과 환희심으로 이 날을 찬탄하며 물러섬 없는 정진으로 부처님처럼 깨달음에 이를 것을 새롭게 발심하는 날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밤 10시 30분, 시끌벅적했던 만불보전은 다시 원래의 엄숙함 속에 빠져들었다. 대신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하는 철야 정진 기도가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이어졌다.

10일 불교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처님 되신 날’을 맞아 수원포교당뿐 아니라 전국 사암에서는 전날부터 철야정진과 기도법회 등으로 이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권형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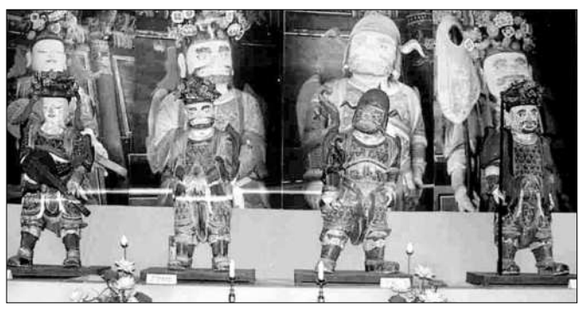
템플스테이 내·외국인 여행상품화

전남도청, 롯데관광과 함께 3월까지

전남도청 관광진흥과는 롯데관광과 손잡고 15일부터 3월까지 지난해 한일월드컵 때 선보였던 ‘템플 스테이’를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했다.

1박2일 일정의 ‘산사문화체험’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두차례 서울서 출발한다. 해당 사찰은 해남 미황사와 대흥사를 비롯해 순천 송광사, 구례 화엄사, 장성 백양사 등 다섯 곳이다.

오전 8시30분 서울을 출발, 저녁 공양 후 예불과 참선을 한 뒤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든다. 이튿날에는 새벽 3시30분에 일어나 도량석과 아침예불, 참선을 한다. 아침공양 이후 강의가 이어지며, 근처의 암자나 산행을 한다. (02)733-0201 김주일 기자



◇봉은사 목사천왕입상(서울시 유형문화재 160호).

봉은사 목사천왕입상 등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서울시는 최근 봉은사 목(木)사천왕입상(1746년)과 금선사 신중탱화(1887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금동보살좌상(여말선초 추정) 등 3건을 시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시보에 고시했다. 나무로 조성된 봉은사 사천왕상 4구(서울시유형문화재 160호)는 다량의 복장유물이 출토돼 18세기 복장과 목조 불교조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서울시유형문화재 161호로 지정된 금선사 신중탱화는 서울지역 사찰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 된 신중도 가운데 하나이다. 권형진기자

우리 절 우리 신도

절일 생기면 밀어붙이는 ‘탱크’

용암사 거사림회 고창환 거사

“어서 오세요, 보살님.”

성도재일을 사흘 앞둔 7일 서울 중곡동 용암사(주지 효성) 요사채. 문을 열고 들어오는 노보살을 부축하며 반갑게 맞는 이가 있다. 용암사 거사림회 고창환(법명 도희.62) 거사다. 성도재일 행사를 신도들과 함께 준비하며 혹시 불편하거나 부족한 것이 없는지 꼬박꼬박 챙기는 고 거사. 고 거사는 어느새 보살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있었다.

‘소리 없이 강하다.’ 용암사(주지 효성) 신도들은 고 거사에게서 이런 감정을 예외 없이 느끼곤 한다. 평소에는 말이 없다가도 사찰 일만 생기면 저돌적으로 밀어붙이기에, 신도들은 ‘탱크’란 별명까지 붙여주었다.

별명처럼 고 거사의 첫 인상은 과묵했다.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스님이 하란 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합니다”는 고 거사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며 한사코 손사래를 친다.

하지만 용암사에서 고 거사는 없어서 안 될 사람 일순위로 꼽힌다. 사찰 일이란 게 주인의식을 갖고 누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님들이 하기에 벅찬 일이나 신도회에서 하기 까다로운 일, 거사림회에서 하고 싶은 일은 모두 고 거사의 손을 거쳐 무리 없이 진행된다.

고창환 거사가 용암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금부터 10년 전. 고 거사의 급한 성격을 걱정한 부인 이성선(61)씨가 매일 출근하는 남편에게 함께 사찰에 다니자며 삼배를 올리면서부터다. “처음에는 절에 다니더니 뭘 잘못 먹어 저러냐 했다”는 고 거사는 몇 달이고 이어지는 간절한 아내의 정성에 감복, 용암사를 다니기 시작했다.

아내 이 씨는 “이제는 누구보다 열심”이라며 자랑스런 미소를 내보인다. 함께 절에 나가는 것도 고마웠는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기도와 예불, 독경을 거를 때가 없는 남편 고 거사는 이 보살에게 너무 든든한 도반인 것이다.

택시운전하며 손님 부처님 모시듯

올해부터 불우이웃돕기 나설 계획

하루 10시간씩 택시 운전을 해야 하는 고 거사는 택시 운전을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끊임없이 찾는 것을 잊지 않는다. 고 거사는 “택시 손님을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대하다 보면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울 뿐”이라고 말한다.

“별별 사람도 다 만나도 이제는 성내지 않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슬며시 웃음이 난다”는 고 거사. 고 거사는 올해부터 실천할 예정인 불우이웃돕기 봉사를 앞두고 벌써 가슴이 벅차있었다. 강유신기자



◇7일 고창환 거사가 용암사 신도들과 함께 성도재일 행사 안내지를 봉투에 담고 있다. 왼쪽에 앉은 이가 평생 도반인 아내 이성선 보살.



추천의 말

효성스님 용암사 주지

행사 뒷일 도맡아 처리

고창환 거사는 평소 언제 왔다가 언제 가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한 사람입니다. 늘 가장 뒤편에 서서 묵묵히 기도와 예불을 올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면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기적인 사찰 행사의 뒷 처리는 고 거사의 몫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암사에 고 거사를 비롯한 신심 깊은 불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라 망국恨·고려 건국기운 서린

미륵의 성지



◇충주 미륵대원지 전경. 자연석을 기단으로 사용한 미륵불입상과 석등, 5층석탑이 나란히 서있다.

새해의 꼭두에 서서 미륵의 처소를 묻는다. 희망과 환희의 순례자, 미륵은 어디에 있는가. 어질고 가난한 백성들이 오천년 핍박을 받으며 살던 나라. 또 다시 새로운 정토 건설을 약속하며, 서민 출신의 대통령이 미륵의 화신인양 화려하게 등장했는데, 사바세계의 야단법석을 둥글고 환한 미소로 굽어보는 미륵의 당체는 어느 곳에발길을 모두고 지켜보시는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어찌 눈밭을 갈아엎듯 쉬운 일이겠는가. 인연은 56억7천만년의 수기를 받아야 하고, 도솔천은 몇겁의 윤회를 거쳐서 비로소 당도하는 곳이기에 촉수 흐린 중생의 시력으로 참미륵의 진위를 묻자니 흰 눈발 얼비치는 시린 세상 그대로가 용화장 세계로 비친다.

월악산은 달빛의 때 아니라도 꿈결처럼 부드럽고 아늑한 곳이다. 흰눈발로 장엄한 영봉 아래 점점히 늘어선 골짜기들은 미륵의 처소로써 마땅하다. 눈꽃을 피운 낙락장송마다 차가운 햇살이 어지러움을 더한다. 월악산의 상서로운 서기가 한 곳에 스미는 계립재 미륵리. 이름조차 그러하여 여기 일찍부터 미륵으로 나툰 이들은 돌로 몸을 만들었어도 그 미소는 천년을 시들지 않은 채 양(羊)처럼 순한 얼굴을 하는 것이다. 계미년은 양의 해이다. 큰(大) 양(羊)을 가리켜 미(美)라 하였으니 미륵도 월악산 미륵쯤 되어야 대불의 반열에 들 수 있으리라.

중원 땅 충주와 수안보를 거쳐 하늘재 문턱에 닿자 대낮인데도 산길은 벌써 해그림자가 깔린다. 몇 걸음 앞서 진눈깨비가 스치고 갔는지 경사진 노면이 축축히 젖었다. 진눈깨비는 눈송이가 피지도 못하고 시든 채 내리는 눈발이다. 피지 않고 저무는 것이 어디 저 눈발뿐이랴만 미륵도, 미륵을 고대하며 새재, 조령, 까마귀골을 넘나들던 이 땅의 지순한 백성들도 결국은 진눈깨비처럼 분분한 영혼으로 흩어져 갔을 것이다.

월악산 미륵대원지는 사적 제 317호로 신라인의 후손들이 창건한 고려의 절이다. 신라가 천년 사직의 종언을 고한 후, 마의태자가 태자비인 덕주공주와 더불어 망국의 한을 품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미륵대불을 조성했다는 일설이 있다. 그와 더불어 또한 설득력을 얻는 것은 고려 태조 왕건이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이 곳 월악산 자락에서도 소리없이 불사를 일으켰다는 전설이다. 어쨌거나 불사를 기획한 이들도, 불사의 현장에 노동의 수고를 공양한 이들도 모두가 이 땅의 백성들이니, 서라벌 사람이든 패서 사람이든 미륵을 기다린 이들이야말로 미륵의 식솔들인 것이다. 말없는 것이 어찌 푸른 산빛을 깨치고 간 그리운 님들의 흔적뿐이랴. 기록도 전거(典據)도 분명치 않은채, 정작 탄생의 비밀을 간직한 미륵대불은 멀리 덕주산성 밖 덕주사의 마애불만을 마주보며 조국 신라의 운명도 자신들의 미래도 부처님께 맡긴채 계립재를 넘던 아픈 추억 속에 빠져있는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아달라 이사금 3년조에 계립령로를 열였다'는 구절이 보인다. 조선반도의 동쪽 변방에 위치한 작은 나라 신라는 험준한 태백산 등줄기에 계립령로를 개척함으로써 비로소 한수 이북으로 향하는 통로를 열 수 있었고, 삼국통일의 디딤돌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중원일대는 조선반도의 중심을 서로 차지하려는 제국들의 각축장이 되었고, 계립령로는 그 중요한 군사도로가 되었던 것이다. 미륵대원지에서 마의태자의 체취와 더불어 고구려 온달 장군의 흔적이 짙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절 터 오른편의 보주탑이라 불리는 거북바위 위의 지름 1m정도의 둥근 바위는 지금도 '온달장군 공깃돌'이라 불리고 있다.

중원 이 일대가 삼국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음은 도처에 남아있는 국보급 유물들이 그 사실을 말해준다. 수안보로 향하는 길목에만도 중앙탑으로 널리 알려진 탑평리 7층석탑(국보 6호)이 있고, 중앙탑에서 서북 10리쯤 용전리 입석마을에는 삼거리 비각 안에 중원 고구려비(국보 205호)가 있다. 중원탑은 현존하는 유일한 통일신라의 7층석탑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중원의 진정한 주인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세운 상징적 표식이다. 용전리 고구려비 역시 남한에 현존하는 유일한 고구려비로 자연석에 비문을 새긴 수법이나 생김새가 광개토대왕비를 빼닮았다. 그렇게 볼 때 미륵대원지는 신라와 고구려의 숨결이 한데 어울리고 신라 망국의 한과 고려 건국의 새 기운이 함께 빚어낸 참으로 도타운 미륵의 성지인 것이다.

미륵리사지는 석굴사원터로, 면적은 80,454㎡이고 평균 해발 378m 이상 되는 비교적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이 폐사지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전실과 주실이 드물게 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실에는 높이 10.6m가 되는 거대한 미륵불입상(보물 96호)이 멀리 송계계곡 밖 충주호를 굽어보며 북녘 하늘을 응시하고 있다. 그 미륵불상과 일직선상으로 다시 석등과, 5층석탑(보물 95호)이 단탑씩 가람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미륵대불은 왜 북천을 향하여 서 있는가. 그것은 대륙을 넘보고자 했던 고려 왕조의 넘치는 기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미륵대불을 에워싼 주실은 기본적으로 석굴암 석축 형태를 모방하여 쌓아 올린 것이나 석굴암 돔형 지붕과는 달리 석축 위에 목조건물을 세웠던 것으로 지금은 주초만이 남아 있다. 가로 9.8m 세로 10.75m의 방형으로 무사석으로 쌓아올린 석축은 이제 세월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는지 한켠은 중간이 갈라져 겨울잠도 마다한 채 산다람쥐들락거리는 요새가 되었다. 대불 앞 향촉대는 슬그머니 근처에 세들은 세계사라는 조립식 암자에서 임대료로 대신하는지 조석으로 쌓아 올린 촛농이 탑을 이루고 있다.

미륵대원지는 1977년과 79년 두차례에 걸쳐 청주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이 이루어져 그 윤곽이 다소 드러나게 되었고, 1982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도 발굴한바 있으나 확실한 생몰 연대는 알 수 없고 '미륵대원(彌勒大院)'이라는 기왓장이 발견되어 삼국유사의 미륵대원기록과 함께 고려초기의 사찰로 추정될 뿐이다.

미륵대원지의 유물들은 자연석 그대로를 이용하여 처음 놓인 그 자리에 원형 그대로 조형한 것이 찾는 이의 마음자리를 한없이 편안케 해준다. 거대한 화강암 5개를 연결하여 얼굴을 만들고 몸을 다듬은 주존불 미륵부처님은 초승달 같은 긴 눈썹, 가늘게 뜬 두 눈과 두툼한 입술, 발 아래까지 늘인 통견의 법의는 얼핏 졸렬해 보이기는 하나 충청인들의 인심을 엿보는 듯 소박하고 꾸밈이 없다. 그 뿐이랴, 높이 6m의 단층 기단 위에 5층의 탑신을 세운 5층탑 역시 그 받침돌과 1층 기단이 그 자리에 있던 자연석을 그대로 다듬은 것이다. 약수터 옆의 거북돌도 마찬가지. 무게를 헤량할 수 없을 정도의 거구인 돌거북은 검은 자연석을 통째로 다듬은 것인데, 등허리에 매달린 2마리의 새끼거북과 골짜기를 벗어나고자 두발을 내젖는 형상은 익살스럽기까지 하다.

사지의 주변 일대는 국립공원 관광지로 정비된 탓인지 비교적 깔끔히 정돈되어 있다. 도처에 눈에 띄는 큼직한 자연석들은 그 옛날 눈밝은 이들이 미륵의 가람을 조성할때 선택되지는 못했지만 아직도 그 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무슨 미련이 있는 듯 하다.

진눈깨비에 옷소매를 다 적신 미륵대불은 독감(毒感)만을 얻어 산문을 떠나는 순례자의 어깨가 안쓰러운지 내내 환한 눈빛으로 배웅하고 있다. 이제 계절이 더욱 깊어지면 미륵리 마을은 빼꼼히 연 하늘문조차도 걸어 잠근채 캄캄한 적막속에서 춘삼월을 잉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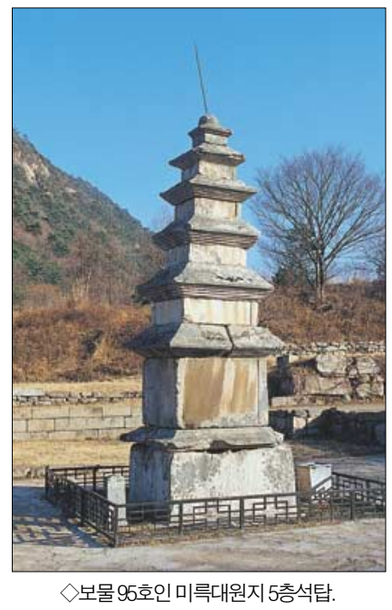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청주 흥덕사지 편



◇신라의 후손들이 창건한 고려의 절인 충주 미륵대원지. 멀리 북녘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미륵불입상(보물 96호)은 대륙을 넘보고자 했던 고려왕조의 넘치는 기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미륵불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보물 95호인 미륵대원지 5층석탑.

북향 석굴사원, 대륙향한 고려의 기상

청주대, 두차례 발굴…절 윤곽 드러나

미륵대원지 가는길

영동고속도로로는 이천IC에서 내려 장호원 →주덕 →충주를 거쳐 동남쪽 국도를 따라 20㎞ 정도 달리면 수안보 온천이 나온다. 수안보 온천 입구에서 왼쪽으로 갈라지는 지방도로가 있는데, 그 길로 8㎞ 정도를 가면 월악산 국립공원 입구인 계립령로가 나온다.

이 계립령로의 초입인 지름재를 넘으면 작은 동네가 나오는데 이 마을이 미륵대원지가 소재한 상모면 미륵리이다. 마을 전체가 미륵대원지 휴양지로 되어 있어 비교적 넓은 주차장과 민박집들이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김천IC에서 내려 상주→문경 →수안보에 이르러 월악산 방향의 지방도로로 찾아들면 된다.

대전광역시 시범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동승

주경중 감독

사랑과 화합의 메아리 스크린 가득…

보리울의 여름

이민용 감독

"'어머니' 통해 근원에 대한 성찰"



제작사 도산으로 촬영 중단
2개월 절생활 체험 화면속에

"불치의 병에 걸린 어머니에게 바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 어머니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만들어 지게 됐죠. 어머니는 누구에게나 의지하고픈 절대적인 존재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달려가 덥석 안기고픈 넉넉한 품 말입니다. 테크놀러지 영화가 판치는 요즘에 불교와 어머니라는 소재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가장 한국적인 정서란 생각이 들더군요. 어머니라는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인간 본연의 갈구와 근원적인 성찰을 하게 하고 정감이 흐르는 아날로그적 영상에 담아 이 사회를 따뜻하게 덥혀주고 싶었습니다."

주경중(43) 감독은 '동승'의 기획 의도를 이렇게 밝힌다. 아직 개봉전인데도 20여개 이상의 외국영화제에 초청될 정도로 호평받는 이유를 묻자 "한국 사찰 특유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세계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 같아요. 영상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특히 전통양식의 건물이나 조각, 아름다운 사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상미에 외국인들이 '원더풀'을 연발하더라구요"라고 답한다.

영화 '동승'이 기록한 것은 해외영화제 초청만이 아니다. 대형 영화가 아님에도 제작기간이 7년이상이나 걸렸다. 제작비 때문이다. 제작사가 도산해 얼마간은 마땅한 투자자를 잡지 못해 갈등을 겪기도 했다. 불교라는 소재 때문에 흥행이 안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인지 선뜻 투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다.

"7년이란 세월이 '동승'이라는 화두를 안고 참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촬영이 중단될때마다 해인사, 통도사, 선암사 등 전국의 사찰을 돌아다니며 맛본 산사생활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어요. 치악산 구룡사에서는 2개월동안 기거하며 아침예불부터 저녁예불까지 스님들과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화면속에 녹아 있다고 자부합니다"

주 감독은 영화 '동승'에서 일반인들이 일단 어렵다거나 난해하다는 거부감이 안들게 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우선 보는 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철저히 자연광을 사용해 화면에 등장하는 영상을 최대한 아름답게 연출했다. 또 장면 전개를 빠르게 하지 않고 무언가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려고 했다. 또 영화적인 재미를 관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스님들과 사찰에서 함께 생활하며 전해들은 '포경수술'에 얽힌 에피소드들도 과감히 삽입시켰다.

3월 전국 사찰 순회하며 시사회

"그동안 사찰에서 귀동냥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만으로도 3~4편 정도의 불교영화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고품격 불교 코메디 영화를 한 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4월 25일 전국 1백개 스크린을 통해 동시 개봉예정인 영화 '동승'은 3월 사찰 순회 시사회를 갖는다.

올해 영화관을 뜨겁게 달굴 불교 영화가 있다. 이미 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동승'(4월 25일 개봉)과 축구를 통한 종교간의 화합을 담은 '보리울의 여름'(3월말 개봉)이다. 두 영화를 각각 연출한 주경중 감독과 이민용 감독은 영화계에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은 중견으로, 불교적 소재를 스크린에 담아 대중화하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웠다.

'동승'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동자승 도념의 애틋함을 그렸고 '보리울의 여름'은 보리울 마을의 우남사팀과 인근의 수류 성당팀이 힘을 합쳐 읍내 도대표 축구부 아이들에게 대항한다는 내용이다. 영화는 '어머니'와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간의 근원적 삶에 대한 성찰, 화합과 상생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불교'에는 영화화하기 좋은 소재가 무궁무진 하다. 흥행과 대중성이 적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기 일쑤인 가운데 과감하게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를 기획·연출한 이들의 열정이 더없이 소중하다.





"스코어 '무승부'에 의미 있어요"

종교간 존중·이해 담으려 노력
함축미 담긴 대사들 '감칠맛'

"이민용 감독님, 스님이 감독인 사찰축구팀과 신부님이 감독인 성당 축구팀이 겨루면 누가 이길까요?" "3월말 개봉되는 '보리울의 영화'를 보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해 몇차례 감독을 졸랐더니 대답이 너무 싱겁다.

"무승부에요" 얼핏 생각에 영화의 극적인 요소를 노린다면 역전승이 훨씬 더 재밌고 짜릿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승부'란 말 한마디에 이 영화의 주제가 담겨 있는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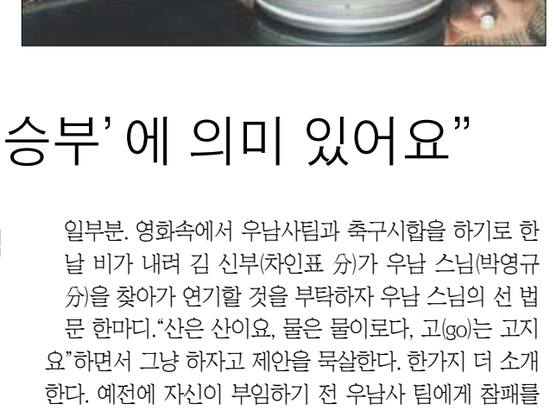
"이 두 팀의 경쟁에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지역간, 종교간의 갈등을 축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극복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선출된 노무현 대통령도 바로 지역주의를 타파하려고 노력했잖아요. 사회가 갈등과 대립에서 화해와 화합으로 변해야 한다는게 이 영화가 던지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 감독이 영화개봉전인 3월초쯤 신부들과 스님들의 축구 시합을 주선키로 마음먹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화합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중에서도 서로의 종교를 존중해 주고 이해해 주려는 노력이 커진다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자비와 평화가 공존하는 '보리울 마을'이야 말로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소우주'라 봐도 됩니다. 즉 화합의 상징이지요"

이민용(46) 감독은 특히 '보리울의 여름'의 시나리오를 쓴 이만희 작가가 스님출신이기 때문인지 불교적 함축미를 지닌 대사들이 많이 등장한다고 소개한다. 그중 재미있는 대사 일부분. 영화속에서 우남사팀과 축구시합을 하기로 한 날 비가 내려 김 신부(차인표 分)가 우남 스님(박영규 分)을 찾아가 연기할 것을 부탁하자 우남 스님의 선 법문 한마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고(go)는 고지요"하면서 그냥 하자고 제안을 묵살한다. 한가지 더 소개한다. 예전에 자신이 부임하기 전 우남사 팀에게 참패를 했다고 들은 김 신부가 열심히 훈련시켜 다시 도전 하려고 우남 스님을 찾아가 결투(?) 신청을 하자 스님이 하는 말. "신부님, 스님들이 참선할 때 왜 눈을 반만 뜨는 '반개(半開)'를 하는지 아세요. 시선을 외부에 두지말고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 보라는 뜻이에요. 성당팀도 돌아가 반개 하면서 자신들의 실력을 가만히 들여다 보세요"

이 감독은 "이번 영화를 찍는데 귀신사 주지 스님이 큰 도움을 주셨어요. 사찰을 촬영장으로 개방시켜 주셨고 다도법, 장삼거는 법, 법구 위치 등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를 해주셨지요. 이런 각별한 스님의 배려 덕분에 좋은 영화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귀신사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 이번 영화에 등장하는 대웅전과 전각들을 다시 지어야 한답니다. 이번 영화 출연(?)이 마지막인 셈이지요"라며 아쉬워 한다.

이 감독은 9월부터 사회정의를 저버리고 횡포를 부리는 권력자들과 맞서 싸우는 사나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스릴러 '신들의 휴일'을 제작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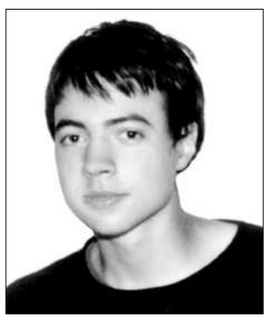


글=김주일기자 / 사진=박재완기자

릴레이 수행일기

휴 리처드(下)

캠브리지大 고전전공 2년



"누구를 만나든 베푸는 마음을 연습하라. 올라오는 마음을 미륵존여래불 전에 바치는 마음을 연습하라."

이 중에서 제가 특별히 더 연습하려고 했던 것은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도량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 한 명을 상당히 꾸짖고 무시했는데, 그 때문에 제 얼굴이 어두워졌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공경심 부족한 마음을 바치고 그 친구를 부처님으로 보는 연습을 하루 동안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잠시동안 그 친구를 무시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바로 다시 무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할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겸손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저에게 엄청난 우월감과 잘난 마음을 갖게 하는 줄을, 그리고 그런 마음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꽤 충격을 받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지금 최소한 제 업장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아는 것 같고, 부처님께 훨씬 더 공경심을 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상대를 부처님으로 보는 것 연습

소심함 그대로 부처님께 바쳐

(영국에 돌아가서 5일 뒤) 부모님께 제가 포항에서 마음 닦은 것을 말씀해 드렸더니 부모님께서는 제가 한국에 가기 전보다 더 안정되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졌다고 인정해주셨습니다. 또한 제 소심한 마음 때문에 제가 세상에서 적응하며 살기보다는 도량에서 살고자 하지나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소심한 마음을 닦아 세상을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주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재웅법사님의 영문판 <닦는 마음 밝은 마음 (Polishing the Diamond, Enlightening the Mind)>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25일 뒤) 캠브리지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소심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바치니까 예전보다 그 마음을 훨씬 더 잘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충분히 말씀을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법사님 책을 모두 읽으시고는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테면 당신들은 '현재 현재 충실하라'는 법문에 완전히 동의하시고, 저에게는 제가 친구들을 약간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더 존경하고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을 연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소심한 마음에 대해서는 억지로 자신감을 가지려 하기 보다는 그 마음 올라올 때마다 '미륵존여래불' 하면서 부처님께 마음을 바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부처님께 마음을 바친다(공양 올린다)'는 것이 참 좋은 가르침이라고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국의 도량에 가서 마음 닦을 수 있기를 발원하며,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닦아서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필자인 박병곤 부산일보 논설위원은 바쁜 언론 활동 가운데서도 조계종 포교사고시에 수석 합격하는 등 말 보다는 실천으로 불법을 전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불자다.

멍한상태·번뇌 '정신차림'이 해결

'컴팩트化 육바라밀 수행법' 특징

논리적 가르침 지식인층에 인기

겨울다운 강추위가 기승을 부린 5일, 부산 남산동 법기선원(선원장 명인)에는 불교다운 불교, 수행다운 수행을 실천하겠다는 열기로 가득했다. 정법을 흥기시킨다는 의미의 법기회(法起會) 정기법회가 열린 이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모여든 회원들의 진지함은 강정진(70) 지도법사의 법문과 질의 응답으로 두 시간 넘게 이어졌다.

94년 말, 서울대 불교동아리 선우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수행모임에서 출발한 법기회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서 정기법회를 연다. 모두 취암 강정진 법사의 지도를 받으며 정진을 이어오고 있다. 수행 점검을 위해 지도법사의 법문과 문답으로 진행되는 것이 법회의 특징이다.

"중생의 24시간은 무기와 번뇌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멍하게 있는 무기(無記)와, 육근(六根)을 통해 들어오는 경계가 일으키는 번뇌 둘 다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다운 수행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교는 번뇌만을 강조하고 무기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무시합니다."

강정진 법사의 법문이 시작되었다. 강 법사의 금강경 해설서 집필로 다른 지역의 법회가 당분간 열리지 못해 이날 법회는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자하는 회원들의 마음이 더욱 간절해 보였다. 강 법사는 무기와 번뇌로 인해 아뢰야식에 남겨진 흔적이 업이 되고 그 업이 인(因)이 되어 과(果)를 낳고 그로 인해 윤회가 거듭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한가지 수행방편(예를 들면 '옴마니반메훔')에 집중하고 염하며 호흡, 결인, 입 천정에 혀붙이기 등의 정신차림을 통해 가아(假我)가 주체가 되어 무기와 번뇌를 반복하는 중생의 속성을 진아의 속성으로 바꾸는 것이 수행이라고 말했다.

법기회는 이처럼 수행의 정의, 수행방법, 수행의 단계와 삼매에 대한 명쾌하고 논리적인 설명과 아울러 수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수행으로 인한 상기가 되거나 피로가 올 경우 수행방편인 '옴마니반메훔'에 멜로디를 붙여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피로를 없애고 신심을 새롭게 일으켜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장치가 된다.

이날 강정진 법사 특유의 논리적인 법문은 더욱 관심을 끌었다. 뉴튼의 운동관성을 적용시킨 '삼매관성', 한 장에 많은 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컴팩트디스크를 비유, 축약된 바라밀 수행을 의미하는 '컴팩트화 육바라밀수행' 등은 귀를 솔깃하게 한다. 강 법사는 법문과 대답에서 정신차림, 수행방편, 호흡, 결인, 혀 붙이기, 멜로디 듣기, 왼손으로 수세기 등이 함축된 컴팩트화 육바라밀수행법은 결국 성불할 수밖에 없는 수행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설법과 문답을 통해 단계별 수행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법기회의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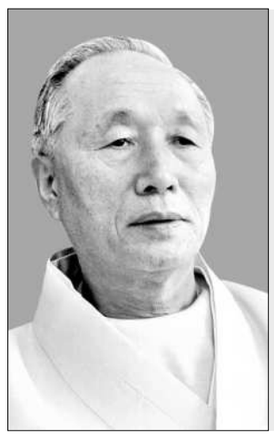
유여열반 아라한과를 이룬 후에 최고의 어려움은 4상을 항복받는 것인데 4상(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수행방편으로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육바라밀 수행은 4상을 조복받을 수 있는 수행법으로, 별도의 4상 조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무여열반에 이르도록 하는 최상의 수행법이라는 것이다.

10년째 법기회에서 수행을 이어온 윤종국(35, 서울대 수리과학부 연구원)씨는 "무기와 번뇌에 동시에 대처하는 수행법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고 말했다. (02)878-1843

부산=천미희 기자

주제가 있는 수행현장

법기회 '무기와 번뇌' 평정



법기선원 강정진 지도법사

목숨 바친다는 각오로 정진해야 깨달음 얻어

"불교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야 완성의 경지입니다. 하나를 모르면 아무 것도 모르는 게 불교니, 목숨을 바친다는 각오로 수행을 통해 중생에서 벗어나 여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강정진(70) 법사는 법회를 마치며 "여러분이 성불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제자들에 대한 세세하고 자상한 보살핌을 내비쳤다. <영원한 대자유인>(경서원 펴냄) 집필을 계기로 법기회와 서울대 불교수행모임을 지도해 온 강 법사는 요즘 금강경 해설서 집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금강경이 변형되지 않고 남아 있어 그래도 불교에 희망이 있다"며 "기존의 해설서가 범한 우를 바로잡고, 금강경의 진의를 드러낼 책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 법사는 앞서 저술한 <영원한 대자유인>에 대해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절판을 선언했을 정도로 금강경 해설서 저술을 정법을 바로 펴기 위한 귀중한 불사로 여기고 있다.

수행 캘린더

■**금강경 겨울특별법회**=수원 경기불교문화원은 1~2월 동안 둘, 넷째 주 일요일 오후 1~4시에 금강경 겨울특별법회를 연다. 무심선원 김태완 선원장을 법사로 설법과 자유로운 질의응답으로 진행. (031)251-1083

■**철야 염불정진**=만일염불결사회는 1월 18일(매주 셋째 토요일) 오후 8시부터 철야 염불정진법회를 연다. 만일염불결사회 회주 보광 스님(성남 정토사 주지)의 지도로 염불정진 및 수행도중 의문사항 문답으로 진행된다. (031)723-9797

■**선도회 용인지부 참선법회**=선도회 용인지부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30분~4시30분과 매주 일요일 오전 7~8시(주 2회) 참선법회를 연다. (017)354-8112

■**참선 기초교실**=부산불교교육원은 1월 8일부터 1개월간 참선 기초교실을 연다. 주간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12시30분, 야간반은 매주 수요일 오후 7~9시에 열리며 내용은 선의 이론과 바른 자세, 호흡법, 마음 다스리는 법, 생활 참선법, 화두 참구법 등이다. (051)466-4080.

■**범어사 토요 참선**=범어사 토요참선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7~10시 범어사 설법전에서 지도법사 홍선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지도로 참선법회를 연다.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는 철야정진을 한다. (051)508-3636

■**선어록 입문 강좌**=서울 선어록 연구소는 1월 9일부터 두달간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선종 어록 소개 및 선독을 위주로 하는 '선어록 입문' 강좌를 연다. 강사는 송인성(선종 어록 언어 전공) 박사로 <조당집(祖堂集) 허사(虛詞) 연구> 외 선종 어록 언어연구 논문 다수가 있다. (02)597-0787

■**자비신행회 참선**=광주 자비신행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2~5시 및 7~9시, 토요일 오후 3~5시 화순 만연사 주지 정과 스님의 지도 아래 참선정진을 한다. (062)234-2732

■**맑고향기롭게 주말 철야정진**='맑고향기롭게'는 1월 25~26일 서울 길상사에서 주말 선수련회를 연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일요일 오후 3시까지 철야로 진행된다. (02)741-4696

■**동계 참선수련회**=창원 서원사는 1월 21~23일 주지 지하 스님의 지도로 동계 참선수련회를 연다. (055)291-6405

구수한 춤사위에 마음도 푸짐



◇7일 대구 희망의집에서 노인들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를 하고있는 동화사 부도암 신도들.

바라밀현장

대구불교사회복지회 '희망의 집'

7일 오전 9시. 대구시 남구 이천동에 소재한 대구불교사회복지회(대표 지도스님) '희망의 집' 문이 열리자마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한다. 매주 화·금요일은 희망의집 노인 무료급식이 있는 날. 오후 12시부터 시작되는 배식시간이 무려 3시간이나 남았지만 어느새 모여든 노인들로 급식소는 이미 가득차 버렸다. 혼자 집을 지키던 노인들이 말벗을 찾아 일찌감치 급식소로 나온 것이다.

배식을 위해 동화사 부도암에서 온 40여 자원봉사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장도 보고 밑반찬을 만드는 등 점심공양 준비에 여념이 없다. 간혹 할머니들은 부식 재료 다듬는 것을 거들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정담을 나누기도 하지만 노인들이 미리 급식소를 찾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화요일마다 열리는 민요봉사를 기다리는 것.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은 김말선(42, 대구 만촌동), 김순기(52, 대구 수성동) 보살의 민요 노래 가락과 신명나게 두드려 대는 장구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희망의 집은 단순한 무료급식소가 아닌 노인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한참 신명난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도 춘다.

이렇듯 신명과 함께 따듯한 기운이 묻어 나오는 무료급식소 안의 풍경은 구수한 된장국 내만큼이나 정겹다.

오늘의 메뉴는 흰쌀밥에 어묵. 고등어조림, 된장국, 김치 등 식탁이 제법 푸짐하다. 지역에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많아 이곳에서 먹는 점심 한 끼가 그날의 식사 전부인 노인들이 대부분이라 밥을 넉넉히 푸게 되는 것이다.

희망의집 박선규(69, 홍련화) 소장은 "이곳에 오는 분들 대부분이 외로운 어르신들입니다. 여기 오시는 노인들이 사람 사는 재미를 느끼고 마음이라도 편안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두들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총 20여 봉사단체의 500여 회원들이 서로 돌아가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희망의 집은 지난 98년 9월 대구시 남구 이천동 동사무소를 개조해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매주 화, 금요일 주2회 2000여 노인들에 경로급식을 진행해 오고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도시락 배달도 일주일 내내 해준다. 특히 매주 토요일은 대구 달성공원으로 나가 야외에서 1천여 노인과 노숙자들에게 무료급식을 한다. 전국적인 한파가 몰아닥친 지난 4일에도 '노인의 전화' 소속 봉사자 40여 명이 급식봉사에 나서 추위에 떠는 노숙자들과 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했다.

지금까지 희망의집에서 4년이상 자원봉사를 해 '봉사보살'로 통하는 장금조(57, 심진행) 보살은 "한 달에 한 번 빠짐없이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혹시 사정이 생겨 빠지게 되면 궁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 꼭 나오게 된다"면서 "이제는 희망의집 봉사활동이 불교공부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고 환희심을 냈다. 희망의집=(053)475-4504

대구=박원구 기자

단순 급식소 아닌 문화공간 활용

매주 1천여 노인·노숙자에 점심



무료급식 진두지휘 최종숙 보살

"봉사는 결국 나 자신의 공부"

"남을 위한 봉사는 결국 나 자신의 공부거리입니다."

올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쳤다는 4일에도 변함없이 달성공원에서 노인무료급식봉사활동을 벌인 대구불교사회복지회 소속 노인의전화 소장 최종숙 보살(65, 법보화)은 지난 6년여 동안 한결같이 매달 첫째 토요일은 달성공원에서 노인무료급식 봉사를 진두지휘해 오고 있다. 무료급식 자원봉사 외에도 96년 8월부터 노인의전화 소장 직책을 맡고 노인상담분야 봉사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는 최 보살은 "가끔 봉사활동이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무료급식 봉사와 노인 전화상담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좀더 많은 불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해 이타행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피력했다.

心 마음비추기

마음 바쳐야 공덕 이룰수 있어

가끔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찾아와서 수행법을 묻는 경우가 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렇다.

사십쯤 되어 보이는 신사 한 분이 수행법을 알려달라고 방문하였다. 우선 부처님께 절이라도 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자고 했더니 자신은 아직 종교를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절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수행법만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귀하게 찾아온 사람이기에 언짢은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욕심 채워주는 것이 보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 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처님 당시 아주 가난하여 옷이라고는 한 벌밖에 없는 두 부부의 이야기였다.

입을 옷이 한 벌밖에 없어서 평소에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다 외출할 때는 서로 번갈아가며 입어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빈곤한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심은 대단하였다. 이들의 소원은 남들처럼 자신들도 부처님께 무언가 보시를 올리고 자기 집에 부처님을 초청하여 법문을 듣는 것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끝에 너무도 아깝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전재산과도 같은 헌 옷 한 벌을 부처님께 바치고 그들의 소원을 말씀드리기로 하였다.

남편은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부처님께 찾아가 옷을 바쳤다. 그들의 신심을 접하신 부처님은 매우 기뻐하셨고 초청에 응해주셨다. 남편은 너무도 감격하여 수도원을 뛰어나오며 "아, 나는 이겼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때마침 파사익왕이 부처님을 뵈러 수도원을 방문하다 그의 외침을 듣게 되었다. 왕은 사정을 듣고 너무도 장한 일이라고 칭찬하며 그에게 얼마간의 재산을 내려주었다.

이를 보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까운 것 하나마저도 진리를 향해 던져버린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이며 그는 그 신심으로 인해 곧바로 그 공덕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라고 하시면서 신심의 중요성을 설하셨다.

신심을 갖지 못하고 방문했던 그 신사는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고 하면서 쑥스럽게 절을 하고는 이젠 절에 다녀야겠다고 말하면서 돌아갔다.

요즘 들어 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이들이 절이나 수행처를 찾아간다.

마음공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일과 같다면, 부처님께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바치는 것은 농부가 밭에 거름을 주고 물을 뿌리는 일과도 같다. 마음공부에만 치중한 나머지 부처님을 향한 신심은 등지고 있지 않은지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寂然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텐진 팔모 스님 (下)

(티베트 동규 가찰 링 원장)

남방권 비구니 스님들 위해 헌신



◇달라이 라마와 함께 한 텐진 팔모 스님(달라이 라마 오른쪽)과 제자들.

석굴에서 정진하던 어느해 겨울, 눈보라가 7일간 내린 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캉그라지역의 여러 마을이 눈사태로 파괴되거나 고립되었고, 팔모 스님이 수행하던 석굴에도 수십 톤의 눈더미가 덮쳤다. 굴안을 덥혀주던 난로는 굴뚝이 부서져 불을 피울 수 없었으며, 칠흑같은 어둠과 추위 속에서 점점 공기가 희박해져갔다.

그러나 팔모 스님은 침착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스승 캄트롤 린포체께 기도를 올렸다. "중음(中陰; 죽음이후 새로 태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저를 보호하고 인도해주십시오." 이때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굴 입구의 눈을 뚫고 밖으로 나가라."

팔모 스님은 깜깜한 굴문 앞을 가로막은 빙벽을 깨기 시작했다. 석굴 안에는 곧 눈이 가득찼다. 얼마나 그렇게 빙벽을 깨나갔을까. 앞쪽의 어둠이 서서히 걷히며 조금씩 밝아졌다. 드디어 극적으로 바깥 세상을 보게 된 스님은 깜짝 놀랐다. 석굴도 나무도 다 사라진 것이다. 오직 천지가 하얀 벌판이었다. 드디어 기나 긴 각고의 토굴 정진이 '깨달음(enlightment)'이라는 열매를 가져다 준 순간이었다.

불자들은 팔모 스님에게, 용맹정진하던 시절과 동규 가찰 링 사원을 짓고 비구니 양성을 위해 순회 모금강연을 하는 요즘을 비교할 때 언제가 좋은지를 질문하곤 한다. 이에 팔모 스님은 "수행자는 홀로 정진할 때 잡다한 일에 마음을 빼앗길 겨를이 없어 발전이 빠릅니다. 반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는 혼자 있을 때는 기르기 힘든 덕성을 배울 수 있어요. 보시하는 마음, 인내심, 자비심 같은 것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들숨과 날숨처럼 이 두 가지 생활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팔모 스님은 수술에 임한 외과의사처럼 한 곳에 집중하는 동시에 허공처럼 넓고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여유있는 마음의 큰 틀속에서 매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두 알아채는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좌선과 생활이 하나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불교란 우리 마음과 삶을 바꾸려는 것이기에, 수행은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가르침이다.

1980년 입적한 스승 캄트롤 린포체의 유언에 따라, 92년 주석하던 타시종 사원에서 나와 동규 가찰 링 비구니 사원을 건립한 팔모 스님은 여성불자를 위한 국제여성수행센터 설립을 위해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티베트 및 남방불교권의 비구니 수행을 꽃피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전세계로 전법과 모금활동을 다니고 있다.

김재경 기자

들숨 날숨처럼 생활 조화 이루어야

매순간 알아채는 깨어있는 마음 필요



◇텐진 팔모 스님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3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인을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2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표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 문을식(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박 종(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인환스님(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김호귀(동국대교수)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오국근(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주간반·통신반) (50명) (50명) (5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우리춤과(30명) · 한문학과(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2년 12월 15일~ 2003년 2월 3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 매주 수요일 오전10시(미술반) · 매주 수요일 오후4시(우리춤반) · 매주 수요일 오후7시(한문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학일시 불교학과 : 2003년 2월 8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한문학과·불교미술학과·우리춤학과 : 2003년 3월 5일, 6일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쉼터 064)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성직자 양성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석경사 삼학불교대학 신입생모집

附設 전통내전강독연구원 · 불교전통의식교육원

강의안내 수강생모집

I. 승려반
- 1학년 1년과정
1학기 3월 ~ 7월 (5개월)
■ 강의과목
● 내 전 : 초발심 자경문, 사미율의
● 의 식 : 도량석, 종성, 각단예불, 삼보통청 및 각단 불공의식
2학기 9월 ~ 1월 (5개월)
■ 강의과목
● 내 전 : 사미율의, 치문
● 의 식 : 상용영반 및 각종시식
- 2학년 1년과정
1학기 3월 ~ 7월(5개월)
■ 강의과목
● 내 전 : 치문, 서장
● 의 식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및 상단의식
2학기 9월 ~ 1월(5개월)
■ 강의과목
● 내 전 : 서장 선요(도서 · 절요)
● 의 식 : 지장청, 화청, 관음시식 및 천도재 의식종합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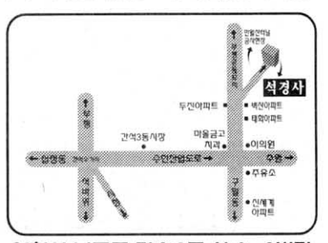
II. 법사반
- 1학년 1년과정
1학기 3월 ~ 7월 (5개월)
■ 강의과목
● 내 전 : 계초심학인문, 발심수행장, 자경문
● 의 식 : 도량석, 종성, 각단예불, 축원문, 삼보통청
2학기 9월 ~ 1월 (5개월)
■ 강의과목
● 내 전 : 불교학개론 및 원시불교 사상
● 의 식 : 관음불공, 신장불공, 지장불공 및 각단불공
- 2학년 1년과정
1학기 3월 ~ 7월(5개월)
■ 강의과목
● 내 전 : 석문의법 의식문해설
● 의 식 : 상용영반 관음시식, 각종시식 및 시다림의식
2학기 9월 ~ 1월(5개월)
■ 강의과목
● 내 전 : 금강경 및 대승불교사상
● 의 식 : 천도재의식

■ 입학대상 : ① 승려반 00명 ② 법사반 00명
■ 교육기간 : 2년과정
■ 개강일시 : 2003년 3월 3일
■ 강의일시 :
● 승려반
- 일자 : 매주 월, 수, 금
- 시간 : 오후 6시 ~ 9시(3시간)
● 법사반
- 일자 : 매주 화, 목, 토
- 시간 : 오후 6시 ~ 9시(3시간)
■ 재가불자 및 직장인을 위한 불교교리 강좌를 실시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것은 교무처에 문의바람

- 통신생 모집 -

석경사 삼학불교 대학 개교, 입학 안내
2003년 3월 3일(음력 2월 1일) 월요일(오후3시) 개교
※ 석경사 행자모집 中 ※

■ 경전 및 의식문에 나오는 한문을 한자한자 풀이하여 강의함으로 한문을 모르시는 분도 수강하시는데 불편없으시니 많은 동참바랍니다.



인천시 남동구 만수3동 산 2-2번지

석경사 삼학 불교대학 석경사 032)463-1630 교무처 032)462-7322 석경사주지 해월 삼학불교대학 학장 도종 합장



입법계품의 이념(理念) ①

입법계품에 해당하는 범어의 원래 명칭은 간다뷰하(gandavyuha)이다. 이 간다뷰하 학자에 따라 해석이 실로 여러 가지이지만, 예로부터 대체로 '여러 가지 꽃으로써 아름답게 장식한다 [雜華嚴飾]' 는 의미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러한 해석은 선재동자가 찾아가는 53선지식을 각각 식물의 꽃에 비유하여 그것을 경전의 이름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53인의 선지식들은 각각 자신들의 생활영역에서 진실한 가르침에 따라 보살행을 실천하여 자신들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워 낸 존재이기 때문이다.

입법계품의 첫째가는 주제는 선재동자의 구법여행이다. 선재동자라는 한 사람의 구도자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서 53인의 선지식을 차례로 찾아가서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보살행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 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다. 선지식을 찾아갈 때마다 묻는 내용은 언제나 같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양한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선지식들은 제각기 나름대로 그 물음에 대답하여 법을 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법계품의 교설은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이 다양한 현실세계의 삶을 살아가면서 보여야 하는 보살의 이상적인 여러 가지 삶에 대해 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법여행은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 보리심을 발하고, 그의 지도에 의해 구법여행에 나서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하여 최후에 보현보살을 만나 법계에 들어가는 수행을 완성한다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계라고 하는 말은 진여 · 제법실상 · 실제(實際)와 같은 불교용어와 유사한 것으로서, 진리의 세계 혹은 진실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법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말은 '깨달음을 성취한다' 또는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 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원래 gandavyūha 라고 하는 범어로 되어 있던 것을 60권 혹은 80권 화엄경에서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범어로 되어 있는 '간다뷰하' 만을 번역하여 40권으로 한 화엄경에는 그 부제(副題)가 '부사의한 해탈경계에 들어가는 보현행원품' 으로 되어 있다. 법계는 바로 부처님의 경계이며, 그 경계는 바로 해탈 열반의 경계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부사의한 해탈이라고 한 것은 입법계품에서 설하고 있는 해탈 열반이 성문의 수행도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과는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은 바로 성문의 수행도에서 말하는 열반은 혼탁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떠나서 얻는 것이지만, 보살도의 해탈은 현실에 순응하면서 현실을 초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사의한 해탈이야말로 부처님의 경계이며, 이것에 순응하여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현의 행원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제를 통해서도 입법계품의 내용이 대승불교의 입장을 강하게 표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입법계품이 보현행원이라고 하는 보살도를 가지고 부사의한 해탈경계인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는 법을 설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53선지식 식물의 꽃에 비유

지혜로 덕 실현이 보현행

그렇다면 보현행원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인가. '보현' 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범어는 Samantabhadra 이다. '널리 뛰어나다' , '두루 길하고 상서롭다' 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의미로 쓰이며, 보통 보현 또는 변길(遍吉)이라 번역된다. 또한 이상적인 불도수행을 찬양하는 뜻에서 대승보살의 깊은 용맹심과 대자비의 광대함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가 대비이타의 대승보살의 이념과 부합되므로 적극적인 보살행을 강조하기 위해 입법계품에서 '큰 자비행[大行]' 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의 이름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다.

보현이라고 하는 말이 행하는 덕이 두루 널리 미치어 항상 일체의 선(善)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자리이타가 원만한 대보살이나 대승보살행을 의미하는 호칭으로 어울리는 것이라 생각된다.

보현행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혜로써 법을 잘 관찰하여 거기에 순응하면서 스스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계를 생각하고, 부처님의 훌륭한 덕을 널리 실현해 나아가는 것이다. 입법계품은 이러한 보현행의 체현자를 특정 보살의 이름으로 삼아 경전의 으뜸가는 보살로 삼는다. 이렇게 해서 경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부여한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보현보살은 대승보살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부처님의 덕을 널리 실현하는 대자비의 보살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아가는 보살이다.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그와 관련된 보살행을 강조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교수>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㊷

작용에 맡겨 두어라

대덕들이여! 지 · 수 · 화 · 풍 4대로 이루어진 육체는 무상하며, 지라 · 위장 · 간 · 쓸개 · 털 · 손톱 · 이빨에서는 오직 모든 것이 헛된 모양임을 볼 뿐이다.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쉴 수 있는 것을 깨달음의 나무라 부르고, 그대들 한 생각 마음이 쉴 수 없는 것을 무명(無明)의 나무라 부른다. 무명에는 머물 곳이 없고 그 시작과 끝이 없다. 그대들이 만약 생각 생각에 마음이 쉴 수 없다면 곧 저 무명의 나무에 오르고 6도 4생에 들어가 털 나고 뿔 달린 짐승이 될 것이지만, 그대들이 만약 쉴 수 있다면 곧 바로 깨끗한 법신(法身)의 세계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한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곧 바로 깨달음의 나무에 올라서 삼계에 신통변화하며 뜻대로 화신(化身)을 나투고, 법(法)의 즐거움과 선(禪)의 기쁨을 맛보며, 몸에서는 저절로 빛이 날 것이다. 옷을 생각하면 비단 옷이 천겹으로 걸쳐지고, 밥을 생각하면 백가지 맛의 음식이 고루 갖추어 질 것이고, 다시는 뜻하지 않은 병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에는 머물 곳이 없으므로 얻는 것도 없다.

무엇을 가지고 손이라 하는가? 손톱 · 손가락 · 손등 · 손바닥 · 손목으로 이루어진 살갗과 뼈가 손인가? 아니다. 손 구실하는 것이 바로 손이다. 손 구실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손 모양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손이라고 할 수 없다. 쥐고 펴고 가리키고 들고 내리고 하는 손 구실하는 것이 바로 참된 손이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모양이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실이 바로 손이다. 보통 우리는 손이라고 하면 다섯 손가락을 가진 한덩이 뼈와 살을 손이라고 여길 뿐, 손 구실은 무시하고 있다. 손 모양을 따라가서 진실한 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모양에 집착 진실 놓치지 말아야

무엇이 눈인가? 눈꺼풀 · 눈썹 · 각막 · 수정체 · 망막 · 시신경으로 이루어진 살덩이가 눈인가? 아니다. 보는 것이 바로 눈이다. 본다는 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눈 모양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눈이 아니다. 눈꺼풀을 깜짝이고 눈알을 움직이며 온갖 색깔과 온갖 모양을 이리 저리 순간 순간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진짜 눈이다. 그러므로 모양으로 드러나는 눈이 진짜 눈이 아니라, 본다고 하는 모양 아닌 눈 구실이 바로 참된 눈은 아니며, 느끼되 느낌은 아니며, 욕망하되 욕망은 아니며, 슬퍼하되 슬픔은 아니며, 기뻐하되 기쁨은 아니며, 분노하되 분노는 아니며, 즐거워하되 즐거움은 아니며, 사랑하되 사랑은 아니며, 미워하되 미움은 아니며, 애착하되 애착은 아니며, 싫어하되 싫증은 아닌, 구실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참된 마음이다.

마음은 생각 · 느낌 · 욕망 · 슬픔 · 기쁨 · 분노 · 즐거움 · 사랑 · 미움 · 애착 · 싫증 등의 모양은 아니지만, 이러한 모든 모양과 더불어 모양과 둘이 아니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르게 보면 모양 아닌 마음이 보이고, 삿되게 보면 마음은 없고 모양만 있을 뿐이다. 모양을 따라 가는 것은 피곤한 일이고, 모양이 없는 작용인 마음에 맡겨 두면 편안히 쉬는 것이다.

따라서 쉬고 싶으면 모양에 머물지 말고 모양을 가지거나 버리려 하지 말고, 다만 작용에만 가만히 맡겨 두어라.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과

■ 김태완 선생의 <금강경> 특강
1,2월.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수원경기불교문화원 2,4주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016-456-8957(강보영) http://www.mindfree.net/



삼합(三合)에 의해 생명은 시작

윤회 사상은 불교에서 중요한 사상이며 윤회 사상은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의 생물에 적용된다. 사람의 생명 시작을 설명하는 사상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발생과 탄생도 윤회 사상이 적용된다.

불교의 유식학(唯識學)에 의하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정신은 분리되어 육체는 사라지고 정신은 남게 되는데 이것을 중유(中有)라고 하였다. 여기서 중유(中有)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천안(天眼)으로만 볼 수 있는 '정신적 존재' 이다.

중유(中有)는 살아있을 때의 습(習)에 의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며 다시 육체를 갖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남녀(장차 부모가 될 사람)가 음행(성관계)하는 것을 훔쳐보게 되고 드디어 모체의 근문(생식기) 속으로 들어가 수정란과 합쳐지게 된다. 이때 중유(中有)가 장차 태어날 부모를 만날 때는 아무렇게나 우연에 의하여 만나는 것이 아니다. 중유(中有)의 업(業)과 부모와의 인연에 따라 만나게 되며, 선업(善業)을 많이 포함한 중유(中有)는 사물을 옳게 보는 힘이 있어 좋은 인연으로 좋은 부모를 찾아 태어나지만, 악업(惡業)을 많이 포함한 중유(中有)는 사물을 바라보는 힘이 미약하여 사람이나 동물을 가리지 않고 아무 몸이나 찾아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불교에서는 생명의 시작은 제1 조건인 어머니의 난자, 제2 조건인 아버지의 정자 그리고 제3 조건인 죽은 사람의 '정신적 존재' 인 중유(中有)가 서로 합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명의 시작을 삼합(三合)이라고 하며, 생명은 수정하는 순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시작한 인간의 생명체는 8단계를 거치면서 발생의 과정을 밟는다.

제일 첫 단계를 나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시기는 수정 후 첫 7일 동안을 말하며 이 시기는 아뢰야식(중유가 수정란과 합친 이후는 이름을 바꾸어 본유혹은 아뢰야식이라고 함)이 지(地), 수(水), 화(火), 풍(風)과 같은 에너지를 끌어들여 수정란을 분화시키는 단계라고 했다.

그 다음으로 부담, 폐시, 건남, 발나, 발모, 근위 및 형위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38주 동안 태아는 성숙을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38주간 완전히 성숙을 하고 다시 4일이 지나야 출생을 한다고 하였다.

'중유' 의 업과 부모의 인연따라 만나

생명체는 8단계 발생과정 거쳐

이상 불교에서 말하는 삼합(三合)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컴퓨터와 비유해서 말하면 이렇다.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로부터 주어지지만 그 컴퓨터를 작동하는 조작자(operator)는 정신적 요소인 망자의 중유(中有)라고 말할 수 있다.

■충남大 의대 산부인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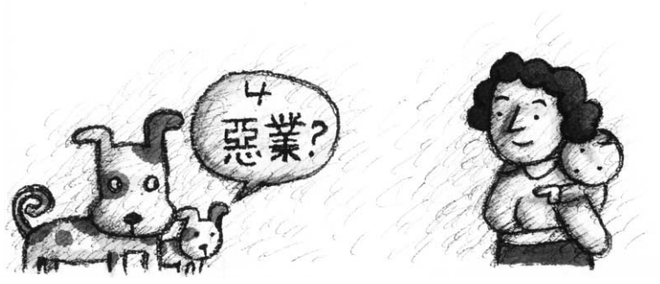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2화)

"믿음은 가장 큰 재산이다"

〈출전 : 별역잡아함경 제15:325경:2-482화〉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광화문의 촛불

무엇이 저많은 사람을 모이게…

2002년 6월부터 시끌벅적하던 광화문의 열기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선재는 나이와 성별을 떠나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묵묵히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월드컵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감동을 느낀다. 무엇이 저 많은 사람들을 쌀쌀한 날씨가 부끄럽도록 모이게 하는 것일까?

윤금이 씨 사건이나 노근리처럼 그동안 미군들 때문에 생긴 사고는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직업여성(?)'이 관련되었거나 사격장과 관련된 것이어서 선재의 피부에 와 닿은 것이 아니었다. 선재 주변에는 직업여성도 없었고 선재가 사는 곳이 사격장 근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중생이다. 선재의 여동생도 여중생이었던 적이 있었고 선재의 어머니와 이모도 그랬다. 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선재의 딸도 여중생이 될 것이다. 미선이와 효순이의 죽음이 이제 선재의 일이 되어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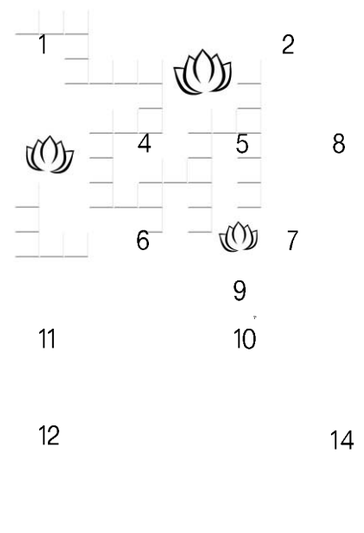
붉은 악마의 발자국 뒤로 이제는 두 여중생을 향한 자비의 촛불이 뒤따른다. <대지도론>은 자비에 대해서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자(慈)이고 중생의 고통을 연민하고 동감해서 그 괴로움을 제거해 주는 것이 비(悲)"라고 설명한다.

또 <수타니파타>는 "어머니가 자신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는 정"을 자비라고 설명한다. 선재는 <수타니파타>의 설명이 더 와 닿는다. 보살이 성불을 미루고 중생으로 남는 것은 두 여중생의 죽음을 보는 선재의 마음과 같다. 내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언제 자식을 내 몸처럼 여기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말이다.

이번 주말에는 스스로에게 기쁨 주고 고통을 제거해 주려는, 선재의 어머니 같은 촛불보살들께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공양해야겠다.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교리퍼즐



〈지난호 「교리퍼즐」 정답〉



가로 1.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법보사찰 2. 신라 진평왕때 원광법사가 화랑에게 준 다섯가지 교훈 4. 음력 10월 16일에서 이듬해 1월 15일까지 스님들이 선방에 모여 수행하는 것. 6. 염불을 하거나 절을 할때 돌리면서 수를 세는 법구. 7. 중국에서 만들어진 경전, 또는 불설이 아닌 경전을 일컫는 말. 10. 악마, 마왕을 뜻하며 도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를 통칭하는 말. 12. 운주사에 있는 많은 탑과 불상을 일컫는 말 14. 지장보살과 시왕을 모신 전각, 지장전, 시왕전이라도 함.

세로 1. 부처님이 화엄경을 설할 때 들었던 삼매, 해인정이라고도 함. 3. 60갑자중 양띠해인 올해를 가리키는 말 5. 보통 출가하지 않은 남자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 6. 염불을 하기 위해 사찰내에 만들어 놓은 당우 8. 승만부인이 석존께 자기 사상을 여쭙는 것을 내용으로한 경전. 9. 정명(淨名)으로 번역되는 부처님 속가 제자. 11. 33천중 하나로 부처님이 이곳 내원궁에서 현세로 내려오심. 13. 선의 종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법을 뜻함



◇남해 보리암은 망대(望臺)라 부르는 금산 정상의 바로 아래 암벽 기슭에 터를 잡았다.

길 끝에 바닷가…또 눈부신 절이

가볼만한 절 12곳 이야기 '발품' 으로 채집
수려한 사찰풍광·아름다운 문화재 함께

'바닷가에 절이 있었네'
글 박원식 / 사진 이한구
고요아침 / 9천5백원

깊은 산 깊은 골에서 천년의 역사를 보듬어온 절을 우리는 산사(山寺)라 부른다. 그렇다면 천년의 바람, 바다 내음 가득한 바다를 품에 안은 절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 분별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그 또한 절집에 다름 아니니.

최근 나온 <바닷가에 절이 있었네>는 한번쯤 가보고 싶은 바닷가 절 12곳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펼쳐냈다. 단순한 여행서가 아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각종 르포와 여행기를 써 온 저자 박원식씨가 매월 발품을 팔아가며 공을 들인 끝에 얻은 수확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절의 역사와 그에 얽힌 이야기에서부터, 눈여겨 볼만한 문화재, 가는 길을 개인적 경험과 감상을 곁들여 독특한 필치로 소개한 에세이집이다.

"길의 끝에서 바다를 만나고, 절을 만났다. 파도처럼 들이치는 절의 풍광에 눈이 부시고, 바닷가 고찰의 향취에 새순이 돋아나는 듯 했다"는 저자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바닷가에 있는 절은 그 자체로 충분히 매력적이다.

밤이면 달이 뜨고 바닷물 위로 달빛이 흐르는 서산 간월암에서부터 붉디붉은 서해의 노을이 아름다운 강화 보문사, 수천 수만 마리 겨울새가 머무는 동해 감추사, 봄이면 동백꽃이 눈부신 강진 백련사, 바다가 마치 연꽃 방죽처럼 아득하게 펼쳐진 남해 보리암에 이르기까지 파도 소리가 있고, 고둥 소리가 있는 바닷가 절을 이야기 한다. 여기에 사진가 이한구 씨(월간 <사람과 산> 사진부 팀장)가 담아낸 풍광이 우리의 마음을 한층 여유롭게 만든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빛바랜 단청과 귀퉁이가 닳아버린 석탑, 아름드리 벚나무와 조화를 이룬 종각 등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도 다른 시각에서 만날 수 있다.

책 제목에서 풍기는 뉘앙스처럼 바닷가에 절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었다면, 또 복잡한 일상과 스트레스로 지쳐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우리 몸과 마음에 휴식을 제공해 줄 바닷가 절로 떠나보자. 넓고 푸른 바다가 보이는 바닷가 절로.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회당 대종사 기념 저작물 5권

진각종 '종조 탄생 1백주년 기념의 해' 회향



진각종 창종주 회당 손규상 대종사(1902~1963)를 기념하는 저작물 5종이 발간됐다.

2002년 회당대종사 탄생 백주년을 회향하면서 위덕대 출판부가 종단과 대학의 지원으로 펴낸 기념저작물은, 회당대종사의 일대기를 2권의 전기소설로 재구성한 <사람없는가 하였더니, 거기 한사람 있었구나>와 <회당논설집>, 회당의 생애와 사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회당사상과 진각밀교>, <회당사상의 내포와 외연> 등이다.

이 가운데 회당대종사의 일대기를 전기소설화한 <사람없는가 하였더니, 거기 한사람 있었구나>는 불교소설가인 강지훈씨의 노작이다. 강지훈씨는 이 소설을 마지막 작품으로 타계하여 유작이 되었다.

17년간 승속 오가며 겪은 구도기

"별 보지만 땅 딛은 현실 잊지 말아야"

'김정빈의 마음공부'
김정빈 지음
도솔 / 8천9백원



80년대 베스트셀러 <단>의 작가 김정빈 씨가 17년간의 구도기를 담은 <김정빈의 마음공부>를 펴냈다.

1985년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을 만나 불교에 귀의한 지은이는 89년 위빠사나 명상법을 접한 후 인도, 네팔 등을 순례하고 명상법을 배우기 위해 미얀마로 떠났다. 미얀마 '찬미에' 수도원에서 우 자나카 선사로부터 직접 명상 지도를 받은 그는 미얀마에서 돌아온 후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명상법을 강의했다. 또한 '현실에 굳건하게 뿌리내린 명상'을 깨닫기 위해 농부로서 버섯 농사를 짓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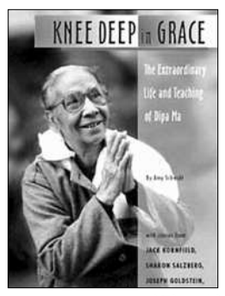
책에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 승속(僧俗)을 오가며 겪었던 고민과 깨달음, 작가이자 농부로서 살아가는 이야기 등 17년간의 인생역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출가와 무소유, 공(空)생활, 명상 수행에서의 단계별 체험 등 자신의 '마음공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간의 삶과 활동에 대한 종교의 우월을 믿던 '종교 절대주의자'에서 '인문주의자'로 복귀해 제3기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지은이는 "우리는 별을 바라보고 걷지만 동시에 땅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해외불서

스승 디파 마의 가르침



<스승 디파 마의 가르침(Knee Deep In Grace: The Extra Ordinary Life and Teaching of Dipa Ma)>은 주부들의 성자로 불리고 있는 디파 마 바루아(Dipa Ma Barua)의 삶과 가르침을 담은 책이다.

저자인 애미 슈미트(Amy Schmidt)는 디 파마를 어머니이자 주부로서 견처를 얻은 여성 수행자의 보기드문 표본으로 묘사하고 있다. 수행을 못하게 하던 남편이 죽은 후 마침내 위빠사나 명상을 하기 시작한 디 파마는 미얀마의 마하시 스님의 지도아래 빠른 성취를 얻는다.

얼마 뒤인 70년대 초에 유명한 위빠사나 법사인 조셉 골드스타인과 샤론 살즈버그가 그녀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이미 남방불교를 전하는 스승으로서 인도 캘커타에서 자신의 딸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이 책은 디 파마가 미국을 두 번 방문했을 때 저자가 접한 가르침과 일화를 중심으로 엮어졌다. 지은이는 디 파마의 가르침을 통해 "붓다의 길은 바로 지금 이 삶속에서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Present Perfect Books사 펴냄.

김재경 기자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 (02)737-0695

출판가 소식

'법회와 설법' 1월호 나와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간하는 <법회와 설법> 1월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신행지도 교안 '결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교리신행법문 '보시, 넉넉한 세상의 기초', 어린이법문 '새해에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담았다. 특히 이번 호부터 1년간 '경전법문'으로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스님이 <금강경>을 강설한다.(02)720-7064

'아름다운 발우공양' 발간



정토회 산하 사단법인 한국불교환경교육원에서 생명이야기 첫 번째권 <소심경에 깃든 아름다운 발우공양>을 펴냈다.

쌀 한톨, 물 한방울에도 천지만물의 노고가 스며 있음을 알고, 쌀과 물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다는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책이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과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유수스님, 밀양대 환경공학과 이병인 교수, 국립환경연구원 최훈근 박사의 발우공양과 생태적 삶에 대한 글과, 정토회에서 진행해온 쓰레기제로운동의 체험담이 담겨있다.(02)587-8997

공부·메모하는 다이어리



지혜의 나무 출판사에서 '2003년 불교 다이어리'를 선보였다.

불교 다이어리는 달력 양식을 차용해 월별·일별 주요 일정을 기록할 수 있게 했으며, 특히 각 쪽마다 불교 용어와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담아 놓아 다이어리를 펼칠 때마다 읽어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했다. 예불문과 반야심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등 불교의식문과 불교관련 종단 단체 사찰의 주소록도 수록했다.(지혜의 나무, 7천원)

랑승만 시인 시집 펴내



반신불수의 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시작에 몰두해 온 랑승만 시인(70)이 자신의 시 세계와 지난 삶을 담은 시집 <달빛 젖어 천강으로 흘러간 꽃에 관한 기억>을 발간했다.(자료원,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시아문
2	서장공부	김태완	여시아문
3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불광출판부
4	화	틱낫한	명진출판사
5	역사속의 한국불교	이이화	역사비평사
6	스승을 찾아서	법정 스님	동쪽나라
7	아비담마길라잡이	각묵·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8	평화로움	틱낫한	열림원
9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 금강경	우룡 스님	효림
10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낫한	김영사

도서 안내:(02)737-0695

이슬람은 폭력·무력의 종교일까?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이슬람사'

프랜시스 로빈슨 외 지음 / 손주영 외 엮음

시공사 / 2만 8천원



◇스페인 마드리드 에스코리알 수도원의 13세기 '찬송가 모음집'에 수록된 이슬람인과 그리스도교인의 류트 연주 장면.

아랍과 서구문명이 공유한 종교·문화적 뿌리 찾기

이슬람은 13억의 신도를 가진 세계 최대의 종교 중 하나이지만 가장 많이 왜곡되어 알려진 종교이기도 하다.

"이슬람교인가? 마호메트교인가?" "이슬람은 아랍만의 종교인가?" "이슬람은 폭력과 무력을 조장하는 종교인가?" 왜곡의 꼬리를 물며 이슬람은 14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 왔다. 이슬람은 본래 '순종과 평화'라는 뜻을 가졌다. 이러한 이슬람이 9·11 테러를 정점으로 세계 인류 평화를 위협하는 종교이자 문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말이다.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이슬람사>는 이슬람 연구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8명의 학자가 각자의 전공을 살려 집필한 것이다. '이슬람 역사의 발자취'와 '이슬람 문명의 정수를 찾아서'로 나뉜 이 책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이슬람을 조명한 것은 물론 문화적 경제적 공동체로서 이슬람이 갖는 의미를 되짚고 있다. 특히 프랜시스 로빈슨을 비롯한 학자들은 이슬람 세계와 서구를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두 문명이 공유하고 있는 종교적, 지적, 문화적 뿌리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마드리드 서쪽에 자리한 에스코리알 수도원의 13세기 '찬송가 모음집'에 실린 이슬람인과 그리스도교인이 함께 류트를 연주하는 그림을 예로 들어 중세 유럽이 주로 스페인을 통해 아랍·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깊이 받았음을 보여준다. 또한 최근의 음악사에 관한 한 조사에서도 플라맹고 음악이 발달한 배경에는 공연 형식이나 노래의 리듬, 규모에 이르기까지 아랍의 영향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슬람은 우리나라와도 일찍부터 교류해 왔다. 이슬람에 정통한 깐수정수일 박사는 우리와 이슬람과의 교류가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다고 말한다. '처용가'에 나오는 처용은 이슬람인으로 볼 수 있으며, 고려시대에는 개성 주변에 이슬람인들끼리 집성촌을 이루며 살 정도였다 한다. 또 개성에서는 '소주'를 '아락주'라 불렀는데 이것은 이라크에서 들여와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슬람은 유럽 문명보다 400여 년 앞선 1154년에 세계 지도에서 '신라'를 표기했으며 유럽은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한반도를 '코리아'라고 표기했다. 이는 이슬람 문명과 우리 민족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였는지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벗어 버리는데 더없이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매일 평화·여유롭게 지내려면…

호흡·스트레칭·감사 등 5가지 방법 제시

'마음의 고요를 찾아 떠나는 여행'

미나 해밀턴 지음 / 이상원 옮김

지혜의 나무 / 8천5백원

하루하루를 즐겁고 평화롭고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하지만 미국 뉴욕에서 11년 동안 스트레스 해소와 요가를 지도해 온 미나 해밀턴은 단언한다. <마음의 고요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이다.

번잡한 일상에서 고요함을 찾게 하는 이 책은 현대인의 삶에 응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로 구성됐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퇴근길에서, 근무 하면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의 일과를 여행하듯이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스트레스로 가득한 하루를 고요하고 평화로우며, 즐겁고 여유 있는 삶으로 바꾸어 줄 방법들을 알려준다.

저자는 마음의 고요를 찾기 위해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호흡, 스트레칭, 공감, 감사, 주위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것이다. 저자는 자신의 호흡을 제대로 관찰하기만 해도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다. 스트레칭도 무조건적인 살 빼기를 위한 헬스클럽에서의 운동과 달리 우리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위한 움직임이라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순간순간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한 공감과 감사, 새로운 인식은 우리의 사고와 마음 자세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는다.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호흡과 스트레칭,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 씀씀이는 일상의 어느 순간에든 적용되어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또한 이러한 것들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유머 넘치는 재미있는 글을 통해 독자와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독자가 바로 자신들의 삶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계 알람이 울릴 때 '아, 나는 살아 있다!'라고 생각하라. 샤워하는 것은 부드럽고 안전한 척추 스트레칭임을 자각하라. 현관을 벗어나기 전 3분 동안 정신을 집중하라. 교통체증이 심할 때 주위 풍경을 감상하라. 밥 먹는 시간은 감사함을 연습할 기회다. 서두른다는 생각이 들 때 다시 천천히 움직이라. 한가로운 산책으로 늑장부리는 기쁨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라.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감사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라. 식사가 준비되면 천천히 먹기를 연습하라 등이다.

이은자 기자

전문가 서평

'아메리카-미국, 그 마지막 제국'

이그나시오 라모네 외 지음 / 최병권·이정옥 엮음

휴머니스트 / 1만 5천원



美 오만함이 무모한 전쟁 불렀다

로마제국과 유사성·상이점 비교 분석

美 네 기둥 달러·인터넷·미사일·헐리우드

세계최강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미국은 왜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고 왜 이라크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악의 축'에 대해 끊임 없이 경계 하고 있는가? 미국의 세계 지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의 지배적 권력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부시 행정부의 국제 정치적 오만은 어디서 연유하는 것인가? 위의 질문들은 미국이라는 국가를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떠오르는 상념들이고 또 의문이다.

이번에 <아메리카-미국, 그 마지막 제국>라는 책을 읽으면서 위의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 책에서는 우선 미국을 '제국(empire)' 이라고 전제 해 놓고 로마제국과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제국(American Empire)의 이념적 배경은 기독교적 보수주의이고, 팍스 아메리카(Pax Americana)의 실체는 군사력에 있다. 미국의 연간 국방비(3800억 달러)는 나토의 군사비(1400억달러) 보다 많을 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국방비 40%에 해당하는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중심축이다. 세계 정치의 핵심국가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지표를 제공하고, 미국의 표준은 세계의 표준이다. 미국의 군사적 목표를 모든 국가의 군사적 목표로 전위(轉位)시킬 수 있는 강제력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에서 첫째가는 국가가 아니라 1등부터 190등까지의 국가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나라이다. 같은 논리로 미국의 대통령에게는 세계 여러 국가의 대통령, 수상 등 모든 지도자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미국 제국을 떠받치는 네 개의 기둥이 있다. 그것은 달러, 인터넷, 미사일, 할리우드라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날 대량학살(아메리칸 인디언)과 인간의 노예화(아프리칸 아메리칸), 영토확장(멕시코), 식민지 정복(푸에르토리코)에 관여했지만 지금은 대중매체의 영웅들을 파견하여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영화, TV연속물, 만화와 비디오, 패션, 도시개발, 햄버거, 커피체인점 등)말하자면 현대판 트로이의 목마인 셈이다. 미국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The axis of evil)의 악은 영혼의 타락, 존재론적 위협을 상징하는 파멸의 심연을 말하며, 자신의 신을 경배하지 않고 공격하고 도전하는 세력은 철저히 박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

헌팅턴의 문명충돌론은 기독교적 문명과 비기독교적 문명의 대립을 말하는 것이고, 미국은 기독교적 문명의 지도자를 말한다. 이러한 부시 독트린은 편향적이고 단순한 국제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국가이익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나쁜 놈들(bad guys)은 중국, 북한, 시리아, 이란, 이라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종교적 견해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블로우백(blow back:후폭풍 이라는 군사용어로 로켓과 같은 화학연료가 발사될 때 화기의 뒷면에 생기는 화염 섞인 폭풍으로 비밀리에 수행했던 군사·외교정책들이 낳은 예기치 못한 결과들)을 야기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9·11 테러 사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이다. 왜 알카에다와 빈 라덴이 생겼는가? 미국은 WTC빌딩테러에 대한 인과관계(因果關係)의 법칙을 인식해야 한다. 모든 국가간에는 자국중심주의적과 문화적상대주의적 사고가 있는데 미국은 전자(前者)에 해당하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치에 몰입해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다. 이 책의 저자들 대부분은 미국의 무모한 전쟁과 세계 지배자로서의 오만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SOFA의 불평등문제, 최근의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촛불시위 등은 우리국민들에게 있어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해준다. 지난 50년간 한국과 미국은 혈맹의 관계·한국근대화의 후원자·민주주의의 교사 또는 군부독재자의 음성적 지원자로서 그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해 왔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문제는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이성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세계변화의 흐름을 냉철하게 읽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바탕위에서 체계화 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주는 좋은 길라잡이라 할만하다.

■황진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이메리카-미국, 그 마지막 제국>은 이그나시오 라모네(프랑스 르몽드 디플로마딕 사장), 조셉 나이(하버드대학 교수), 벤자민 바버(루저스대학 윌트휘트만 센터 소장), 조나단 프리드랜드(영국 가디언 기자) 등 세계의 지식인 64명이 논문, 시평, 보도, 문화평론 등을 통해 발표했던 '미국'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차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ㄱㄴㄷ



불자는 법에서 태어난다

〈별여잡아함경〉제12· 638경에는 "그대들은 마땅히 알라. 나는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최후의 몸을 받았으며, 위없는 흘륭한 의사로서 독의 화살을 뽑아버렸느라. 이제 그대들은 모두 나의 아들이다. 그대들은 모두 나의 마음과 입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이다. 법으로 화생했으므로 그대들은 바로 내 법의 아들이다"란 구절이 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죽림정사에서 오백명의 제자들에게 수기를 주시면서 하신 설법으로 알려져 있다.

마치 유신론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이 가르침의 이면에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것은 당시 인도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4성계급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다. 4성계급이란 브라만, 크샤트리야, 바이샤, 수드라를 말하며, 이들은 신분에 따라 태어나는 방법도 다르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바라문은 범천의 입으로, 크샤트리아는 오른쪽 옆구리로, 바이샤는 우리들이 태어났듯이, 수드라는 엉지발톱 사이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범천의 입으로 태어나는 브라만이 가장 존귀한 존재로 대우받았다.

부처님은 선천적인 인간의 차별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그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 빈부귀천이 갈라진다고 본다. 모든 것은 자기가 만들고 자신이 책임지는 철저한 인과율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정해지는 계급제도란 사회적 횡포이며, 계급 모순과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 강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그것의 교정을 위해 노력한다. 인종, 종교, 성별, 지역에 따라 인간을 차별해선 안 되는 것이라 본다.

대승불교의 전개는 초기불교의 이상과 같은 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구현하고 사회적 불합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여기서 대승불교 운동가들은 불성을 발견하게 된다. 부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불성(佛性)은 인간의 가치를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평등의 원리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대승불교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중에서 초기불교의 정신을 여과없이 수용하고 있는 것이 〈법화경〉이다. 급년도 각 종단 대표자들의 신년 법어 중에도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나며, 부처님의 옷으로 덮어준다"(從佛口生 佛衣覆) 내용이 있다. 이것은 〈아함경〉에 나타난 부처님의 사상을 재현한 것이다. 한편으론 〈법화경〉의 비유품과 법사품에 나오는 구절을 응용한 것이기도 하다. 비유품에는 "오늘 비로소 이 부처님의 아들들은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났으며, 법에서 변화하여 태어났으며, 부처님의 법의 유산을 얻었음을 알았습니다"하는 구절이 있다. 법사품에선 여래의 옷을 탐욕과 성냄는 마음을 떨쳐버린 화평한 마음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상의 문구에 대해 천태종을 창시한 천태지의 스님(대정장34, 64중)은 세 가지 기쁨과 세 가지 성취로 이해한다. 신구의 3업이 청정한 상태로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규기 스님(상동, 736중)은 〈법화현찬〉에서 부처님의 아들임을 안다는 것은 바로 도의 성취를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성스러운 지혜를 얻는다는 의미로 본다. 부처님의 법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법신의 깊을 따라서 상사법을 성립하는 것이며, 법신의 깊이란 제 보살들이 지니고 있는 북덕과 지혜이고, 법의 유산을 얻는다는 것은 번뇌가 없는 법의 재물과 보배 그리고 상사법을 수용하는 것이라 본다.

깊장 스님(상동, 514상)은 〈법화의소〉에서 〈대지도론〉을 인용하여 "바라문은 범천의 입에서 태어나므로 4성 중에서 가장 흘륭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제 풍속에 따라서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난다고 전한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진정한 범천이므로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가장 흘륭한 일임을 나타낸다. 법으로 화생한다는 것 역시 비유와 전한을 빌려온 것이며, 부처님의 법의 유산을 얻는다는 것 역시 간단한 찬탄"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상에서 천태 스님은 매우 종교적인 해석을 보이고 있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일체의 행위와 역사를 엮어간다는 점에서 이들을 정화시킬 수 있다면 세상은 저절로 정화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에서 세 가지 성취로 해석을 하고 있다. 반면 규기 스님은 환화적이면서도 중국적이다. 스님 자신이 유식불교학의 대가인 만큼 〈법화경〉을 지혜의 체득으로 해석을 하는 한편, 중국인 특유의 절대 가치인 도의 완성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두 스님에 비하면 깊장 스님은 천탄과 인도적인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국을 대표하는 스님들의 해석에서는 사회통합과 계급모순을 해결하고자 했던 부처님의 생생한 고뇌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점은 애석하지 않을 수 없다.

<본지 삼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원앙새 수 놓은 것은 보여주거니와(鴛鴦繡出從教看) 수 놓은 금침은 남에게 건네 줄 수가 없느니라(不把金針渡與人)."

여러분에게 '참나'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얘기해 드릴 수 있지만 깨달을 그 자체는 여러분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론 떠난 참구시 확철대오

지상 백고좌

송 담 스님

(용화사 법보선원장)

삼천년 전에 부처님이 출현하셔서 불교를 펴기 이전부터,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부터 '참나'는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무언지도 모르고 참선이 무언지도 모르면서도 어려서부터, 대관절 이 인생이란 게 무어냐? '나'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온 줄도 모르고 한 평생을 희로애락의 많은 고비 고비를 겪으면서 마침내 일생을 하직하고 어느 곳으로 또 가느냐?

이 문제의 해결은 말로써 가르쳐 줄 수 없고,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참선법'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됩니다.

요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서양에까지 널리 보급되고 붐이 일어나서 너도나도 참선을 하려고 하고또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선을 하려면 활구참선을 해야 합니다.

활구참선을 하려면 그 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 불교에 관한 것이건 부처님의 말씀이나 조사의 말씀까지도, 전부 다 놓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꾸 버보가 되어서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활구참선법이란 어떠한 것이냐? 이론으로 따져서 알아 들어가는 '죽은 참선(死句參禪)'이 아니라, 일체 이론을 배제하고 오직 꽉 막힌 알 수 없는 의심으로 하나의 화두를 참구하여 일체 공안을 타파하고 확철대오하는 참선법입니다.

첫째 자세를 바르게 하고 둘째 호흡을 바르게 한 다음, 셋째는 화두를 의심해 나가는데, 화두는 깨달음에 이르는 관문이요, 관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화두의 생명은 의심입니다. 그 화두에 대한 의심을 관조해 나가는 것, 알 수 없는 그리고 꽉 막힌 의심으로 그 화두를 관조해 나감으로써 모든 번뇌와 망상과 사량심이 거기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그 의심을 관조해 나감으로 해서 더 이상 그 의심이 간절할 수가 없고, 더 이상 의심이 커질 수 없고, 더 이상 깊을 수 없는 간절한 의심으로 내 가슴속이 가득 차고 온 세계가 가득 차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면 화두를 의식적으로 들지 않아도 저절로 들려져 있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 그 화두가 들려지고, 똥을 눌 때도 그 화두가 들려져 있고, 차를 탈 때도 그 화두가 들려져 있고, 이렇게 들려고 안 해도 저절로 들려진 단계, 심지어는 잠을 잘 때 꿈속에서도 그 화두가 들려져 있게끔 됩니다.

이런 상태로 6~7일이 지나면 어떠한 참나에 확철대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담아놓고 그 항아리를 큰 돌로 내려치면 그 항아리가 팍 깨지면서 물이 터져 나오듯이 그렇게 화두가 타파되고, '참나'를 깨닫게 되고, 불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우주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뭡둥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인고? 이뭣고? 이것이 무엇인고?" 하는 말을 경상도 사투리로는 '이뭣고?' 라고 합니다. 참선 해나가는 데에는 '이뭣고?'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이용해 왔습니다. "이…뭣고…?" 알 수 없는 생각뿐이어야 합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이 일어나든지 그 생각을 발판으로 해서 '이뭣고?' 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생각이 나도 바로 '이뭣고?',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나도 바로 '이뭣고?', 괴로운 생각이 나도 그 괴로운 생각이 다음 두 번째 생각으로 번져나기 이전에 바로 '이뭣고?' 로 돌아와 버리지요. 도인이라고 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그 일어나는 생각을 발판으로 해 바로 '참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공안은 이 우주세계에 가득 차 있는 것이지만 문헌에 오른, 과거에 고인들이 사용한 화두가 1700가지인데, 이 '이뭣고?' 화두 하나만을 열심히 해 나가면 이 한 문제 해결함으로써 1700공안이 일시에 타파됩니다. 화두가 많다고 해서, 이 화두 조금해 보고, 안되면 또 저 화두 좀 해 보고, 이래서는 못 쓰는 것입니다. 화두 자체에 좋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화두 철저히 해 나가면 일체 공안을 일시에 타파할 수 있습니다.

요새 일본식 참선이 수입이 되어 화두 하나를 이리저리 따져서 "야, 이런 것이다!", 또 그 다음에 다른 화두를 이리저리 따져서 자기 나름대로 또 하나를 해결 지어 놓고 또 다른 화두를 하고 해서, 10개 20개…, 화두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참선을 하는 지성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참선은 '사구참선(死句參禪)' 이라, 1700공안을 낱낱이 그런 식으로 따져서 그럴싸한 해답을 얻어놨댔자 중생심이요 사량심이라, 그걸 가지고는 생사해탈은 못합니다. 차라리 참선을 안하고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부를지언정 참선을 하려면 '활구참선'을 해야 합니다.

"이…뭣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3초 동안 머물렀다 내쉴 때, "이…뭣고…?" 다 내쉬면 스르르 숨을 들이마시되, 들이마시면서도 아까 그 '이뭣고' 한 그 의심의 그 여운이 그때까지 오도록 그렇게 조용하게 관조를 하는 것입니다. 3초 동안 머무는 동안에도 그 의심을 툭툭히 관조하다가 조용하게 내쉴 때 다시 또, "이…뭣고…?" 처음에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마다, "이…뭣고…?" 이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편생각은 줄어들고 '이뭣고?' 가 잘 되어지면, 두 번 들이마셨다 내쉴 때 한 번씩만 '이뭣고?' 를 들다가, 나중에 더 익숙해지면 다섯번 호흡하는 동안 '이뭣고?' 한번의 의심으로 쭉 이어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공부가 더욱 익숙해지면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이…뭣고…?" 한 번 해놓으면 하루 종일 그 '이뭣고?' 한번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될 때가 꼭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깨달을래야 안 깨달을 도리가 없지요. 일상 생활이 바로 알 수 없는 화두 하나로써 살아가게 됩니다. 그 화두를 들고서 밥도 먹고, 똥도 누고, 차도 타고, 걸기도 하고,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90난센 마구니가 엿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90난센 마구니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무수한 번뇌 망상인데, 화두가 독로(獨露)한 사람한테는 와서 들어붙지를 못합니다.

잠깐 잠깐 필요 있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필요한 일을 적절히 처리하되, 나의 이 화두 일념은 근본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 뭣고' 간절한 의심으로 하나의 화두 참구하면 1700공안 모두 타파하는 것

꿈속까지 화두 들때 의심 터져



◇4일 인천 용화사 법보전에서 봉행된 전강 대선사 28주기 추모법회를 마친후 안성 석남사 주지 정무스님(왼쪽)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송담스님.

어가며 참선을 하는 지성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참선은 '사구참선(死句參禪)' 이라, 1700공안을 낱낱이 그런 식으로 따져서 그럴싸한 해답을 얻어놨댔자 중생심이요 사량심이라, 그걸 가지고는 생사해탈은 못합니다. 차라리 참선을 안하고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부를지언정 참선을 하려면 '활구참선'을 해야 합니다.

"이…뭣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3초 동안 머물렀다 내쉴 때, "이…뭣고…?" 다 내쉬면 스르르 숨을 들이마시되, 들이마시면서도 아까 그 '이뭣고' 한 그 의심의 그 여운이 그때까지 오도록 그렇게 조용하게 관조를 하는 것입니다. 3초 동안 머무는 동안에도 그 의심을 툭툭히 관조하다가 조용하게 내쉴 때 다시 또, "이…뭣고…?" 처음에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마다, "이…뭣고…?" 이렇게 하다가 차츰차츰 편생각은 줄어들고 '이뭣고?' 가 잘 되어지면, 두 번 들이마셨다 내쉴 때 한 번씩만 '이뭣고?' 를 들다가, 나중에 더 익숙해지면 다섯번 호흡하는 동안 '이뭣고?' 한번의 의심으로 쭉 이어지도록 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공부가 더욱 익숙해지면 아침에 눈 딱 떴을 때, "이…뭣고…?" 한 번 해놓으면 하루 종일 그 '이뭣고?' 한번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될 때가 꼭 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깨달을래야 안 깨달을 도리가 없지요. 일상 생활이 바로 알 수 없는 화두 하나로써 살아가게 됩니다. 그 화두를 들고서 밥도 먹고, 똥도 누고, 차도 타고, 걸기도 하고,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90난센 마구니가 엿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90난센 마구니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무수한 번뇌 망상인데, 화두가 독로(獨露)한 사람한테는 와서 들어붙지를 못합니다.

잠깐 잠깐 필요 있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필요한 일을 적절히 처리하되, 나의 이 화두 일념은 근본적으로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 뭣고' 간절한 의심으로 하나의 화두 참구하면 1700공안 모두 타파하는 것

꿈속까지 화두 들때 의심 터져

◇4일 인천 용화사 법보전에서 봉행된 전강 대선사 28주기 추모법회를 마친후 안성 석남사 주지 정무스님(왼쪽)과 함께 계단을 내려오는 송담스님.

어가며 참선을 하는 지성인들이 상당히

日 '신라명신좌상'은 해상왕 장보고의 형상

소설가 최인호씨, '海神행적추적' KBS다큐서 밝혀

장보고에 관한 소설 '해신(海神)'을 썼던 작가 최인호가 해상왕의 흔적을 찾아나섰다. 특히 그는 장보고가 일본 전국시대 영웅 다께다 신겐 가문의 수호신이라는 설을 추적한다.

다께다 신겐 가문의 시조는 일본 오츠시에 위치한 불상 '신라명신좌상'의 위용에 반해 성(姓)을 '신라'로 바꿔 '신라 사부로'로 개명했다. 그런데 '신라명신좌상'은 바로 장보고의 모습을 조각한 것이라고 한다.

최인호는 1년 간 일본 중국 인도 네시아 터키 오만 그리스 이집트 등 7개 국가를 두루 돌며 18일까지 방

전통 일본인모습 아닌 삼각관 쓴 독특한 형상

영하는 KBS 1TV 다큐멘터리 5부작 '최인호의 다큐로망 해신 장보고'(토~일요일 밤 8시)를 통해 세계 각국에 남아있는 장보고의 흔적을 밝혀낸다.

1부에 등장했던 불상 '신라명신좌상'을 모시고 있는 오츠시의 '신라선신당' 주변은 일본으로 건너간 한 민족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다. 그런데 이 '신라선신당'에 얽힌 설화가 자못 흥미롭다.

이 절 창건주인 엔친 스님이 당나라에 불법을 구하러 갔다 돌아오다 신라 인근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갑자기 신라명신이 나타나 구해줬다는 것. 일본으로 돌아온 엔친이 자신을 구해준 해신을 형상화해 만든 것이 바로 '신라명신좌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자신을 신라명신이라 말한 그 해신은 과연 누구였을까? 이



◇신라 장보고를 수호신으로 추앙하는 다께다 신겐 가문의 비밀을 취재하기 위해 일본 '사카모토' 마을의 사찰을 찾은 최인호 작가.

비밀을 풀어내기 위해 제작진은 이번에 지금까지 거의 공개된 적이 없는 일본 국보 '신라명신좌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빨간 눈에 흰 얼굴, 삼각관을 쓰고 있는 길이 78㎝ 정도의 이 목상은 한눈에 봐도 전통적인 일본인의 모습이 아닌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다.

여기에 비밀을 풀 수 있는 결정적 단서로 엔친이 신라인 도현에게 써준 송별시가 등장한다. 제작진은 엔친의 바닷길을 안내한 신라인 도현이 바로 장보고 선단의 일본측 책임자라는 사실도 입증한다.

특히 18일 방영될 '역사는 흐른다' 편에서는 신라 조정간의 갈등속

'적산법화원 창건' 밝혀 암살배경, 영향도 조명

에 암살 당하는 장보고와 그의 사후 우리역사에 미친 영향, 장보고의 현재적 의미를 조명한다.

신재국 PD는 "이번 프로에서 중국에 대사찰을 세우고 신라불교를 개혁했던 종교 사상가이자 노예해방을 실천했던 인본주의자 등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장보고의 면모가 소개된다"며 "특히 최근까지 엔닌이 지은절로 알려졌던 중국 산동반도 적산법화원은 장보고가 창건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번 취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불교적 정신세계 작품 곳곳에 녹아

오지호 특별전 6월까지



◇오지호 作 '광주 원효사 아미타 후불탱화'

한국 서양화의 선구자이며 지난해 문화관광부로부터 금관문화훈장을 추서 받은 오지호씨(1905~1982)특별전이 6월까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작품 총 31점이 선보인다. 전시품들 대부분은 1985년 유족이 기증한 대표작으로, 그를 통해 한국 구상회화와 인상주의 예술세계를 살필 수 있는 기회이다.

근대 서양화단을 대표하는 오 화백은 한국적 인상주의 이론과 실제를 추구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광을 특유의 정서로 그려냈다. 일본 도쿄미술학교에서 공부한 그는 자연과 빛의 작용에 의한 생명예찬과 한국풍토에 대한 집중연구로 독특한 인상주의 화풍을 일궈냈다.

전시회는 1920년대 초기부터 1980년대 말기까지 그의 예술 세계를 네 시기로 나눠 보여준다. 침울한 색조를 중심으로 초기작을 선보였던 '실험적 모색기(1920년대)'와 '남향집' 등 우리나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정착시킨 '한국적 인상주의의 정착기(1930, 1940년대)',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한 '단순화한 자연(1950, 1960년대)', 유럽여행을 떠나 유럽 풍경을 소재로 다수의 작품을 남긴 '이국의 정취(1970, 1980년대)'가 그것이다.

윤범모 경원대 교수는 "오지호 화백은 1954년 광주 원효사 아미타후불탱화를 그렸을 정도로 독실한 불자였다"며 "불교적인 그림은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 자연을 평소 사랑하며 화폭에 옮긴 물아일체의 정신은 그의 작품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02)2188-6331



'거룩한 만남' 6백회 특집 기념행사

불교방송(사장 김규칠)은 6일 3층 대법당에서 '거룩한 만남' 6백회 특집 기념 행사 및 공개방송을 열었다.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을 비롯해 청와대 불자회 김상남 회장,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부인 권양숙 여사 등 1천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수혜자 가족의 음성 편지 낭송, 역대 진행자 인터뷰, 국악인 신영희 씨 공연, 저시력인과의 자매 결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가수 장사익씨가 음성공양 하는 모습.

강유신 기자



◇'지(持)금강불'이 봉안돼 있는 티베트박물관의 불교미술실 내부전경.

소격동 '티베트 박물관' 개관 1주년

불상등 13~20세기유물 600여점 전시

2008년 포천에 3천평규모 박물관 계획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있는 티베트 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20여년간 세계 곳곳의 민속품을 수집해 온 신영수 관장이 지난해 가정집을 개조해 박물관을 열었다.

티베트 박물관은 아직 1년밖에 안됐지만 입소문을 통해 하루 평균 1백여명이 찾아올 정도로 문화매니아들 사이에선 이제 제법 유명 명소가 됐다.

티베트인들의 불교미술뿐 아니라 일상생활품 까지도 체험할 수 있는 티베트박물관은 1·2층 합해 총 60평 규모다. 불교미술관, 생활용품관, 복식관 등 크게 세 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현재 박물관에는 천장(天葬)·조장과 유사한 티베트의 전통장례) 사진과 인골(人骨) 공양 그릇에서부터 라마승의 법복과 각종 불상에 이르기까지 13~20세기의 유물 6백여점이 전시돼 있다.

특히 불교미술관에 들어서면 '지(持)금강불'이 15세기와 18세기 것이 두개 봉안돼 있는데, 양식이 서로 달라 꼼꼼히 비교하며 감상하면 관람의 재미를 더할 수 있다. 신 관장이 총 유물 1천2백여점을 소장하고 있지만 박물관이 비좁아 나머지는 집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2008년 집근처인 경기도 포천에 3천평 규모의 박물관을 새로 신축할 계획이다.

독실한 불자인 신영수 관장은 "92년 네팔친구와 함께 히말라야를 등반하다 라다크를 지나게 됐는데 우리탱화에 영향을 준 탕카와 복식의 화려한 색감에 매료돼 티베트 유물에 빠지게 됐다"며 "특히 딱딱한 콘크리트벽에 둘러싸여 사는 도시인들에게 하늘 가까운 곳에서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실천해 가는 티베트인들의 신앙생활과 문화를 소개하고 싶었다"고 밝혔다.(02)735-8149

김주일 기자

다도·민요배우기 등 삼청각 겨울문화특강

전통 문화 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한 삼청각이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위해 24일까지 '겨울문화특강'을 마련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다도법과 다식만들기, 큰절 배우기 등을 강의한다. 이외에도 한지로 된 사각전등 만들기, 형형색색의 까치 호랑이가 등장하는 민화그리기, 천하대장군 조각하기, 장구와 민요 등 우리가락 배우기, 발렌타인때 선물할 보자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특히 평일날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주말에는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주말여행'반을 개설한다.

예비신부들을 위한 규방문화특강도 이채롭다. '혼례와 함께하는 규방공예'란 주제로 △18일 예단보 제작 △25일 혼서지보 만들기 △2월 15일 기러기보 짜기 △2월 22일 수저집 1쌍 재단하기 등의 일정으로 진행한다. (02)3676-3456



환경도 보호하고 불우이웃도 돕고…

‘아름다운 가게’ 등 재활용품점 “안쓰는 물건 보내주세요”

◇서울 안국동에 문을 연 ‘아름다운가게’를 찾은 사람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단체	연락처	인터넷 주소
전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02)876-9101	http://www.recycle.or.kr
(주)한국리싸이클링	(02)831-1460	http://e-recycling.co.kr
(사)재활용환경개발협회	(053)745-7289	
(사)생활자원재활용협회	(053)754-7271	
아름다운 가게	(02)3676-1004, 5353	http://www.beautifulstore.org/html/
경실련 알뜰가게	(02)2237-6272	http://market.ccej.or.kr/
서울 중구 재활용 문화관	(02)2260-1557	
경불련 내친구 초록이	(02)926-5616	
인터넷 벼룩시장		www.daoso.co.kr www.jangter.com/korea www.tomatonet.com/mart www.findused.co.kr www.mchange.co.kr www.swap7.co.kr www.ugauga.co.kr www.buy4989.com www.ot4989.com www.internetars.com

“언젠가 한 번은 쓰겠지”, “쓰지는 않지만 버리기 아까워서”….

이런 이유로 집안 구석에서 먼지만 쌓여가는 물건들이 한 두 개씩은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소용이 닿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일지 모르는 물건들. 이들이 먼지를 벗고 제 주인을 만나는 곳이 바로 재활용품점이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아름다운 가게(공동대표 박성준, 손숙)’는 자신에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이익금을 그늘진 곳의 사람들을 위해 쓰는 알뜰가게다. 100원짜리 밥그릇에서 30만원짜리 정수기까지 이곳에서 팔리는 모든 물건은 시민들이 기증한 것이다. 하루 평균 50여명의 기증자와 300여명의 손님이 찾는 ‘아름다운 가게’에는 물건 수리와 정리, 판매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만도 100명이 넘는다. 이런 이웃들의 정성과 활동가들의 땀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가게’는 지난해 12월 말기암으로 고생하는 60대 독거노인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쌍둥이 자매에게 치료비와 생활비 등 1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었다. 18일에는 2호점인 삼선교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전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회장 박철순)는 전국 120개 재활용센터를 통해 가전, 가구제품 등을 수거해 수선을 거쳐 저렴하게 판매하는 단체. 전국 어디서나 1588-7272로 전화하면 가까운 센터로 연결되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recycle.or.kr)에서 각 지역별 센터를 검색할 수 있다.

재활용센터 중 전국 최대 규모인 인천 중구 신흥동 정부물품 재활용센터는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 국영기업체, 국공립학교 등 2000여 곳에서 가져온 사무용 집기류들이 가득하다. 복사기, 팩스 등 사무용품이 주류를 이루며 중고 컴퓨터가 특히 많다. 구입 후 1개월까지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실련이 1991년 문을 연 ‘알뜰가게’는 관내 학교와 일반인들로부터 수집한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결식아동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

서울 중구청이 마련한 ‘재활용 문화관’은 생활용품 재활용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재활용품 전시관, 녹색알뜰매장, 재활용품 체험실습장 등을 갖추고 있어 지역민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녹색알뜰매장에서 판매하는 중고용품과 체험실습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만든 비누, 휴지, 샴푸 등의 판매 수익금은 지역 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으로 쓰인다.

최근에는 인터넷에도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벼룩시장이 열리고 있다.

종합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옥션, 이쎄일, 와와 등의 인터넷 경매업체뿐 아니라 개인 홈페이지에 자신이 입었던 옷이나 물건 등을 올려놓고 팔기도 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단호박 깻잎튀김



깻잎 10장, 미삼(인삼 잔뿌리) 50g, 단호박 1/4개, 대추 8개, 밀가루 1컵, 소금, 식용유 적당량

1. 깻잎과 미삼은 깨끗이 씻어 물기를 닦는다.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빼 채썰고, 밤은 껍질을 벗겨 채썬다.

2. 단호박은 쪄서 속만 으깬 후 채썬 대추, 채썬 밤과 섞는다.

3. 밀가루를 걸쭉하게 반죽하여 튀김옷을 만든다.

4. 깻잎에 ②의 단호박 반죽을 적당히 넣고 미삼을 가운데 놓은 다음 돌돌 말아 튀김옷을 입힌다. 170℃ 기름에 노릇하게 튀긴다.



아픈 곳 세포활력 높여 통증 덜어

희담석 찜질팩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희담석 찜질팩은 근육통, 신경통, 관절염 등으로 쑤시고 결리는 부위에 사용하면 세포의 활력을 높여주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전자렌지에 3분 정도 가열하거나 끓는 물에 10분 정도 데운 후 수건 등으로 싸서 사용한다. 값 3만8천원.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인생의 이해

“내 행복 아들의 슬픔과 바꿀 수 없어”

10년 전에 있었던 일부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습니다. 10년 전 어느 날 은주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제가 잠시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저를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저희 집을 찾아 온 은주는 몹시 지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선생님 저 이혼할래요.”하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은주의 결혼 생활이 원만치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꺼내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느냐고 묻자 은주는 “너무 지옥 같아서요.” 라고 했습니다.

연애시절, 아름다운 전원주택 도면을 가지고 나와서, 이런 집에서 살게 해 주겠다고 굳게 약속한 남편은 결혼 후 전원주택은 고사하고 연립주택 지하방으로도 나앉지 못하는 무능함만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잣집 마마보이인 남편은 결혼 후에도 어머니 치마폭을 떠나지 못하고 어머니 보호 속에 안주하기를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신이 독립해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의지는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어머니 역시 아들을 독립시키려 하지 않고 늘 자신 주위에서 맴돌게 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아들을 운전시켜서 데리고 가고, 먹고 싶거나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 경제력도 어머니가 그대로 쥐고 있어서 은주는 목욕비조차도 시어머니한테서 타 써야 했답니다. 결혼 초에는 자신의 그런 결혼생활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남편과 싸우기도 하고 남편을 설득시켜 보기도 했지만 편안함에 길들여진 남편은 자신이 머물러 있는 안전궤도를 이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좋은 집에서 늘 맛있는 것 해먹고 편안히 살고 있는데 네가 무슨 불만을 가질 게 있느냐는 식으로 며느리를 대한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고 혼자된 시어머니는 유산으로 서울 근교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황금 알을 낳아서 아들로 하여금 돈을 벌 필요를 느끼지 않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노력하지 않고 얻은 부(富)가 노력하지 않고 살려는 아들을 만든 것이지요.

그런 속에서 아들 하나를 낳고 1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해 온 은주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시어머니와 남편이 유럽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전혀 미안한 표정 없이 당연한 듯 여행을 떠나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은주 가슴속엔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졌다고 합니다. 은주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는, ‘그럼 아이 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은주는 그 문제도 이미 결심한 듯, 아이는 시댁에 두고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자신이 인간답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날 저는 은주한테 이혼만은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이혼을 한 후 얻게될 어떤 성취감이나 행복도, 엄마 없는 집에서 자라게 될 아들의 슬픔보다 더 클 수는 없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으로 똘똘 뭉쳐 있는 은주는 제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은주가 다시 저를 찾아 왔습니다. 저와 마주 앉은 은주는 1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당뇨를 앓고 있어 뒷바라지 하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많이 편해졌다고 하면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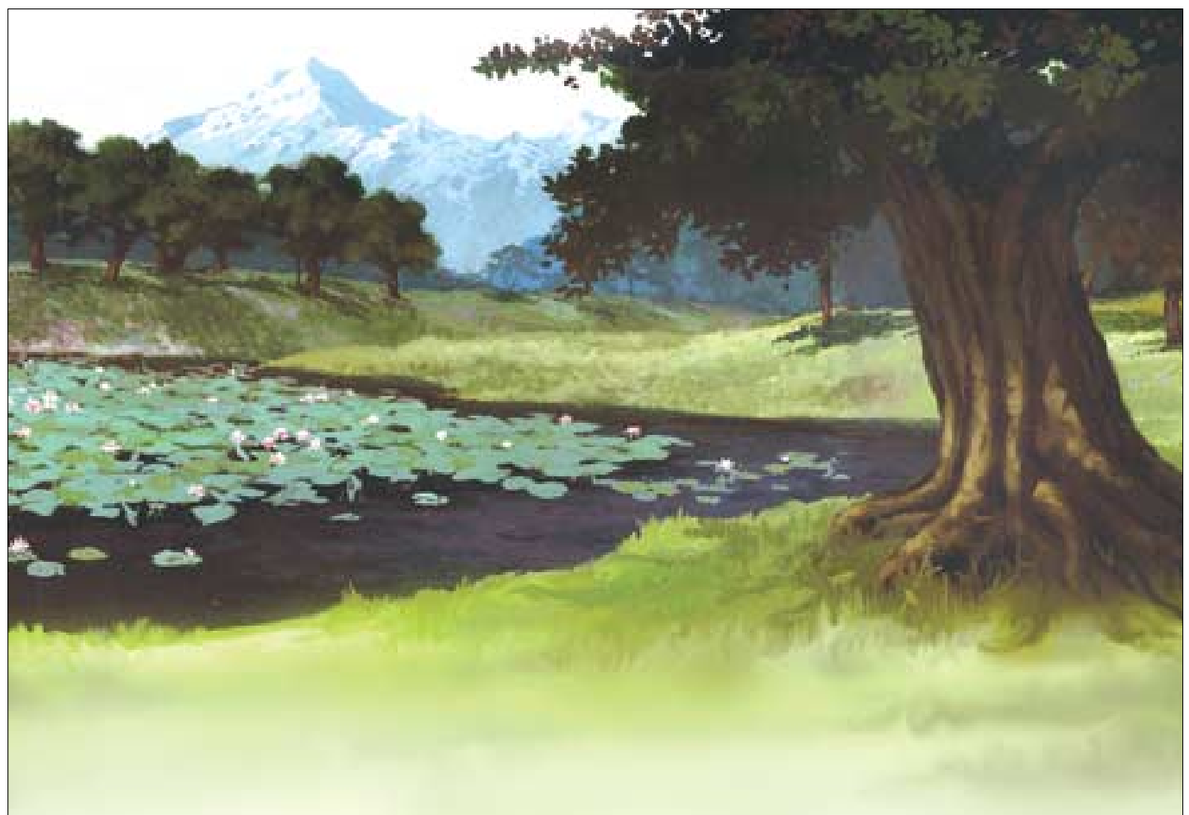
“이혼을 하기 위해 남편하고 법원까지 갔는데, 이혼을 한 후에 얻게 될 어떤 성취감이나 행복도 엄마가 없는 집에서 자라게 될 아들의 슬픔보다 더 클 수는 없다고 하시던 선생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찍지 못하고 되돌아 왔는데 10년이 지나고 보니 그 때 도장을 찍지 않은 게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때는 제 행복이 모든 것에 우선 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식의 불행을 보고 있는 한 제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나중에 안 거죠. 가정을 지킨다는 건 정말 힘들지만 그보다 더 큰 성공도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저희 아들 이번에 고대에 합격했어요.”

은주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미소 속엔 인생을 이해하는 중년부인의 지혜가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化緣 (02)704-3577

김산호 회화극본 부처님

The story of Holy Buddha

제1화 샤카족의 탄생 ②



마야(환상)의 땅, 사마르카타(神들의 집) 히말라야 산기슭에 천축(天竺, 인도)인들과는 용모나 풍습을 달리하는 북방 출신족들이 있었으니, 이들을 '샤카족' 이라 부른다.

샤카(Sakyas)족이 산악족이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우리는 오늘까지 불교를 상징하는 글자로 卍자를 사용함을 볼 수 있다. 그런데 卍자는 본래 티베트문자로서 卍은 '영원(永遠)' 을 의미한다.

눈덮인 히말라야(혹은 희마리)산의 기슭에 자리잡았던 샤카(Sakya)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불전(佛典)에는 설산(雪山)의 남쪽이라 했다. 지금까지의 문헌들은 이 문제에 관한한 별 시비없이 본문으로 들어가 버리곤 한다. 그러나 연재물은 회화극본(繪畵劇本)이라는 새로운 장르로 그려지기 때문에 부처님의 용모를 가능한 한 진실되게 그려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과연 어느 종족 출신으로 어떤 모습인 가를 밝히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여러 가지 문헌을 종합해 보건대 샤카족은 대략 B.C. 800년경 설산의 기슭에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부처님 당시에는 인구가 약 100만 정도로 보이는 소왕국으로 평화를 사랑하며 그들만의 종교와 문화에 높은 긍지를 지니고 있어 남쪽의 아리안 제국들의 눈에는 오만한 종족으로 비치고 있었다.

흔히 부처님을 석가모니(釋迦牟尼)라 하는데 이는 샤카무늬(Sakya-muni)의 한자표기를 이두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샤카' 는 종족을 의미하고 '무늬(Muni)' 는 아리안족의 입장에서 보아 비(非)아리안 계통의 승려를 가리키는 존칭어 이다. 리그-베다 시절엔 '침묵하는 사람' 의 뜻이었으나 시간이 흘러가며 '사고하는 사람' 혹은 '성인(聖人)' 의 뜻으로 그 의미가 변해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또다시 부처님이 아리안족이 아니었다는 확증을 얻게 되어 본서는 부처님의 용모를 아리안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우리는 불전의 본문을 열기 전에 몇가지 사전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샤카족의 본거지이며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의 네팔(NEPAL)남쪽 국경 가까이에 카팔라 바스투(迦毘羅城)라는 작은 왕국이 있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로부터 서쪽 200km 지점이다. 룸비니 동산은 네팔의 루판데히 지방에 위치해 있는데 '루판데히(Rupandehi)' 는 '땅의 여신 루판데히 여신의 성지' 라는 의미이다. 바이라와(Bhairawa)에서 서쪽으로 조금가면 데라이(Terai)지역이 나타나는데 룸비니 동산은 그곳에 있다. 룸비니(Lumbini)는 부처님의 외할머니 이름이다.

지금은 황량하지만 부처님 당시엔 수목이 울창하고 수많은 꽃나무와 여러곳에 연못이 있는, 세간에서 견줄바 없이 아름다운 동산이었다고 성전(聖典)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 당시 인도사람의 종교관에 대하여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당시 상류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아리안(Arian)들에겐 인류최초의 성전이라는 '리그베다(Rig-Veda)' 가 있었다. 신(神)을 찬미하는 노래와 인간성의 자유 등 모든 철학적인 사상을 다루고 있는 성전이다. 그 책에는 다신교(多神敎)에서 범신론(汎神論)까지 각종 신관(神觀)을 보여주는데 대체로 보아 자연신(自然神)과 의인화(擬人化)된 신들로서 빛, 물, 어두움, 불 등을 신격화시켜 숭배하니, 전쟁의 신 '인드라(Indra)' , 태양의 신 '미트라(Mitra)' , 불의 신 '아그니(Agni)' , 하늘의 신 '바루나(Varuna)'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신에 충실하며 또 한편으로 자신(Atman)을 찾으려는 이들은 집안을 안정시키는 즉시 출가하여, 숲이나 아슈람(Ashram)에서 자아(自我:Atman)의 진리를 체득(體得)하기 위하여 갖은 고통을 감수하며 각자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신에 적합한 수련법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존경받는 브라만(Brahman)이 되려 하였다.



샤카족들은 스스로를 이 세상 최초의 임금님인 마하삼마다 대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선택된 종족이라 믿으며 최상의 자존심과 긍지를 간직하고 있었다.

문헌에 보이는 최초의 샤카족 나라 이름은 '부다가' 국으로서 오카카(Okkaka)가 왕이었는데 그이가 바로 유명한 감자왕(甘蔗王) 이다.

감자의 팔리어는 '오카카(Okkaka)' 혹은 '이크쉬바쿠(Iksvaku)' 인데 그 의미는 '사탕수수' 다. 이때 감자왕은 두 명의 왕비(王妃)와 같이 있었다.

감자왕의 제1왕비에게는 '장수왕자' 가 있었는데 곧 '부다가' 국의 태자가 되었다. 한편 제2왕비로부터도 4명의 패기 넘치는 왕자들이 있었다. 감자왕은 그의 젊은 왕자들이 힘을 합하여 남쪽의 아리안 제국들을 압도하는 강국으로 만들어 주기를 소원하고 있었다.

그 당시 '부다가' 국의 남쪽에는 아리안 제국인 코살라(Kosala)와 마가다(Magadha)국이 큰 세력을 떨치면서 인도 천하의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고, 그 외에도 갠지스강 남쪽으로 밧사(Vatsa)등의 강성한 세력들이 있어서 '부다가 ' 정도의 이민족 소왕국은 그 독립을 유지하기가 힘겨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카카왕의 기대와는 달리 왕자들간의 차기 왕권쟁탈전은 날이 갈수록 그 도를 더해가며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이제 더 이상 왕자들의 싸움을 방관할 수만은 없게 된 오카카왕은 두 왕비와 다섯왕자 그리고 전 대신들을 불러들여 어전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오랜시간 동안 뿌리깊게 자라온 이들의 앙금이 풀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그 태도가 모호했던 대신들마저 임금앞에서 공식적으로 갈라서게 되고 말았다.

인구 백만을 넘지 못하는 소왕국을 둘로 쪼갤 수도 없는 일이어서 오랜 격론 끝에 결국 제2왕비의 소생 네 왕자들이 나라를 떠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리하여 네 왕자들은 부왕과 제1왕비에게 하직인사를 올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좀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주위 세력들의 위협으로부터 편안하게 살고 싶었던 백성들은 이 뜻밖의 결과에 어쩔 줄을 몰랐으나, 이미 엎지러진 물이라, 마지막 남은 선택권으로 태자를 믿고 고향땅에 남아 살든지 아니면 4명의 왕자들을 따라 불안한 미지의 세계로 따라갈 것인지의 결론을 내려야 하게 되었다.





자들의 문을 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스 또는 인터 으로 보내 주시오. 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어 답해 드 니다. 의고 에 대해서도 상 해 드 니다. 〈글 : 자〉 보 곳: 우 110-170 서 시 종로구 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 을 는 이에게' 당자 인터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그대로 실하게 하루하루 하루살이로 살라

여 분하고 해에 또 마주하게 되었니다. 해를 이해서 더한 , 삼스럽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가 에 손을 고 내가 어 게 행하고 있는지, 어 게 말을 하고 있는지, 어 게 생각을 해서 리고 있는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 니다. 그 서 된 건 고 고 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 시오.

날에 이런 일이 있었더 니다. 당시 중국에 있어서는 우리 선이 국이었 .그런데 중국에서 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 의인이 있나 없나를 알아 가지고 오라고 사신을 많이 내려보 다고 니다. 그런데 를 타고 건 와야 하니까 그때에 우리 나라에서는 마중나가는 사람을 아서 내보내야 었 .이건 국운이 린 일이라 때에 따라서는 신하지 않고는 안 되게 있거든요.

그 서 지금으로 면 시라면 시, 또는 군이면 군에서 여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이무 고 아주 하고 이 마음공부에 정말이지 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사람을 . 아서 그 사람을 안내자로 내보 는데 사신들이 을 건자마자 으로 이 나 더 니다. 그 서 모 사장에 가지고 나 상을 놓고서 을 차려 는데 그 사신이 거기서부터 시 을 하기 시 해요. 한 번 시 해보고 자기한 하 않게 여 지는 사람이라면 나라 전 를 그 하 않게 보거든요. 아주 제일 중요한 자리 . 거기서 안내자로 나 사람이 시장도 하고 그니 을 다섯 를 어 었 . 그런데 그 에서는 을 다 말고 손가을 세 를 들면서 아무 말 없이 무언( )의 문을 던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것이 지도 모르면서 '세 를 었느 ?' 하는 알고 '난 을 다섯 를 었다.' 하고 다섯 손가을 내 었 말 니다. 하하하…. 다섯 를 내미니까 그 에서는 ' , 삼오 을 그 통 구나!' 이 게 생각을 한 니다. 그 고선 가 이 해서

라면서 또 모 모양을 그려 보이거든요. 아, 그 니 ' 는 모 한 을 었느 ?' 이 게 는 알고 또 '동그 을 었다' 하고선 이 게 동그라미 모양을 그 말 니다. 하하하…. 마나 재 는 니까?

그런데 그 게 한 이 가 어 느 하면 여 분은 알는지 모르겠지만, 신으로 저 어나고 나중에 정신 의 ' 나 '가, 리가 어나야 되는 거 . 그런데 이 사람은 어언 에 내면에서 리가 살아난 거 요. 살아나서, 연히 우 진 어도 거기서 뜻을 일 준 거 말 니다. 그 게 그 은 로 그 돌려서 일 준 거 말 니다. 그 니까 그게 퍼 퍼 생각을 지. '아, 을 한 거 었느 는구나.' 그 고선 '동그 거 었다.' 그 고 ' 을 었느 ?' 하니까 '다섯 를 었다.' 이 게 한 거 .

지금 이런 기를 하느 하면 여분이 이 마음공부를 해서 스스로서 아지면 하게 만들려고 을 가는 거를 은 으로 돌 수도 있다는 니다. 하게 돌 수 있는 거니까 안에서 내가 다스려서 모든 거를 전하게, 주장자를 만들어놓은 그 자의 주장자는 자기 몸을 이리로 끌고 가고 저리로 끌고 가고 , 악업 선업이 모두 몸 속에 있는 그 자 들이, 악이 나올 자동적으로 음이 된다고 . 그 서 자기가 하는 대로 자동적으로 음이 서 용도에 따라서 차 차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 요. 그거는 피 하는 니다. 그런 모든 한마음으로서 구성을 해서 대기가 된 거는, 대기라는 것은 자기 몸이를 이끌고 가는 니다. 마음으로서 그 마음을 게 하는 거 .그 니 그 사람도 그 게 을 은 로 마음을, 그 사람이 부이기 때문에 아주 모르거든요. 그 니까 그 게 말 니다.

그 게 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아주 보지 하게 만들어 말 니다. 그 니 중국 사람들이 '야! 이 게 안내하는 사람도 이 하니 저 안은 어 감히 말을 으 .' 하고는 려서 한 마 도 지 하고 돌아다니며 구경만 하 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라고 그랬느 하면은, " 선에는 의인들이 많아서 안내하는 사람까지 하 을 알고 을 알고, 삼 오 을 알고 아주 무불통지 더라."고 기를 하니까 을 차면서 하는 리가 "야! 그 나라를 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해. 그 니까 지 하겠구나." 하더 니다.

그 뜻을 아 니까? 마음공부 하신 양들, 상 법이라는 이 이 따르는 것은 평공( )에 우리가, 이 아니라는 기 . 생명도 이 아니고 모두가 이 아니게 돌아 다 하는 평 공에 고정이 없이 돌아가니까, 그 서 평 공에서 나오는 법은, 말하자면 방 이가 오면 쵤 가 들어 다는 기 니다. 그 뜻을 아시겠 니까? 이 무궁무진한 법을 우리는 몸 어지기 전에 알아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니다. 그 서 요만한 것 하나도 히 지 말고 히 행하지 말라고 하는 니다. 업신여기지도 말고 말 니다.

어 두 구가 있었 니다. 날에도 기 니다만 두 구가 어느 때 을 가다가 석존께서 설법하시는 게 되었 니다. 그런데 한 구는 부처님의 말이 사기라고 생각을 고, 또 한 구는 나라마다 전 왕들을 모아 도 저 게 이 하게 말하실 거라고 하면서 무나 기 게 생각을 는데, 그 고 기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런 설법의 뜻을 아서 이런 도리를 모르는 나라에 가서 좀 으면 하는 생각을 더 니다. 그랬는데 요, 사기라고 생각을 한 그 구는 그날 을 잔 고, 날에는 수 가 대 장으로 나가고 기 때문에 마차가 많 었 . 그런데 사기라고 생각한 구는 을 고 가지장에 나가는 마차에 여서 로 죽고, 기 게 생각 던 구는 자기 구가 죽으니 으로 수가 없어서 건을에 실어 가지고 나라로 더 니다. 이런 말은 하려고 하지도 않 는데 히 나오 요.

그 게 가서는 큰 보따리는 어 다 놓고 그마한 보따리를 하나 어지고 건을 팔 양으로 사방을 다 구경을 하고 다니는데, 그 곳에서는 인군이 돌아가서 다른 인군을 는데 어 게 된 일인지 그 나라는 국민이 인군을 는 게 아니고 말이 아요, 말! 인군이 타고 다니던 말이 금으로다가 을 해서 고선사람들 에 나와서 인군을 는 그런 나라에 거 .

그런데 양 으로 사람이 하게 들어 는데 말이 오더 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 게나 명한지 오더니만 고 를 돌려서 보따리 낀 사람을 보는데, 이 을 보고 저 을 보고 하더니 다시 고 가 이 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에 낀 그 사람을, 자 사람을 비키게 하는 사람도 이 하니 저 안은 어 감히 말을 으 .' 하고는 려서 한 마 도 지 하고 돌아다니며 구경만 하 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라고 그랬느 하면은, " 선에는 의인들이 많아서 안내하는 사람까지 하 을 알고 을 알고, 삼 오 을 알고 아주 무불통지 더라."고 기를 하니까 을 차면서 하는 리가 "야! 그 나라를 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해. 그 니까 지 하겠구나." 하더 니다.

그 뜻을 아 니까? 마음공부 하신 양들, 상 법이라는 이 이 따르는 것은 평공( )에 우리가, 이 아니라는 기 . 생명도 이 아니고 모두가 이 아니게 돌아 다 하는 평 공에 고정이 없이 돌아가니까, 그 서 평 공에서 나오는 법은, 말하자면 방 이가 오면 쵤 가 들어 다는 기 니다. 그 뜻을 아시겠 니까? 이 무궁무진한 법을 우리는 몸 어지기 전에 알아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니다. 그 서 요만한 것 하나도 히 지 말고 히 행하지 말라고 하는 니다. 업신여기지도 말고 말 니다.

어 두 구가 있었 니다. 날에도 기 니다만 두 구가 어느 때 을 가다가 석존께서 설법하시는 게 되었 니다. 그런데 한 구는 부처님의 말이 사기라고 생각을 고, 또 한 구는 나라마다 전 왕들을 모아 도 저 게 이 하게 말하실 거라고 하면서 무나 기 게 생각을 는데, 그 고 기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런 설법의 뜻을 아서 이런 도리를 모르는 나라에 가서 좀 으면 하는 생각을 더 니다. 그랬는데 요, 사기라고 생각을 한 그 구는 그날 을 잔 고, 날에는 수 가 대 장으로 나가고 기 때문에 마차가 많 었 . 그런데 사기라고 생각한 구는 을 고 가지장에 나가는 마차에 여서 로 죽고, 기 게 생각 던 구는 자기 구가 죽으니 으로 수가 없어서 건을에 실어 가지고 나라로 더 니다. 이런 말은 하려고 하지도 않 는데 히 나오 요.

그 게 가서는 큰 보따리는 어 다 놓고 그마한 보따리를 하나 어지고 건을 팔 양으로 사방을 다 구경을 하고 다니는데, 그 곳에서는 인군이 돌아가서 다른 인군을 는데 어 게 된 일인지 그 나라는 국민이 인군을 는 게 아니고 말이 아요, 말! 인군이 타고 다니던 말이 금으로다가 을 해서 고선사람들 에 나와서 인군을 는 그런 나라에 거 .

그런데 양 으로 사람이 하게 들어 는데 말이 오더 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 게나 명한지 오더니만 고 를 돌려서 보따리 낀 사람을 보는데, 이 을 보고 저 을 보고 하더니 다시 고 가 이 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에 낀 그 사람을, 자 사람을 비키게 하는 사람도 이 하니 저 안은 어 감히 말을 으 .' 하고는 려서 한 마 도 지 하고 돌아다니며 구경만 하 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서 라고 그랬느 하면은, " 선에는 의인들이 많아서 안내하는 사람까지 하 을 알고 을 알고, 삼 오 을 알고 아주 무불통지 더라."고 기를 하니까 을 차면서 하는 리가 "야! 그 나라를 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해. 그 니까 지 하겠구나." 하더 니다.

그 뜻을 아 니까? 마음공부 하신 양들, 상 법이라는 이 이 따르는 것은 평공( )에 우리가, 이 아니라는 기 . 생명도 이 아니고 모두가 이 아니게 돌아 다 하는 평 공에 고정이 없이 돌아가니까, 그 서 평 공에서 나오는 법은, 말하자면 방 이가 오면 쵤 가 들어 다는 기 니다. 그 뜻을 아시겠 니까? 이 무궁무진한 법을 우리는 몸 어지기 전에 알아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니다. 그 서 요만한 것 하나도 히 지 말고 히 행하지 말라고 하는 니다. 업신여기지도 말고 말 니다.

어 두 구가 있었 니다. 날에도 기 니다만 두 구가 어느 때 을 가다가 석존께서 설법하시는 게 되었 니다. 그런데 한 구는 부처님의 말이 사기라고 생각을 고, 또 한 구는 나라마다 전 왕들을 모아 도 저 게 이 하게 말하실 거라고 하면서 무나 기 게 생각을 는데, 그 고 기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런 설법의 뜻을 아서 이런 도리를 모르는 나라에 가서 좀 으면 하는 생각을 더 니다. 그랬는데 요, 사기라고 생각을 한 그 구는 그날 을 잔 고, 날에는 수 가 대 장으로 나가고 기 때문에 마차가 많 었 . 그런데 사기라고 생각한 구는 을 고 가지장에 나가는 마차에 여서 로 죽고, 기 게 생각 던 구는 자기 구가 죽으니 으로 수가 없어서 건을에 실어 가지고 나라로 더 니다. 이런 말은 하려고 하지도 않 는데 히 나오 요.

그 게 가서는 큰 보따리는 어 다 놓고 그마한 보따리를 하나 어지고 건을 팔 양으로 사방을 다 구경을 하고 다니는데, 그 곳에서는 인군이 돌아가서 다른 인군을 는데 어 게 된 일인지 그 나라는 국민이 인군을 는 게 아니고 말이 아요, 말! 인군이 타고 다니던 말이 금으로다가 을 해서 고선사람들 에 나와서 인군을 는 그런 나라에 거 .

그런데 양 으로 사람이 하게 들어 는데 말이 오더 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 게나 명한지 오더니만 고 를 돌려서 보따리 낀 사람을 보는데, 이 을 보고 저 을 보고 하더니 다시 고 가 이 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에 낀 그 사람을, 자 사람을 비키게 하



즐거움은 감사하게 놓고 어려움은 되돌려 대 해서 라

한마음의 무궁무진한 법 몸 어지기 전에 알고 행해야

는 게 되었 니다. 그런데 한 구는 부처님의 말이 사기라고 생각을 고, 또 한 구는 나라마다 전 왕들을 모아 도 저 게 이 하게 말하실 거라고 하면서 무나 기 게 생각을 는데, 그 고 기게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런 설법의 뜻을 아서 이런 도리를 모르는 나라에 가서 좀 으면 하는 생각을 더 니다. 그랬는데 요, 사기라고 생각을 한 그 구는 그날 을 잔 고, 날에는 수 가 대 장으로 나가고 기 때문에 마차가 많 었 . 그런데 사기라고 생각한 구는 을 고 가지장에 나가는 마차에 여서 로 죽고, 기 게 생각 던 구는 자기 구가 죽으니 으로 수가 없어서 건을에 실어 가지고 나라로 더 니다. 이런 말은 하려고 하지도 않 는데 히 나오 요.

그 게 가서는 큰 보따리는 어 다 놓고 그마한 보따리를 하나 어지고 건을 팔 양으로 사방을 다 구경을 하고 다니는데, 그 곳에서는 인군이 돌아가서 다른 인군을 는데 어 게 된 일인지 그 나라는 국민이 인군을 는 게 아니고 말이 아요, 말! 인군이 타고 다니던 말이 금으로다가 을 해서 고선사람들 에 나와서 인군을 는 그런 나라에 거 .

그런데 양 으로 사람이 하게 들어 는데 말이 오더 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 게나 명한지 오더니만 고 를 돌려서 보따리 낀 사람을 보는데, 이 을 보고 저 을 보고 하더니 다시 고 가 이 으로 돌아오면서 사람들에 낀 그 사람을, 자 사람을 비키게 하는 것은 놓는 게 아니라 그 . 여

-ㅎ^``

을 모 다가 설법을 게 해야겠구나.' 해서 부처님을 모 다 설법을 고 그 나라가 왕성해 다는 기가 있니다. 그 기도 하고 말을 니다.

으니까, 하하하.

그랬 이 우리가 마음을 야 된다고 하는 거 요. 아까 정 스님이 세 가지 여건을 말 하 는데 하나는, 아주 어려움만 오는 게 아니 . 그런데 즐거움은 시 이고 어려운 일만 많이 . 그 니까 그런 어려움과 즐거움을 다 두리 , 즐거움은 감사하게 놓고, 어려움은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어려움이니까 어 지 않게 하는 것도 에 없어.' 하고 되돌려서 은 로 대 해서 라고 하는 말을 수차에 걸쳐서 분한 어떠한 말 을 하는데 있어서 여분이 알아들으면은 내가 다시 기 하려고 오 은 좀 들었 니다. 그 니까를 들어서 말도 심해야 하고 남이 언 아할지 아할지를 미리 알아서 말을 하는 것이, 움을 이지도 않고 가정도 화목하게 이끌어 수가 있고, 어 든지 아주 효과가 만해 지 . 또는 우리가 살아나가려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는 일이 한두 건 니까? 한두 건이 아니 . 에서나 안에서나, 애들하고나 마나, 찰나찰나 오는지, 또 어 때는 즐거움도 와요.

생각하지 마세요. 방 은 나 으나 같 니다.

우리가 지금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부처님한 만 할 알 지, 그 고 를 하고 이만 다가, 고 ( )의 어리를 그 다가 어 고는 그거를 감해 라고, 우리 남 되고 우리 자식 되고, 우리 일가 까지도 모두 되게 해 라고 그 난설을 하는 거 .그 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도 말 니다. 내가 상 기하 . 제 나무는 제리를 믿어야 모든 에 지가 수 서 올라 다고요. 그 고 또 가장구나 사는 무엇을 으로 내려보내느 하면은 양열과 공기나 어떠한 에 지도 다 아로 내려보내고, 이 게 오르 내리 해야 가 저절로 돌아가 이, 이 저절로 돌아서 양식으로 을 수가 있어서 르르게 살 수 있 이, 내 나무가 만 에 나무를 믿고 기도를 거기다 하면서 나무에서 에 지가 나올 알고, 도와 알고 고 기도한다면, 상한 고 기도한다면, 이 을 믿고 기도하고 다면 거기서 에 지를 이리로 보내 까요? 아 니다. 드시 그 나무의 그 리만이 서로 상 하면서 서로 이 을 다주고 공 을 다주는 니다.

그 니까 한마 로 말을 해서 여 분 마음, 속에 아 수 없는 생명들이 들어있고 나무에는 이파리들이 아 수 없이 있 니다.

으로 으로 보이게 사 들이, 향나무 같은 거는 아 수도 없어요. 아 수 없는 와 우리 안에 있는 생명들이 모 을 가지로 가지고 천차만별로 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 니까? 그것이 수 부터 진화되고 어서 모 을 가지고 나 다는 명서 요, 명서. 내 몸이 로 명서 니다. 그 니 어 안 믿을 수가 있겠 니까?

그 서 내 몸을 로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도 보이지 않는 다의 중 에 서있는 니다. 이게 중세 니다. 중에 서서 를 타고 가는 이 말 니다. 이 몸을 로 한번 생각해보 시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중생들이 잔말 니다. 그런데 마음의 선장이 를 끌으로 력이 있거든요. 그 서 현실에 과 그 인연의 업식, 악업 선업이 부이 가지고 부모의 몸을 어서 이 세상에 나오거든요. 그 니 거기서 나오지 데서 나오는 게 하나도 없는 니다. 데서 오는 거라 하나도 없어요. 악업 선업이 력된 대로 게 나올 수도 있고 기게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악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다른 데서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니 거기에서 일을 하려고 해도 수 없이 일이 안 되는 수도 있고 되는 수도 있고, 해보려고 하면 하고, 좀 살아보려고 하면은 금 모 다가도 금방 다나가고 하는 문제들, 말로는 할 수 없이 건건이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있 .그 서 그 게 건건이 생기는 그 까 이 로 그 기 때문에 나오는 니다. 그 니 건건이 들어오는 거마다 불 에다 놓으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 니다. 그런 거와 같이 건건이 오는 대로 그 거기 어어라, 그 면 타버린다, 건건이 는 대로 ' 만이 할 수 있어.' 하고 믿고 놓아야지 버리라고 해서 놓으라는 게 아니다. ' 가 이 게 나오게 으니까 안 나오게 할 수 있지 않아.' 하고 놓고, 상에 따라서 또 ' 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가 모든 아야 하지 않아.' 하고 놓고, '이것은 만이 이끌어 수 있어.' 하고 놓고, ' 만이 안을 화목하게 할 수 있어.' 하고 놓으라고 하는 니다. 그 한 건수가 마나 많 니까?

자식이 무엇을 다거나 자식이 서 어 로 잡 다거나, 또는 자식이 이 들었다거나, 자식이 공부를 안 하고 나가서 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서 애로가 많은 들도 있고, 또 여 가지 이 로 정신분열 이 생 서 식구들이 다 그 애 는 들도 많고 이런데 그거를 어 게 다 대 를 해야 으 는 니다. 우리에게 지금 시 한 게 그런 거지 게 있 니까? 내 몸과 가 들과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해나 때에 로 내 성도 이루어지는 니다. 그 서 몸 속의 자생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제도가 서 보살로 화하게 되면, 이 세상에 주머니 공기주머니에서도 자 스럽게 다인 말 니다. 그 니 안 하고 기겠 니까?

세 적으로도 지금 하고 교차로에 서서 정신 로 아들이려고 무애를 고들 있 니다. 정신 를 돌아서 나오니까 의학 에서도 때에, 대 를 통해서 를 통해서 중 에서 정을 해 가지고 사대( )로 통신이 되는 니다. 안 그 니까? 이것은 구나가다, 그 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사나 의사들도 마음공부를 안 한 사람하고는 라요. 안 한 사람은 그 사사건건 다리게 되지만 자기가 마음공부를 하면서 해 해 나가는 사람은 리지 않게 니다. 우리 절에도 산부인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하나도 림이 없이 해 해 나가기 때문에 그 게 많 던 애로사 이 다 없어 다는 니다.

무 까 일까요, 그게? 대 가 되니 문제들이 모두 해 이 되는 거 . 그 고 같은 인데, 같은 화제인데 아주 감기가 어도, 가나 감기라 해도, 화제를 주어도 그 고는 니다. 이건 무 까 이 이 니다. 고 순 을 주고 을 때 로 직속으로 통하거든요. 그 기 때문에 로 는 니다. 그 니 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게나 생각해서는 안 니다. 보이지 않는 데가 더 무섭다는 알아야 니다. 보이지 않는 데가 법이라는 아 야 니다.

우리가 그 아무 게나 살아서는 안 니다. 내가 법사스님을 다 이 모시느 하면은, 나는 위에서부터 그 내리 그 뜻을 나 거든요. 차차 아 서부터 올라가면서 운 게 아 니다. 그 니 현 시 에서 사 의 적인 것이나 의와 그런 것을, '내가 시나 모르면 대

어 ᄌᆡ 말고 ᄒᆡ 것도 ᄒᆡ 말라

어떠한 거든지 오는 대로 대 해서 놓고 잡지 말아야



-샤'·

ᄒᆞᆫᄑᆞᆼᆞᆫᄑᆞᆼᆞᆫᄑᆞᆼ

불교 이래서 좋다



이현철 자영업

어린시절을 회상해 보면 나는 몸이 많이 약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절에 가시면 항상 나의 건강을 빌었다. 나도 어머니 손에 이끌려 절에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절을 했던 기억이 있다.

건강 찾고 삶의 여유 갖게 돼

불교와 본격적인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때다. 어머니가 학생회 수련회에 가 보라고 권유해 처음으로 절에가서 잠을 잤다. 그때의 기분을 말로 표현할수 없을 정도로 좋았다. 옛날에 살던 집에 온 느낌이라고나 할까? 절 생활이 그냥 편안하게만 느껴졌다. 수련대회를 다녀온 후 나는 불교학생회에 꾸준히 나갔다. 어머니도 내가 매주 일요일 절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학생회 활동을 통해 나는 참선, 108배, 관음정근 등을 배웠다. 특히 시간만 나면 관세음보살을 호명하는 관음정근을 마치 참선을 하는 사람이 화두를 들듯이 실생활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염불했다. 몸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러기를 몇 년. 나는 특별히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니지만 몸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정말 다른 아이처럼 건강해졌다. 일종의 종교적 체험이었다. 그 이후 나는 더 불교를 믿게 되었다.

되돌아보면 불교는 나에게 건강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유'라는 것을 준 것 같고 나 자신이 무한한 불성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지난 10년동안 학생회 지도교사로 활동하면서 자라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바로 너 자신이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부처가 바로 너'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2003 '세계 물의 해'

"물은 만물의 근원"

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resh Water)'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물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다. 인체를 소우주로 보았을 때 탈레스의 말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물은 인체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에 올 한해 물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한다.

물은 소화, 흡수, 순환 배설 등 필수 요소다. 또한 혈액과 림프를 구성하는 주요성분이며 관절에는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 몸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60~85% 정도. 이 가운데 1~2%만 빠져나가도 심한 갈증과 고통을 느끼게 되고 5%가 빠져나가면 혼수상태, 12%를 잃으면 죽게된다.

신진대사 담당 필수 요소

몸에 12% 부족시 치명적

물은 이같이 인간의 몸에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기에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한달이상 생존할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일주일도 못 견디고 죽고 마는 것이다.

'제6회 전국 천태 학생회 동계수련법회'

한파 속 정진 더 자라는 불심

졸업법회 이어 청년회 입회

부처님 믿음 변치 않겠다 서원

연꽃잎을 연상시켜 연화지라고 불리는 소백산 연화봉에 위치한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신비스런 산세와 관음도량으로 널리 알려져 신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에 새해 벽두부터 선재동자들이 관세음보살을 호명하며 추위를 녹이고 있었다.

영하 15도, 최감온도 20도의 한파가 전국을 강타한 4일. 천태종 산하 전국 24개 사찰 중고등부 학생회원 297명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관성당 5층 법당에서 동계수련법회가 열렸다.

이번 수련법회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둘째날 진행된 졸업법회. 어린이회와 중고등부학생회를 졸업한 법우들이 청년회에 가입해 신행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적은 것이 엄연한 현실. 그래서 졸업법회와 함께 천태종 청년회인 '청화' 가입행사를 수련법회의 프로그램에 접목 시켰다. 전국에서 모인 40여명의 졸업생들은 후배들의 뜨거운 박수와 '청화' 천태종 청년회원들의 축하속에 부처님 믿는 마음이 변치 않겠다고 부처님전에 서원했다.

김해 해성사 학생회 김성국(김해건설공고 3년)군은 "이번 수련법회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니 그동안 법우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머리에 스쳐지나간다"며 "비록 졸업은 하지만 내년에 학생회 지도교사로 다시 수련법회를 참석하겠다"고 눈물을 훔쳤다. 졸업법회에서 고대월 스님은 "천태의 미래인 선재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의 심성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니 환희심이 절로 난다"며 "대학 진학, 사회진출 등으로 새로운 세계에 나아가더라도 내 자신이 불성을 가진 부처라는 사실을 잊지말고 열심히 신행생활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수련법회는 이른 새벽 기상과 함께 예불, 관음기도, 적멸궁 참배 등 빠듯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구인사 조실 도용스님은 5일 오후 선재동자들의 방문을 받고 "공부 열심히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고 당부했다. 졸업법회 이전에 펼쳐진 장기자랑 시간에서는 대구 대성사, 부산 삼광사 학생회 등의 법우들이 그동안 준비한 갈갈이 삼형제, 패션쇼를 펼치며 자신의 끼를 발산했다.

천태종 어린이회 · 학생회 지도법사 승묘스님은 "이쁘게 커가는 선재동자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면 비록 자식을 두지 않은 출가자지만 부모의 마음을 느낄수 있을 것 같다"며 "특히 어린이회 출신이 학생회 지도교사가 되어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을 볼때면 불교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지난 4~6일 천태종 산하 전국 24개 사찰 중고등부 학생회 회원 3백여 명은 구인사 관성단 5층 법당에서 '제6회 전국 천태 학생회 동계수련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졸업법회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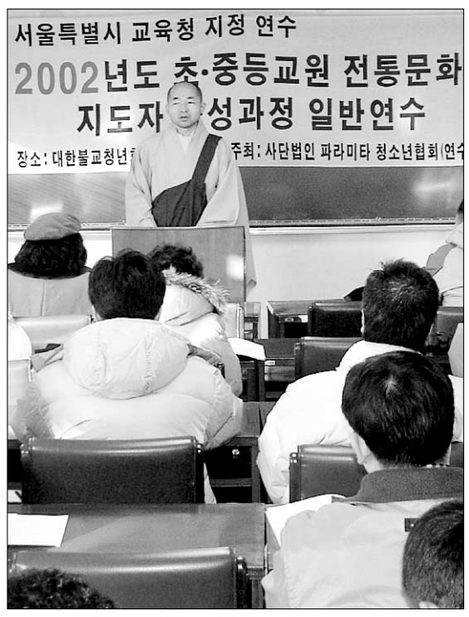
피라미타, 문화재 지도자 연수

17일 까지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총재 도영)는 6일~17일까지 11일간 조계사 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전국 초중등 교사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학년도 초 · 중등교원 전통문화재 지도자 양성과정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올바로 가르치고 계승할수 있도록 이끌어줄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직무연수는 문화재청 이춘근 문화재기획과장의 '문화재 정책', 숙명여대 정병삼 교수의 '전통문화재총론', 동대사대부중 우인보 교법사의 '한국의 탑', 목포대 김지민 교수의 '유교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강좌와 전통사찰인 봉은사 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파라미타는 3~5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분회임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수련회를 봉행했다.



◇초 중등 교사들이 전통문화재 지도자 양성 과정 직무연수를 받고 있다.

동대부중 3대 종교체험학습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교장 박장옥)는 구랍 13, 16, 17일 3일간 3대 종교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3학년 재학생 28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종교에 대한 균형있는 지식을 습득케하고 건전한 종교관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된것. 참여학생들은 13일 학교 인근 성복교회, 16일 장안동 성당, 17일 강남 봉은사를 차례로 방문해 예배, 미사, 법회를 봉행하며 3대종교를 체험했다.

명성여중 소쩍새 마을 방문

명성여자중학교(교장 박명순)는 구랍 30일 장애인 복지시설인 원주 소쩍새마을(원장 현각)을 방문, 그동안 학교에서 모은 헌옷 20박스, 라면 등 생필품 5박스와 현금 13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한 1학년 3반 6명, 2학년 2반 30명, 졸업생 2명 등 총 39명과 한숙경, 정숙진 선생님은 6개조로 나누어 방청소, 빨래, 말벗되기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도 펼쳤고 원생들과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열어 흥겨운 한때를 보냈다.

명작 비디오 파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2001년 스튜디오 지브리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짜증 잘내고, 칭얼거리기 좋아하는 10세 소녀 치히로는 부모와 함께 이사가던 중 길을 잘못들어 이상한 터널을 지나가게 된다. 폐허가 된 놀이공원, 불길한 기운을 느낀 치히로는 돌아가자고 부모를 조르지만 음식점을 발견한 부모는 치히로의 칭얼거림을 무시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혼자 돌아가겠다고 나선 치히로가 음식점에 돌아왔을 땐 돼지로 변해버린 부모가 있었을 뿐. 당황하는 치히로에게 낯선 소년 하쿠는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경고한다.

부모와 함께 나가려다 나갈 기회를 잃고 이상한 세계에 남게된 치히로는 온천장 주인 유바바에게 '치히로'라는 이름을 빼앗기고 '센'으로 불려지며 온천장에서 일하게 된다.

여기서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은 자아를 잃고 무명 속에서 헤매는 중생과도 같다. 이름을 빼앗긴다는 것은 타인이 날 인식하는 코드를 빼앗긴 것이다. 부처님은 <연기경>에서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것의 이름과 물질은 '색(色)'이라 하고 이를 인식하는 것이 연기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신다. '치히로'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기 위해 '센'이라는 코드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강지연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